

---

# 한일관계사학회

## 제224회 열례발표회

---

일시 :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2~6시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호관

# 차례

사회 :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제1발표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과 해역 아시아

발표 : 홍인식(규슈대학교)

토론 : 윤승희(경희대학교)

## 제2발표

「柳川一件」後、日朝外交における外交僧体制  
の改編  
-以酏庵輪番制と西山寺・清書役僧体制をめぐって-

발표 : 顧明源(규슈대학교)

토론 : 이형주(국민대)

## 제3발표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  
-唐之首尾御使者를 중심으로-

발표 : 박정빈(규슈대 입학예정)

토론 : 허지은(서강대학교)

## 제4발표

식민지기 조선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김병규(金秉圭)를 사례로-

발표 : 김동명(국민대학교)

토론 : 김영미(전남대학교)

## 제1발표

#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과 해역 아시아

발표 : 홍인식(규슈대학교)

토론 : 윤승희(동국대학교)

【제1주제】

#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과 해역 아시아

규슈대학 박사후기과정 홍인식

## 목차 I. 머리말

### II. 15세기 후추의 유입 양상

- (1) 15세기 중반까지의 후추 유입 양상
- (2) 15세기 후반 후추 유입의 증가와 규제
- (3) 해역 아시아 정세와 후추 유입 증대의 연관성

### III. 16세기 후추 유입 양상과 그 배경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조선 전기(1392~1592) 후추 유입 사례를 분석하여, 당시의 조선이 해역 아시아 정세와 어떠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sup>1)</sup>

후추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이기에, 과거에는 생산지와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를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물품이었다. 그러나 후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로 유통된 대표적인 교역품 중 하나였으며, 한반도에도 이미 고려 말기에 유입되었음이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sup>2)</sup> 조선 시기에도 후추가 빈번히 유입되고 있었음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조정에서는 그 유입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3)</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후추는 이미 조선 사회에서 일정하게 유통되면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던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전기 후추에 관한 연구는 조일 무역의 일환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일정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sup>4)</sup> 그 과정에서

1) 해역 아시아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같은 육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 설정에서 벗어나 바다의 시점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아울러서 파악하려고 하기 위한 지역 설정이며(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1쪽),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으로의 후추 유입을 검토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시기까지를 조선 전기로 파악하는 시대 구분론에 입각한다.

2) 『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원년 8월조

3) 관련 기록은 여러 가지가 확인되나, 대표적으로 『중종실록』권12, 중종 5년 10월 을유조를 들 수 있다.

4) 黒田省三, 「中世朝鮮貿易における輸出物資に就て」, 児玉幸多 編, 『日本社会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55 ; 金柄夏, 「李朝前期における対日胡椒取引」, 宮本又次 編, 『商品流通の史的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65 ; 関周一, 「香料の道と日本・朝鮮」,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東京大学出版会, 1992 ; 平木實, 「朝鮮時代前期における胡椒交易をめぐって」, 『朝鮮学報』153輯, 1994 ; 鄭成一, 「朝鮮과 琉球의 交易」,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 村井章介, 「十五世紀朝鮮・南蛮の海域交流 - 成宗の胡椒種求請一件から」,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 汲古書院, 2013 ; 양자, 「근세 동아시아 후추 무역」,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김동우, 「조선 전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이승민, 「조선시대 후추(胡椒)의 도입과 소비」, 『역사와 교육』제41집, 2025

후추의 용도, 조선으로의 유통 과정, 조정에서의 보관 장소 등 다양한 쟁점이 검토되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후추는 류큐왕국(琉球王國, 이하 ‘류큐’)의 중계무역을 통해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동아시아 해역으로 운반되었다.<sup>5)</sup> 이후 류큐가 조선에 직접 통교하여 이를 수출하거나, 하카타(博多) 상인을 비롯한 일본 상인들이 류큐에서 후추를 구입하여 조선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유입되었는데, 후자의 경로를 통한 유입이 주류를 이루었다.<sup>6)</sup> 후추는 이른바 박래품(舶來品)의 성격을 지녀 조선에서 희소한 물품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본의 국사인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가 연회의 자리에서 후추를 뿌리자, 기공(伎工)들이 앞다투어 이를 주우려 했다는 일화는 당시의 단편적인 사회 분위기를 시사하고 있다.<sup>7)</sup> 오늘날 후추는 조미료로 널리 사용되는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약재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 일정한 필요성을 지닌 물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종은 후추의 국산화를 시도하고자 그 종자(種子)를 일본에 구청(求請)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후추가 명에 재수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의 보관 장소가 의영고(義盈庫)나 약방(藥房)이었다는 점 등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sup>8)</sup> 관련 사료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쟁점이 검토되면서 조선과 관련된 후추의 유통과 소비 양상 등은 점차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다만 후추의 유입 양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후추는 성종기부터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6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입량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후추에 대한 조선의 수요와 제도적 대응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유입 경로에서 실제로 움직인 운반자와 동아시아 해상 교역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서술에 머물러 있다.<sup>9)</sup> 후추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뒤 류큐나 일본을 거쳐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의 후추 유입은 해당 지역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해역 아시아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조선이 점하고 있었던 위치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후추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후추의 유입을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선 정부의 정책적 조치를 정리하고자 한다. 직접적인 유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16세기의 경우에는 소비, 재고, 가격 협상, 무역 규제 및 포소체류 조치(浦所留置)와 같은 행정 기록을 간접 지표로 삼아 유입의 지속 여부와 변동을 점검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후추 유입의 국면 전환이 발생하는 시기에 해역 아시아 전반에서 어떠한 정세 변화가 수반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15세기 후추의 유입 양상

### (1) 15세기 중반까지의 후추 유입 양상

5) 黒田省三, 앞의 논문, 1955;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関周一, 앞의 논문, 1992

6)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関周一, 앞의 논문, 1992

7) 『징비록』 권1, 만력 병술(1586).

8)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 왕자, 앞의 논문, 2020 등.

9)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 왕자, 앞의 논문, 2020 등.

10) 본고에서 말하는 해역 아시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해상 교역권(류큐-일본-조선-명 연해)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한반도에 후추가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사료상으로 볼 때 적어도 고려 말기에 후추가 유입되었던 것은 확인된다. 창왕 원년(1389) 8월, 류큐국 중산왕 찰도(察度)의 사신 옥지(玉之)가 고려에 내조하여 방물을 바쳤는데, 그 중에 후추 300근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1)</sup> 한편 고려 시대 문신 이인로(1152~1220)가 지은 「홍도정부(紅桃井賦)」에 후추와 관련된 원재(元載)의 고사가 인용되어 있었다는 점과,<sup>12)</sup> 1324년에 중국의 경원(慶元)에서 일본의 하카타(博多)로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무역선(신안선)에 후추가 실려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후추가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에서 후추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고 당시 동아시아 해역에서 후추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에 후추가 유입되었던 시기는 앞서 언급한 찰도의 사례보다 앞섰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후추를 포함한 남방계 물산의 유입은 계속되었고, 사료상으로는 정종 원년(1399)에 일본 쇼군(아시카가 요시미츠)의 모후(母后)가 보낸 후추 10봉이 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후 일본을 통한 후추 유입이 빈번히 확인되지만, 1420년 전후까지는 후추의 유입처가 일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류큐로부터의 후추 유입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명에 갔다가 복명한 한확이 영락제로부터 후추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은 해당 시기에 후추가 명을 통해서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14)</sup> 또한 여말선초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한반도로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고, 이들의 부탑화물(附搭貨物)에는 후추가 포함되어 있었다.<sup>15)</sup> 이는 조선 초기 후추 유입 구조가 아직 특정 지역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

한편,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세종 3~6년(1421~1424)에 후추의 유입에 관련된 기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시부카와(渋川) 씨와 그 관계자의 명의로 인한 유입이 두드러진다.<sup>16)</sup> 하카타가 일본 내 국제 무역항이었던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당시의 정세와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시기에는 세종 원년에 있었던 기해동정으로 인해 쓰시마가 조일 무역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해 있었고, 조선이 대일 교섭 상대로 기대했던 세력이 규슈탄다이 시부카와 씨였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상태였다.<sup>17)</sup> 하지만 그 실태는 하카타 상인이 시부카와 씨의 통교를 청부받거나 명의를 빌려서 통교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18)</sup>

세종 7년(1425) 이후에는 후추의 유입에 관한 기록이 사료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유입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편찬 사료의

11) 『고려사』 권137, 열전 권50, 창왕 원년 8월조.

12) 『동문선』 권2, 부, 홍도정부.

13) 『정종실록』권1, 정종 원년 5월 을유조.

14)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9월 경인조; 『세종실록』권8, 세종 2년 5월 계미조.

15) 和田久徳, 「十四五世紀における東南アジア船の東アジア来航と琉球国」, 『球陽論叢』, ひるぎ社, 1986. 『태종실록』권12, 태종 6년 8월 정유조; 9월 임오조.

16) 『세종실록』권12, 세종 3년 6월 신축조; 『세종실록』권13, 세종 3년 8월 을사조; 『세종실록』권19, 세종 5년 2월 병진조; 『세종실록』권20, 세종 5년 5월 무술조; 『세종실록』권20, 세종 5년 6월 경오조;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0월 임신조;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1월 갑오조; 『세종실록』권22, 세종 5년 12월 을해조; 『세종실록』권24, 세종 6년 6월 기미조; 『세종실록』권26, 세종 6년 12월 갑진조.

17) 田中健夫, 「日鮮貿易における博多商人の活動」,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37쪽; 川添昭二, 「九州探題渋川満頼・義俊と日朝交渉」,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205-210쪽.

18) 伊藤幸司, 「日朝関係における偽使の時代 - 博多商人の視覚から -」, 『中世の博多とアジア』, 勉誠出版, 2021, 145-147쪽.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후추의 유입이 지속되었더라도 ‘내헌토의(來獻土宜)’와 같은 간략한 표현으로 서술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9)</sup> 실제로, 아래의 사료를 검토하면 당시에도 후추가 일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료1> 『세종실록』권95, 세종 24년 정월 기사조

지평 박추가 계(啓)하기를, “…중략… 단목·백반(白礬)·후추는 모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데 무역하게 한다면 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략… 단목 등의 물품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우리 나라가 일본과 통교하고 있는 것을 중국은 알고 있다. 우연히 중국이 (이러한 물품들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다고 생각해도 어찌 공물로서 요구할 수 있겠는가? …중략…”라고 하였다. …후략…

위의 사료는 사신관 무역에서 조선의 상인들이 명의 사신 일행과 교역할 때 후추를 비롯한 물품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평 박추와 세종이 논의한 내용을 보여준다. 당시 명 사신 일행이 다량의 물품을 가져온 것이 문제가 되자, 호조는 이를 모두 무역하기 위해 후추를 비롯한 물품으로 교역할 것을 세종에게 건의하였고 세종은 이를 승인하였다.<sup>20)</sup> 해당 사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박추와 세종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세종이 ‘후추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후추가 일본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던 당시의 일반적인 경로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종이 후추의 원산지가 아닌 일본을 그 생산지로 지목한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후추 유입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서 형성된 경험적 인식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조선의 후추 수급 체계에서 일본이 점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류큐에 의한 후추 유입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교명의	유입 형태	유입량	전거
琉球國王	예물	100근	『세조실록』권12, 세조 4년 3월 병신조
琉球國王	예물	105근8량	『세조실록』권24, 세조 7년 5월 기사조
琉球國中山王	예물	200斤	『세조실록』권26, 세조 7년 12월 무진조
琉球國王	예물	?	『세조실록』권43, 세조 13년 7월 병자조
	사신의 사진상		『세조실록』권43, 세조 13년 7월 신사조

표 3 세조대 후추 유입 기사

세조대에도 일본과의 통교는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을 통한 후추의 유입을 상정할 수 있으며, 표 1의 내용과 종합하면 15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그 유입처가 일본과 류큐로 한정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 (2) 15세기 후반 후추 유입의 증가와 규제

19) 대표적으로 『태종실록』권18, 태종 9년 9월 경인조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국 오우치 다타라 도쿠오(大內德雄), 즉 오우치 모리미(大內盛見)가 예물을 바쳤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고류지 문서(興隆寺文書)』에는 별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그 안에 후추 50근이 포함되어 있다.

20) 『세종실록』권95, 세종 24년 정월 정묘조.

15세기 후반, 즉 조선 성종대에 이르면, 후추 유입 양상이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시의 후추 유입량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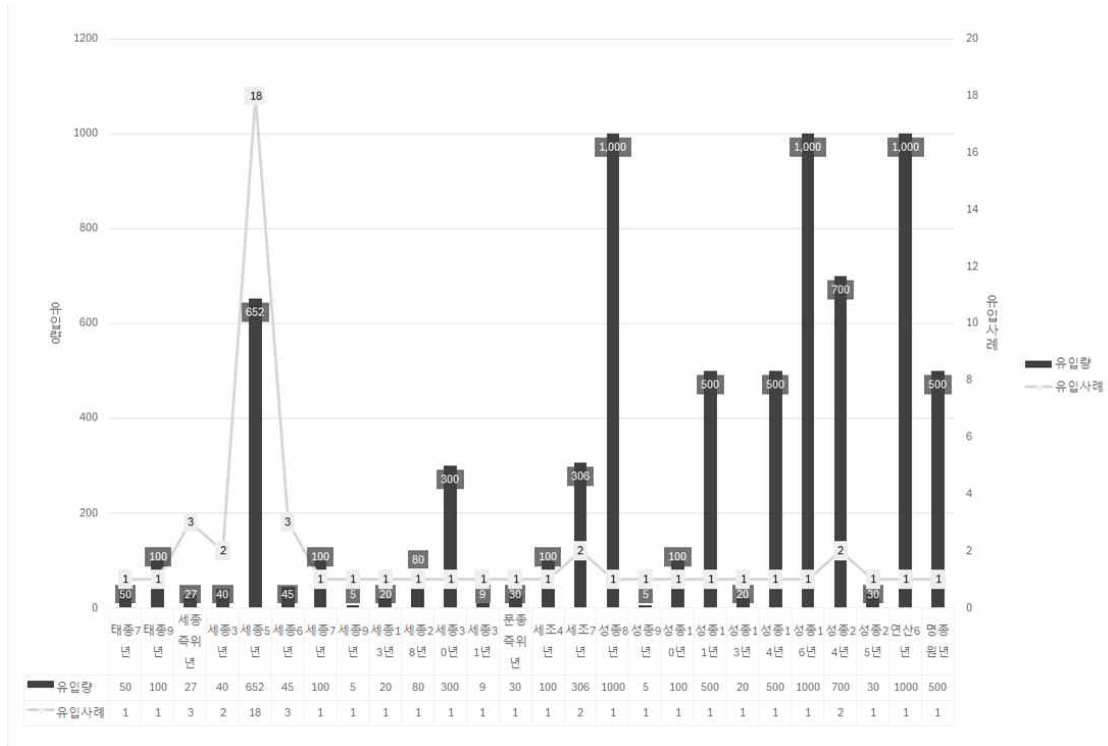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 양상

위의 그림 1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후추 유입 기사 중 그 수치가 명확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그래프이다.<sup>21)</sup>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성종대부터 후추의 유입량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해 왔는데, 그림 1을 보면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성종대 이전의 후추 유입은 유입 사례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총유입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세종 5년(1423)은 유입 사례가 18회에 이르지만, 총유입량은 600여 근 수준에 그친다. 반면 성종 8년(1477)과 성종 24년(1493)은 유입 사례가 각각 1회에 불과함에도 총유입량이 1,000근 안팎에 이른다. 이는 성종기 이후의 후추 유입 증가가 단순히 유입 횟수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한 차례 반입되는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한편, 성종기의 후추 유입 기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2이다.

통교 명의	유입 형태	수량	전거
琉球國王尙德	예물	1000	『성종실록』권81, 성종 8년 6월 신축조
久邊國主李獲	예물	5	『성종실록』권98, 성종 9년 11월 경신조
琉球國王尙德	예물	100	『성종실록』권105, 성종 10년 6월 정미조

21) 정종 원년(1399)에 쇼군(아시카가 요시미츠)의 모후가 보낸 후추 10봉의 경우 단위가 불명확한 관계로 그래프를 작성하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22) 黒田省三, 앞의 논문; 金柄夏, 앞의 논문; 平木實, 앞의 논문.

琉球國王尙德	예물	500	『성종실록』권118, 성종 11년 6월 병진조
久邊國主李獲	예물	20	『성종실록』권145, 성종 13년 윤8월 경진조
琉球國王尙圓	예물	500	『성종실록』권161, 성종 14년 12월 정축조
小二殿政尙	사신의 사진상	1000	『성종실록』권176, 성종 16년 3월 정미조
琉球國王尙圓	예물	700	『성종실록』권279, 성종 24년 6월 무진조
琉球國中山府主	예물	30	『성종실록』권290, 성종 25년 5월 무술조

표 4 성종대 후추 유입 기사(단위 : 근)

위의 표 2를 보면 류큐에 의한 후추 유입이 일본을 통한 유입보다 우세한 것처럼 나타난다. 또한 구변국(久邊國)이라는 새로운 지역을 통해서 후추가 조선으로 유입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종대 류큐 국왕 명의를 통교는 하카타 상인이 주도한 위사(僞使)였으며,<sup>23)</sup> 구변국 명의 통교 역시 사쓰마(薩摩) 상인이 가공의 국가를 창출하여 파견한 위사였다.<sup>24)</sup> 따라서 이러한 통교 명의를 의한 유입은 실질적으로 일본 상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이 위사라는 방식까지 동원하여 조선과 통교하게 된 배경에는 1443년에 체결된 계해약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쓰시마 도주(對馬島主)의 세견선(歲遣船)이 50척으로 제한되면서 통교에는 일정한 제약이 발생하였고, 쓰시마 도주와 일본의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5세기 중반부터 심처왜(深處倭), 왕성대신(王城大臣), 류큐국왕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사를 적극적으로 파견하였다.<sup>25)</sup> 위사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곧 진사(眞使), 즉 정식 통교 역시 병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면 직접적인 유입 기사가 확인되지 않을 뿐 일본을 통한 후추 유입은 계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료 2> 『성종실록』권160, 성종 14년 11월 임진조  
(상이) 주강(晝講)에 행차했다. 강이 끝났다. …중략…문간(文幹)이 또 아뢰기를 “…중략…신이 듣건대, 왜인이 후추·소목·환도 등의 물건을 예조에 많이 선물한다고 합니다. 저들은 분명 이로써 우대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신이 중조 예부(中朝禮部)에 이르러 만약에 인정(예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받지 말게 하소서.” …후략…

위의 사료는 박문간이 예조가 왜인들로부터 후추를 비롯한 물품을 받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성종에게 이를 금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왜인들이 우대를 받기 위해 후추 등의 물품을 예조에 다수 증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2년 뒤 장령 김질의 발언에서도 다시 확인된다.<sup>26)</sup> 김질은 예조 당상·낭청이 왜인의 “인정 물품”을 수수하는 일이 이미 격례(格例)로 굳어졌으며, 신속주가 예조판서를 겸임하던 시기에는 후추·약재 등 일부 품목만을 수수하고 나머지는 물리쳤다고 진술한다.<sup>27)</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왜인들은 적어

23) 橋本雄, 「朝鮮への「琉球国王使」と書契-割印制」, 『中世日本の國際關係 東アジア交通圏と僞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a.

24) 村井章介, 「《倭人海商》の國際的位置-朝鮮に大藏經を急逝した僞使を例として」,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1988.

25) 荒木和憲, 「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中世對馬宗氏領國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66쪽; 伊藤幸司, 앞의 논문, 2021, 168-180쪽.

26) 『성종실록』권183, 성종 16년 9월 계해조.

도 세조 13년(1467)부터 성종 16년(1485)까지 후추를 인정 예물로 예조에 계속 증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인들이 단순히 인정 예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후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물이나 사신의 사진상을 통한 후추의 유입도 병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적인 유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뿐 일본에 의한 후추 유입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종 12년에 이파가 “후추는 왜인이 많이 가지고 와서 의영고에 가득 차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sup>28)</sup>

일본에 의한 후추 유입은 계속되었으며,<sup>29)</sup> 이는 점차 조선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료 3> 『성종실록』권217, 성종 19년 6월 정미조

호조판서 정난종이 와서 계(啓)하기를, “지금 여름 석 달 동안 왜인이 바친 것에 답사한 포백(布帛)을 계산해 보니 무려 10여만 필이고 사섬시에 남은 것은 단지 80여만 필 뿐입니다. 석 달의 비용이 이와 같이 많다면 국가의 유한한 재화로는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와서 바치는 물품(來獻之物) 중에 오매목(烏梅木)·소목(蘇木) 등의 물건만이 공사(公私)에 이용됩니다. ①속향(束香)·정향(丁香)·백단향(白檀香)·후추(胡椒) 등의 물건은 모두 긴요하지 않는데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②하물며 후추는 의영고에 비축된 것이 6백여 근이 있으니 국용(國用)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저들의 탐욕을 형세상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렵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임시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치는 물건은 모두 긴요하지 않고 가격은 매우 비싸다. ③만약에 가격을 낮추어서 받는다면 일일이 답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하는 바에 따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타이르고 그 거취를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전교하기를 “계(啓)한 바가 과연 옳다. 그 것에 대해 예조와 상의하여 계하라”라고 하였다.

<사료 3>은 호조판서 정난종이 왜인에게 지급되는 답사품이 과다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고 부담을 보고한 내용이다. 정난종은 왜인이 바치는 물품 가운데 오매목·소목 등은 공사(公私)에 이용되지만, 속향·정향·백단향·후추 등은 국용에 긴요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밑줄①). 특히 그의 보고를 통해 당시 후추가 의영고에 600여 근 비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그는 “국용에 여유가 있다”고 평가하였다(밑줄②). 조정에서 후추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호조의 장관이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600여 근은 당시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난종이 왜인들이 들고 오는 물품의 가격을 낮추어 대가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자, 성종은 이에 동의하였다(밑줄③). 이는 왜인에게 지급되는 답사품을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조치가 비단 후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지라도, 정난종이 긴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후추를 거론하고 그 비축량을 별도로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왜인들이 들고 오는 물품 중에서도 후추가 특히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인들이 들고 오는 물품에 대한 답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27) 『세조실록』권43, 세조 13년 9월 무진조.

28) 『성종실록』권132, 성종 12년 8월 무진조.

29) 『성종실록』권190, 성종 17년 4월 계미조.

사실은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4> 『성종실록』권288, 성종 25년 3월 기유조

호조판서 노공필과 예조판서 성현이 계(啓)하기를, “①왜인의 물품은 국용에 절실하지 않는데 (그들은) 진상이라고 말하며 바치고 있습니다. 왜인이 오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 회사의 물건에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끝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후추·정향(丁香)·주홍(朱紅) 등의 물건은 모두 국용에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바친 것이 쓸데없이 쌓여 있습니다. ②지금 사사로이 진상하는 물건(私進之物)은 일체 금지하고 다만 서계에 적혀있는 물건(書契付物)을 국용에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서 그 값을 올리거나 내려서 지불한다는 점을 왜인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면 진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고 나라의 저축에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③공필 등이 계(啓)하기를, “대마주 특송은 원래 사사로이 진상을 하지 않고 다만 본국 사람이 사사로이 바치는 것이 많을 뿐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아울러 금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지금 만약 금하지 않는다면 후에 계속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성종이) 전교하기를, “나의 뜻으로는 불가하지만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므로 따른다.”라고 하였다. …후략…

<사료 4>는 호조판서 노공필과 예조판서 성현이 왜인 진상 물품의 성격과 그에 따른 회사 부담을 문제 삼아 대책을 건의한 내용이다. 이들은 왜인의 물품이 국용에 절실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후추·정향·주홍 등의 물건들이 쓸데없이 쌓여 있는 상황을 언급하였다(밑줄①). 이를 통해 후추 유입이 여전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본국 사람들의 사진상(私進上), 즉 사신들이 사사로이 물품을 진상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밑줄②). 성종 16년에 소이전정상(小二殿政尙)의 사신이 후추 1천 근을 사진상한 사실이 앞서 제시한 표2를 통해 확인되는데,<sup>30)</sup> 이를 통해 당시 상당량의 후추가 사진상의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측의 입장에서 가지고 온 물품을 희망하는 가격에 모두 무역하기에는 사진상이 유리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어 왔다.<sup>31)</sup> 이러한 점은 노공필과 성현이 사신들의 사진상을 금지하고 서계에 적혀있는 물건만을 국용의 여유에 따라 구입하려고 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밑줄 ②). 성종은 일단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한 달 뒤 후추가 약이(藥餌)에 중요하므로 공무역을 통해 거래할 것을 제안했다.<sup>32)</sup>

이후 곧 부경사행(赴京使行)이 후추를 명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정 내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다.<sup>33)</sup> 그 배경에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명이 후추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조선이 일본과 통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였다는 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조정에서 후추는 기본적으로 명에 수출해서는 안되는 물품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30) 소이정상(少弑政尙)은 1479년에 이미 '마사스케(政資)'로 개명하였다는 점과, 1474년에 쓰시마의 인간이 쇼니(少弑)씨의 도서(圖書)를 훔친 뒤 쇼니씨를 사칭하는 사자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는 향화(向化)왜인 설명(雪明)의 동생의 증언을 고려하면, 해당 사신은 위사일 가능성이 크다(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圖書」と木印」, 『朝鮮學報』156輯, 1965, 31-32쪽)

31) 長節子, 「十五世紀後半の日朝貿易の形態」, 中村質編, 『鎖国と國際關係』, 吉川弘文館, 1997, 20쪽.

32) 『성종실록』권289, 성종 25년 4월 병인조.

33) 『성종실록』권290, 성종 25년 5월 갑진조; 『성종실록』권292, 성종 25년 7월 갑진조.

조정은 논의를 거쳐 후추 무역을 공무역으로 전환하고, 조선 상인들이 일본에서 유입되는 후추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노사신(盧思愼)은 일본에서 유입되는 물품 중 후추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앞서 제시한 <사료 3>과 <사료 4>에서는 여러 물품이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조선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은 후추의 유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산군 즉위 이후 성종대에 비축해 두었던 후추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진되었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추를 궤내로 들이도록 전교한 기사는 연산군이 폐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sup>36)</sup> 심지어 연산군 7년(1501)에는 1년 경비 외에 잡처에서 사용된 후추가 10,396근에 달하였다.<sup>37)</sup> 이러한 정황은 후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라 볼 수 있다.

비록 연산군 시기에 확인되는 후추 유입 기사는 류큐에 의한 사례 한 건에 불과하지만,<sup>38)</sup> 연산 8년(1502)에 대내전(大內殿)의 사신이 가지고 온 후추의 절반을 공무역하도록 허락하였으며, 동 12년(1506)에는 왜인으로부터 후추를 많이 무역하도록 전교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 의한 후추 유입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연산군 시기의 후추 유입은 성종대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종 25년부터 조선은 공무역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후추를 유입하고 있었으나, 연산 8년 무렵에는 이미 후추의 공무역이 금지된 상태였다.<sup>40)</sup> 연산 4년(1498) 7월 무렵, 동(銅)의 공무역이 금지되고 사무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예종 원년(1469)부터 금지되어 있었던 삼포에서의 사무역도 이 시기부터 재개되었다.<sup>41)</sup>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후추의 공무역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금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후추의 공무역을 계속 요청하였고, 이후 조선과 일본 간에는 후추 공무역의 시행 여부와 그 규모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sup>42)</sup>

### (3) 해역 아시아 정세와 후추 유입 증대의 연관성

앞 절에서는 15세기 조선의 후추 유입 양상을 정리하고, 성종대 이후 후추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성종대 이전에는 후추가 문제시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지만, 성종 후반에 이르러 조정이 일본에서 유입되는 물품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후추가 반복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점은 성종대 이후 후추 유입이 증가하였음을 방증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성종대 이후 후추의 하사 횟수와 지급량이 증가한 사실 역시 유입량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

34) 『세종실록』권95, 세종 24년 정월 경오조.

35) 『연산군일기』권22, 연산3년 3월 무오조.

36) 『연산군일기』를 살펴보면, 연산군은 재위 기간 동안 50회 이상 후추를 궤내에 들이도록 전교하였다. 이 중 가장 이른 기사는 『연산군일기』권22, 연산 3년 3월 무오조이며, 마지막 기사는 『연산군일기』권62, 연산 12년 5월 병신조이다.

37) 『연산군일기』권42, 연산 8년 정월 신축조.

38) 『연산군일기』권39, 연산 6년 11월 정묘조.

39) 『연산군일기』권45, 연산 8년 11월 계미조; 『연산군일기』권62, 연산 12년 4월 갑술조.

40) 『연산군일기』권45, 연산 8년 7월 癸巳 ; 甲午.

41) 長節子, 앞의 논문, 1997, 5쪽; 25쪽.

42) 『중종실록』권54, 중종 20년 4월 정사조; 『중종실록』권54, 중종 20년 4월 신유조; 『중종실록』권54, 중종 20년 4월 정사조 등.

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선행연구에서는 성종대 이후 후추 유입량이 증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그 배경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조선 내부의 수요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sup>44)</sup> 물론 수요 증가라는 요인은 일정한 설명력을 지니지만, 그것만으로 성종대 이후 나타나는 유입량의 변화가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후추가 일본산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일본 측이 조선의 수요 변화에 단기간 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후추의 산지와 해역 아시아의 유통 구조, 그리고 조선에 이르는 경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추의 원산지는 남인도 말라바르 해안이지만, 15세기 초에는 이미 수마트라 섬에 이식되어 있었고, 이후 17세기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생산지가 점차 확대되었다.<sup>45)</sup> 이로 인해 해역 아시아에서 유통 가능한 후추의 절대량 자체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급 확대만으로는 유통의 방향 변화까지 곧바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시기 해역 아시아 각국의 정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아시아 해역으로 후추를 운반하던 류큐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류큐의 동남아시아 통교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의 섬라(暹羅)에 더해 말라카와 파사이 등이 새롭게 통교 대상에 포함되었다.<sup>46)</sup> 나아가 류큐가 운용하던 선박의 규모도 이전보다 대형화되었다<sup>47)</sup>. 홍무·영락 연간(1368~1424)에 류큐가 사여받은 선박의 규모가 400료(料)에 그쳤던 것과 달리, 1450년대 이후 류큐가 자기 부담으로 복건에서 조달하여 운용한 선박은 800~1000료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무역량은 종래보다 증가하였다.<sup>48)</sup> 이러한 정황은 류큐를 방문하던 일본 상인들이 종래보다 많은 양의 후추를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또한 15세기 후반 일본의 정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53년에 파견한 견명선(遣明船)의 규모가 지나치게 컸던 결과, 이후 조공은 십년일공(十年一貢)으로 제한되었고, 파견 선박 역시 3척 이내, 1척당 승무원 100명 이내로 엄격히 규정되었다(景泰約條)<sup>49)</sup>.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본의 상인들은 대명 무역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류큐 무역과 조선 무역이 대명 무역을 대신하는 대체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sup>50)</sup>.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를 거론할 수 있다. 그의 조부에 해당하는 종금(宗金)은 15세기 전반 조선 및 명과의 무역에 종사했던 하카타 상인이었으며, 본래 그의 가계(家系)는 류큐의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sup>51)</sup> 그러나 성종 10년

43)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482쪽.

44) 黒田省三, 앞의 논문, 1955; 金柄夏, 앞의 논문 등.

45) 리드·안소너, 『大航海時代の東南アジア』II, 平野秀秋·田中優子 번역, 法政大学出版局, 2002, 9-12쪽; 왕자, 앞의 논문, 2020, 39-54쪽.

46) 中島楽章, 『琉球王国の南海貿易 「万国津梁」の200年』, 吉川弘文館, 2025, 127-174쪽.

47) 岡本弘道, 앞의 책, 2010, 17-19쪽; 139~144쪽.

48) 中島楽章, 앞의 책, 2025, 101, 138쪽.

49) 橋本雄, 「遣明船の派遣契機」, 『日本史研究』479, 2002; 橋本雄, 「再論、十年一貢制」, 『日本史研究』568, 2009.

50) 佐伯弘次, 「十五世紀後半以降の博多貿易商人の動向」, 『九州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人文学 東アジアと日本 - 交流と変容 -』2, 2005, 73쪽; 橋本雄, 「東アジア世界の変動と日本」, 大津透ほか 編, 『岩波講座日本歴史8中世3』, 岩波書店, 2014, 61쪽.

51) 有光友学, 「中世後期における貿易商人の動向」, 静岡大学人文学部『人文論集』21, 1971, 51쪽; 佐伯弘次, 앞의 논문, 2005, 70쪽.

(1479) 5월에 삼미삼보라는 표류인 송환을 위해 류큐의 부사신 자격으로 조선에 내조하였는데, 해당 표류인들은 그가 류큐에서 무역을 하던 중에 발견한 사람들이었다.<sup>52)</sup> 물론, 이 단일 사례만으로 일본 상인들의 류큐 무역 참여가 일반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상인들이 경태약조 이후 기존에 종사하지 않았던 시장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류큐의 동남아시아 무역의 확대가 일본 상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후추의 양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태약조는 일본 상인들의 류큐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태약조로 인해 조선 무역 역시 대명 무역을 대신하는 대체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일본 상인들이 종래보다 많은 양의 후추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쓰시마 측이 위사(僞使)를 활용하여 조선과 통교를 확대한 결과, 성종대에 이르러 후추 유입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 상인들에게 후추는 조선과의 교역 품목일 뿐만 아니라 대명 무역에서도 취급되던 상품 중 하나였다. 나카지마 가쿠쇼(中島樂章)가 소개한 고우태(高宇泰)의 『경사록(敬士錄)』에는 영락 연간 일본의 수출품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여기에 후추가 포함되어 있었다.<sup>53)</sup> 또한 영화 4(1433)년에 파견된 견명선에도 후추가 적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sup>54)</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경태약조에 의해 일명무역에 제한이 가해진 이후, 일본 상인들이 류큐에서 매입한 후추는 주로 조선으로 수출되었을 것이다.

화기에 사용되는 유향의 경우 류큐와 규슈에서 채굴된 유향이 각각 명과 조선으로 유통되면서 시장 영역이 일정하게 분화되어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sup>55)</sup> 또한 15세기 후반부터 류큐가 조선이라는 시장에 그다지 적극적인 기대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sup>56)</sup> 류큐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데다 일본 상인들이 류큐에 왕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매입한 후추를 일본 상인들에게 재수출하는 편이 보다 유리하였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 역시 대명 무역에서 후추를 둘러싸고 류큐와 경쟁하기보다는 조선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면포와 교환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5세기 후반 이후 해역 아시아의 후추 유통에서는 시장의 분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 명의 정세에 주목해 보면, 해역 아시아의 후추 유통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은 영락·선덕 연간(1403~1435)에 정확의 원정을 통해 타국의 조공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전개하였으나, 이후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공 빈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점차 축소하였다.<sup>57)</sup> 앞서 언급한 경태약조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은 동남아시아 각국의 조공에도 제한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참파(占城)와 자바(爪哇)는 삼년일공(三年一貢)으로 제한됨에 따라, 1430년대 각각 10회와 7회에 이르던 조공이 1450년대에는 모두 3회로 감소하였다.<sup>58)</sup> 삼(暹羅)의 경우 조공을 제한한다

52) 『성종실록』권104, 성종 10년 5월 신미조.

53) 中島樂章, 「永樂年間の日明朝貢貿易」, 『史淵』140, 2003.

54) 関周一, 「彼我を行き交うモノ」, 『日明関係史研究入門 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 勉誠出版, 2015, 407쪽.

55) 山内晋次, 「海を渡る硫黄 -14~16世紀前半の東アジア海域」, 『東アジア海域から眺望する世界史 - ネットワークと海域』, 明石書店, 2018.

56) 橋本雄, 앞의 논문, 2005a, 108-109쪽.

57) 小葉田淳, 『中世南島通交貿易史の研究』, 刀江書院, 1968, 232-233쪽.

58) 岡本弘道, 『琉球王国海上交渉史研究』, (有)榕樹書林, 2010, 35쪽.

는 명령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지만, 1430년대에 7회에 이르던 조공 횟수가 1450년대에 이르러서는 3회로 감소하였다.<sup>59)</sup>

또한 명으로부터 우대를 받아 왔던 류큐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홍무 연간 이후 류큐는 조공 횟수에 제약이 없었다는 점(朝貢不時), 선박의 사여, 조공 사절의 입국 경로(貢道)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명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sup>60)</sup> 그러나 이러한 우대는 정통 연간(1435~1449)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sup>61)</sup> 우선 류큐는 명으로부터 선박을 충분히 사여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태 원년(1450)부터 부족한 선박을 스스로 보충하게 되었다. 또한 천순 3년(1459)에는 류큐가 부탑화물에 대한 대가로 동전을 요구하였으나 명에게 거부되었으며, 성화 5년(1469)에는 조공 사절의 입국 경로가 복건으로 제한되었다. 나아가 성화 10년(1474)에는 류큐 사절이 일으킨 살해·강도 사건으로 인해 류큐의 조공이 이년일공(二年一貢)으로 제한되었다.

동남아시아 각국이나 류큐에 대한 조공 제한은 종래 조공을 통해 명으로 유입되던 물품의 유통 경로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홍무 연간(1368~1398)에 자바(爪哇)와 삼(暹羅)은 각각 75,000근과 10,000근의 후추를 진공하였는데,<sup>62)</sup> 이는 동남아시아의 각국에서 명으로 유입되던 후추 물량이 상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록 해당 수치는 14세기 후반의 기록이지만, 이는 명으로 향하던 후추 유통 규모의 전례를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조공 제한으로 인해 명에 후추를 무역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각국은 종래 명에 수출했던 후추의 대체 시장을 모색할 상황에 놓였을 것이고, 류큐가 그 유력한 후보였을 것이다. 류큐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후추를 매입하여 명과 교역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조공 횟수의 제한은 새로운 무역 경로를 모색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도 조선의 후추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정되나 『역대보안』이나 『명실록』에는 이러한 정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료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 III. 16세기 후추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본 장에서는 16세기 후추 유입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중종기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후추 관련 기사가 줄어들며, 구체적인 유입량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도 제한적이다. 현재 확인되는 대표 사례는 명종 원년(1546) 일본국왕사가 부물(賻物)로 가져온 후추 500근이다.<sup>63)</sup> 그러나 해당 시기에도 일본과의 통교는 계속 이루어졌고, 후추의 유입을 엿볼 수 있는 기사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개별 기사만으로는 전체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본 장에서는 중종기 이후의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후추 유입의 실태와 그 변동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16세기 해역 아시아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으로의 후추 유입이 해역 아시아의 정세와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역대보안』에서 나타나는 류큐의 조공무역 추이를 바탕으로 16세기 초부터 류큐의 동남아시아

59) 岡本弘道, 앞의 책, 2010, 35쪽.

60) 岡本弘道, 앞의 책, 2010, 27-31쪽.

61) 岡本弘道, 앞의 책, 2010, 37-39쪽.

62) 『명태조실록』권140, 홍무 15년 정월 을미조; 권183, 홍무 20년 7월 을미조.

63) 『명종실록』권14, 중종 원년 10월 병술조.

아 무역이 쇠퇴하였다고 보고, 그로 인해 일본이 후추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해 왔다.<sup>64)</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 동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먼저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류큐와 동남아시아의 사이에서는 국영의 중계무역뿐만 아니라 민간 상업 거래도 존재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sup>65)</sup> 이는 조공무역과 같은 국영 중계무역의 추이만으로 류큐 무역의 실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어 나카지마 가쿠쇼(中島樂章)는 1543년에 포르투갈 사무역 상인이 일본에 도달한 이후에야 류큐의 중계무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66)</sup>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복건 상인이 류큐를 방문하고 있었으며, 류큐는 조공무역 뿐만 아니라 복건의 밀무역과 광동의 사무역에도 참여하고 있었다고 한다.<sup>67)</sup> 또한 1511년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의해 점령된 이후에도 류큐는 순다, 파타니, 교지(交趾)와 계속 통교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는 1523년에 발발한 닝보의 난으로 일명 감함무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기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물산과 당물(唐物)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이 류큐와의 무역을 통해 이러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16세기 중엽 이후에도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후추를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68)</sup> 일본은 16세기 내내 후추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물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16세기 조선으로의 후추 유입 양상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역 아시아의 정세에 이어 16세기 조일 간 통교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종 5년(1510)에 삼포왜란이 발발하였고, 그로부터 2년 뒤 임신약조가 체결되었다.<sup>69)</sup> 이에 따라 대마도주의 세권선은 25척으로 반감되고 특송선이 폐지되는 등 쓰시마 측에 대한 통교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쓰시마 소씨는 일본국왕 또는 대내전(大内殿)·소이전(小二殿)과 같은 거추사(巨酋使) 명의의 위사를 적극적으로 파견하였다.<sup>70)</sup> 대내전 명의의 경우 16세기 중반까지 오우치(大内)씨가 건재했기 때문에 위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나,<sup>71)</sup>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시마가 관여한 위사였다는 전제 아래 후추 유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통교 구조를 고려하여 후추 유입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64)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왕자, 앞의 논문, 2020 등.

65) 村井章介, 앞의 논문, 2013, 275쪽.

66) 中島樂章, 앞의 책, 2025, 175-274쪽.

67) 中島는 이러한 현상이 조공무역의 불리한 관세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광동 둔문(屯門)에서 후추에 부과되는 관세는 2할이었으나, 조공무역의 경우 일률적으로 5할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中島樂章, 앞의 책, 2025, 206쪽).

68) 中島樂章, 「胡椒と佛郎機 - ポルトガル私貿易商人の東アジア進出 - 」, 『東洋史研究』74卷4号, 2016.

69) 中村栄孝, 「朝鮮中宗の約条更定」,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128-142쪽.

70) 삼포왜란 이후 조선을 방문한 일본국왕사가 모두 쓰시마 소씨에 의해 파견된 위사였다는 점과, 위일본국왕사(僞日本國王使)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부(牙符)를 소씨가 오우치(大内)씨·오토모(大友)씨·모리(毛利)씨 등 西國大名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1993, 154-159쪽; 橋本雄, 「二人の將軍と」外交權の分裂, 『中世日本の國際關係 東アジア交通圈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c, 198-201쪽.). 또한小二殿 명의의 경우에도 주 28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 해당 시기 쇼니(少弐)씨가 이미 몰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宗家に 秘藏되어 있었던 위조된 ‘德有隣’ 인(印), 쇼니(少弐)씨의 도서(圖書)·목인(木印), 그리고 오우치(大内)씨의 통신부를 위조한 물품은 이러한 명의의 통교가 실질적으로 쓰시마가 관여한 위사였음을 보여주는 물적 근거라 할 수 있다(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圖書」と木印」, 『朝鮮學報』156輯, 1965).

71) 伊藤幸司, 「偽大内殿使考」, 『日本歴史』731, 2009, 31쪽.

자 한다.

삼포왜란과 임신약조로 인해 쓰시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으로의 후추 유입 역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 제시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5> 『중종실록』권52, 중종 19년 12월 기미조  
전교하기를, “①호조가 왜인들이 가지고 온 후추를 포소에 두게 하고 올려보내지 말 것을 청하였다. ②이렇게 하면 장차 오랫동안 (후추를) 가지고 오지 않는 폐단이 없겠는가? 호조에 다시 물으라.”라고 하였다. 호조가 계(啓)하기를, “왜인이 가져온 후추를 모두 날라 오면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으니 포소에 두고 무역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사료 5>는 왜인이 가져오는 후추에 대한 조치를 두고 호조와 중종이 한 논의에 관한 내용을 보여준다. 먼저 호조의 조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조는 왜인들이 가지고 온 후추를 포소에 두게 하고 올려보내지 말 것을 중종에게 건의하였다(밑줄①). 이와 같은 조치는 세종대에 동이나 소목(蘇木)과 같은 물품을 대상으로 시행된 적이 있는데, 이는 해당 물품들의 중량이 커 이를 수송하는 지방 주민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었다.<sup>72)</sup> 따라서 후추에 대해서도 같은 유형의 조치가 요청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사료 전후 시기에 운송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양이 일본 측에 의해 반입되었음을 시사한다.<sup>73)</sup>

또한 호조의 건의에 대한 중종의 발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종은 “오랫동안 후추를 가지고 오지 않는 폐단이 없겠는가”라고 우려하였다(밑줄②). 중종은 후추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폐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정량의 후추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종의 발언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단순히 해당 조치로 인해 향후 왜인들이 후추를 가지고 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면 ‘오랫동안 후추를 가지고 오지 않는 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후추가 장기간 유입되지 않았던 상황을 이미 경험하였음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중종 5년(1510)에 삼포왜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일정 기간 일본과의 통교가 위축되면서 후추 유입 역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삼포왜란 이후 <사료 5>가 작성된 시점까지 약 15년의 간격이 존재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후추 유입이 계속 위축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후추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삼포왜란 직후 후추 경비 문제가 거론된 사실은 당시 후추 수급이 정책적 관심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sup>74)</sup>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삼포왜란 이후 한동안 후추 유입이 위축되었다가 점차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추를 포소에 두도록 하는 조치가 다시 후추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중종이 우려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72) 『세종실록』권98, 세종 24년 11월 병자조; 『세종실록』권118, 세종 27년 11월 을묘조 등.

73) 이러한 조치가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먼저 1년 전에 방문한 일본 국왕사와의 공무역에서 지불된 면포가 2,000동에 달하였다는 점은 이들이 상당량의 후추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村井章介, 앞의 책, 1993, 156-157쪽). 또한 같은 해 8월 오우치(大内)의 사신 인숙서당이 조선에 방문하였는데(『중종실록』권51, 중종 19년 8월 기미조), 이들이 닝보의 난으로 인해 명에서 무역하지 못했던 후추를 조선에 반입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74) 『중종실록』권12, 중종 5년 10월 을유조.

호조의 조치는 중종의 허가를 받아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의 공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는 경상도에서 지불하게 되었다.<sup>75)</sup>

해당 조치가 시행된 이듬해 일본국왕사(景林)가 후추 9,980근을 포함한 다량의 물품을 가지고 와 조정 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사료 6> 『중종실록』권55, 중종 20년 8월 병오조  
 …전략… 판서 허굉이 단자(單子)를 써서 계(啓)하기를, “일본 사신이 후추 9,980근·주홍 1,880근·침향 2,188근·용뇌 28근 등의 물품을 가지고 왔고 (그 중) 3분의 1을 공무역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자단향 150근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전부 무역하지 않았고 수우각 1,000본·대랑피(大狼皮) 10매는 전부 무역했습니다. ①(그들이) 가지고 온 상품을 합쳐 헤아려보니 옛 값으로 무역하면 (그 값은) 목면 1,750동【50필이 한 동이다】이고 새 값으로 무역하면 목면 1,185동입니다. 후추는 옛 값이 싸고 새 값은 비싸며 주홍 등의 물품은 옛 값이 비싸고 새 값이 싸기 때문에 왜인들이 다른 물품은 옛 값을 따를 것을 청하고 후추는 새 값을 따를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호조에서 이미 방계(防啓)했으므로 아래서 다시 계달(啓達)하기 실로 어려우니, 상께서 특별히 공무역을 허락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②남곤이 계(啓)하기를, “신이 또한 듣건데, 호조가 왜인들의 물건을 3분의 1만 공무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역하기로 하자, 왜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가지고 온 상품을 모두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야겠다’고 합니다. 만일 전부 들고 가게 한다면 국가의 체면이 매몰되니 상(上)께서 이에 대해 처리해주시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들은 평소의 왜인과 다르다. 무역할 수 있는 것은 무역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사료 6>은 일본국왕사가 가져온 물품을 어느 정도 무역할 것인지에 대해 조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보여준다. 왜인의 물품에 대한 값을 매길 때 옛 값과 새 값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밑줄①), 이를 통해 당시 조정에서 가격 개정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온 물품의 3분의 1만 공무역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림은 그렇게 할 경우 가져온 물품을 모두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겠다고 반발하였다(밑줄②). 위의 사료만으로는 최종적인 결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경림의 귀국 보고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돌아간 면포는 1,700동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sup>76)</sup>

위의 사료를 통해 당시 일본 측이 가져오는 후추의 양이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전량 공무역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호조가 일본에서 가져온 후추를 포소에 두고 한성으로 운반하지 않으려 하였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3년 전 일본국왕사와 후추 3,300근을 공무역하였음에도 중종 23년(1528) 8월에는 각사(各司)에 후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소이전(小二殿)의 사왜가 가지고 온 후추를 공무역하였다.<sup>77)</sup> 일본국왕사와 공무역한 후추 3,300근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100근에 해당하는데, 이는 성종대에 많다고 평가되었던 600근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각사에서 후추 부족이 언급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후추 소비량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일본국왕사 일악동당(一鶚東堂)도 내조하였고, 조정은 이들이 가지고 온 후추

75) 『중종실록』권54, 중종 20년 5월 갑자조; 『명종실록』권12, 명종 6년 10월 무인조.

76) 村井章介, 앞의 책, 1993, 161쪽.

77) 『중종실록』권62, 중종 23년 8월 임인조

를 새 값으로 공무역하였다.<sup>78)</sup> 이러한 사실은 중종 20년(1525)부터 진행되어 온 가격 개정이 실제 거래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중종 38년(1543)까지 후추의 유입에 관한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아래의 사료를 제시하면서 앞서 언급한 가격 개정과 일본 은(銀)의 영향을 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sup>79)</sup>

<사료 7> 『중종실록』권88, 중종 33년 8월 기미조  
 …전략… 은보와 언필이 의논드리기를, “…중략…”또 계(啓)하기를, “이적(夷狄)을 후대해야 한다는 상의 분부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근래 왜인이 가지고 오는 상물(商物)은 옛 수를 감하여 무역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듣건데, 이번에 온 왜인도 다만 은량(銀兩)을 가져왔을 뿐이고 다른 물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략…

위의 사료를 통해 가격 개정이 후추 유입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왜인이 은만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1527년 이와미 긴잔(石見銀山)이 발견되었고, 1533년에는 조선으로부터 회취법(灰吹法)이 도입되면서 은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조선에 은을 대량으로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조정 내부에서 점차 문제로 대두되었다.<sup>80)</sup> 위의 사료는 일본의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인이 은만 가지고 온 것은 가격 개정에 은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은 자체의 교환 가치가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후추 유입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아래의 사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사료 8> 『중종실록』권98, 중종 37년 윤5월 을묘조  
 호조가 계(啓)하기를, “…중략…또 후추의 무역은 본래 동래에서 상납해 왔는데, 이제 만일 인근 고을로 개정하면 또한 도리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전례가 있는 일은 가볍게 고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위의 사료는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유입된 후추를 상납하는 관아에 관한 내용을 보여준다. 담당 관아를 변경하려 한 구체적인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동래가 공무역한 후추를 상납해 왔던 사실은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해당 시기에도 후추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비록 이 시기 후추 유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정황을 통해 후추의 유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종 38년 이후에는 후추의 유입에 관련된 기사가 다시 확인되기 시작하고,<sup>81)</sup> 아래의 사료에 의하면 후추의 유입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 9> 『명종실록』권12, 명종 6년 10월 무인조

78) 『중종실록』권62, 중종 23년 12월 갑술조; 『중종실록』권84, 중종 32년 4월 임신조.

79)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 왕자, 앞의 논문, 2020.

80) 『중종실록』권84, 중종 32년 8월 임신조; 『중종실록』권97, 중종 36년 12월 정축조; 『중종실록』권98, 중종 37년 4월 을해조.

81) 『중종실록』권101, 중종 38년 11월 정사조; 『중종실록』권101, 중종 39년 4월 병술조 ; 『명종실록』권1, 명종 즉위년 8월 임신조; 『명종실록』권5, 명종 2년 3월 계축조.

예조가 계(啓)하기를, “물품을 통상(通商)하는 것은 양국이 있는 물건과 없는 물건을 서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①일본국왕의 사신 및 여러 거추(巨酋)의 사신은 단목과 후추를 많이 가지고 와서 면포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근년 우리 나라 목화의 재배 상태가 부실하여 새로 짠 면포가 희귀하고 옛 면포도 바닥이 나서 공과 사로 곤핍(困乏)한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쓸모없는 물건과 우리의 유용한 물건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폐해를 받고 있으니 어찌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함이 없겠습니까? ②현재 나라에 비축되어 있는 후추와 단목의 수는 백년의 비용을 지탱할 수 있고 어찌 교린의 의(義)에 구애되어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미년에 대내전이 내조하였을 때 그들이 가져온 단목과 후추의 값을 너무 많이 깎아서 일본국왕의 사신에게 준 가격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무역을 하지 않고 도로 싣고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서계(書契)의 논변(論辨)이 매우 나쁩니다. 만일 또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도리어 (그들의 물품을 자국으로) 다시 싸가지고 간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체통에 관계됩니다. 서계에 답할 때 ‘우리 나라의 목화가 매우 귀해졌고 ③너희들이 가져온 단목과 후추는 여러 해 동안 무역한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쓸모가 없다. 많은 수를 억지로 무역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바꾸는 본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라도 형편상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지만, 일체 무역을 거절한다면 옛 우호에 어긋나므로 약간만 무역할 것이니, 앞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무역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이는 옛 규정을 변경하는 데 관계되므로 대신들에게 하문(下問)하여 결정하소서.”라고 하였다. …후략…

위의 사료는 대내전(大內殿) 사신 범이서당(梵怡西堂) 등이 가지고 온 단목과 후추에 관한 논의를 보여준다.<sup>82)</sup> 이를 통해 일본국왕 사신 및 여러 거추사가 많은 양의 단목과 후추를 가지고 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밑줄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도 16세기 이후에는 일본국왕사나 소이전(小二殿)의 사자에 의한 유입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후추 유입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 시기에도 예조가 언급한 명의를 사자 내방은 빈번하였으며, 이들에 의한 후추 유입 역시 지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조의 언급에 따르면 여러 해 동안 후추를 무역해 온 결과 조정 내에 상당량이 비축되어 있었고, 그 양은 ‘백년의 비용’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였는데(밑줄②, ③), 이를 고려하면 종종 말기부터 후추의 유입이 다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정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예조의 계(啓)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듬해 방문한 일본국왕사와 후추를 공무역한 기사를 끝으로 후추 유입과 관련된 기사는 다시 확인되지 않는다.<sup>83)</sup>

그러나 명종 12년(1557)에 예조가 수직인(受職人)과 수도서인(受圖書人)의 후추 진상량을 30근으로 제한하겠다고 쓰시마에 통보한 사실은, 적어도 이 시기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후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84)</sup> 예조에 따르면 종래 수직인과 수도서인이 진상하던 후추는 10근을 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40~50근에 이르렀고, 심지어 100근에 달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대내전 사신(범이서당)의 사례와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그들이 가지고 온 후추의 일부를 무역하면서도, 후추를 대량으로 가져와 무역을

82) 『명종실록』권12, 명종 6년 10월 신미조.

83) 『명종실록』권14, 명종 8년 2월 갑술조 등

84) 『명종실록』권23, 명종 12년 12월 기유조.

강요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명종실록』에서 대내전이나 소이전 명의를 사신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반면, 수직인과 수도서인의 후추 진상이 문제로 대두된 점이 주목된다. 이들 또한 쓰시마가 관여한 위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쓰시마 측이 종래 여러 거추 명의로 수출하던 후추를 수직인과 수도서인 명의로 전환하여 진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후추 유입과 관련된 기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며, 후추의 유입이 조정 내에서 문제가 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김병하는 『조선송사국차서계각』(이후 『서계각』으로 약술)에 의거하여 선조 13~19년간(1580~1586) 단목 진상량이 12,370근이었던 것에 비해 후추 진상량이 115근에 불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85)</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선으로 유입되는 후추의 양이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이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후추 부족을 문제로 삼는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명종 12년(1557) 이후의 후추 유입량이 오히려 적정 수준이었고, 그 이전 시기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사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문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종종 말기부터 후추 유입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겠지만, 조선이 일본 측의 은을 통제하기 시작한 점을 그 중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종종 37년(1542)에 약조가 체결되면서 일본 측은 더 이상 은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었다.<sup>86)</sup>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후추의 유입은 그 이듬해부터 다시 확대되었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은 대신 후추나 단목을 무역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정책적 요인뿐 아니라 당시 해역 아시아의 정세와도 연관 지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카지마 가쿠쇼(中島樂章)에 의하면 당시의 해역 아시아의 정세는 다음과 같다.<sup>87)</sup> 중국 복건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명의 해금 정책을 위반하고 동남아시아 각국과 밀무역을 행하는 상인들이 등장하였으며, 1540년부터는 휘주해상(徽州海商)들까지 밀무역에 참가하였다. 포르투갈 사무역 상인들 역시 휘주 해상들의 중개를 통해 장주(漳州)나 쌍서(雙嶼) 등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화인해상(華人海商)과 포르투갈 상인이 중국 시장에 후추를 과잉으로 공급한 결과 1543년에 후추 가격이 폭락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가뭄까지 겹쳐 동남아시아 물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후추 가격이 폭락한 1543년에 포르투갈인이 화인 해상의 배에 동승하여 다네가시마(種子島)에 도달하였고, 이듬해에도 남큐슈에 내항하여 무역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이른바 ‘남만무역’이 시작되었으며, 나카지마 가쿠쇼(中島樂章)는 이에 대해 “포르투갈 사무역 상인은 일시적인 후추 버블의 붕괴로 인한 무역 이윤의 저하를 종래의 중국무역에 일본무역을 결합함으로써 보완하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88)</sup>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 11월에 인도 고아에 있던 안토니오 고메스 신부에게 보낸 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사료10> 1549년 11월 5일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서간(河野純徳 번역, 『성(聖) 프란시

85) 金柄夏, 앞의 논문, 1965, 487-488쪽.

86) 『명종실록』권14, 명종 8년 2월 임신조.

87) 中島樂章, 「胡椒と佛郎機 - ポルトガル私貿易商人の東アジア進出 - 」, 『東洋史研究』74卷4号, 2016 ; 中島樂章, 앞의 책, 2025, 175-274쪽.

88) 中島樂章, 앞의 논문, 2016, 784쪽.

스코 자비에르 전서간(全書簡)』3, 平凡社, 1994년, 155쪽<sup>89)</sup>

신부를 태우고 오는 배에는 후추를 너무 많이 싣지 말고, 많아도 80배럴까지만 적재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카이(堺) 항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양이 적을수록 일본에서 매우 잘 팔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판매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중국 시장에서 후추 가격이 폭락했던 상황을 의식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중국 시장에서 공급 과잉 상태에 있던 후추가 포르투갈 사무역 상인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일본 측이 이를 조선에 재수출함에 따라 명종 전반에 후추 유입이 다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은 규제를 감안하면, 일본은 은을 포르투갈인이나 화인(華人)과의 교역에 사용하고, 그들을 통해 획득한 동남아시아 물산을 조선에 재수출함으로써 면포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명종 12년 이후의 후추 유입 양상에 대해서는 관련 사료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후추 수입에 대한 조선의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후추 가격 폭락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중국 시장에서 후추 가격이 점차 안정화되었던 점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남만무역의 본격화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의 은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선호하는 상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 측이 일본에 수출한 주력 상품은 중국의 생사(生糸)와 견직물이었다.<sup>90)</sup> 이를 고려하면 일본으로 유입되는 상품 중 후추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IV. 맺음말

후추는 조선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된 박래품 중 하나였지만, 그 운반 주체와 유입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세종대 초기까지 후추는 일본뿐 아니라 명과 류큐 등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나, 이후 유입 경로는 점차 일본으로 고착되었다. 또한 그 유입량 역시 성종대에 들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후추 유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후추 생산지의 확대라는 일차적인 요인과 더불어 당시 해역 아시아의 국제정세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명의 대외관계 축소로 인해 일본에서는 류큐 및 조선과의 교역이 활발해졌고, 류큐의 동남아시아 무역 또한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성종대 후추 유입 증가 역시 이러한 해역 아시아 교역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이 명에도 후추를 수출하고 있었으나 조공 횡수가 십 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후추의 주요 수출 대상이 조선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해역 아시아 세계의 후추 유통에 일정한 분화(分化)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16세기 초 삼포왜란 이후 조선이 대일 통교를 강화하면서 후추 유입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중종 19년 무렵에는 상당량의 유입이 확인된다. 이를 계기로 조

89) 일본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필자가 한국어로 재번역하였다.

90) 岡 美穂子, 「南蛮貿易の構造と輸出入品 - 商品リストの分析から」, 『商人と宣教師 南蛮貿易の世界』, 2010.

정에서는 일본 측이 가져오는 후추를 포소에 두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가격 개정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후추 유입은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는 가격 개정 조치와 더불어 같은 시기 일본에서 은 생산이 증가한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정이 일본 은의 유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중종 말기부터 명종 전기까지 후추 유입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후추의 유입 문제가 조정 내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이 시기는 포르투갈 상인의 일본 도달로 남만무역이 시작된 시기이자 중국 시장에서 후추 가격이 폭락한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진 후추가 일본으로 유입되고, 일본이 이를 조선에 재수출하였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후추 유입에 관한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일본 측에서도 후추를 조선에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이 『서계각』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명종 후기부터 후추의 유입량은 점차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후추 유입에 대한 조선의 규제 강화나 남만 무역의 구조 변화 등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사료가 제한적이어서 향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다만 조선 내부에서 후추 부족이 문제로 제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후추의 유입은 적정량이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사료적 한계로 인해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검토를 통해 조선 전기의 후추 유입이 해역 아시아의 정세와 연동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는 자신의 저서 『임원경제지』에서 “후추는 남번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중국 전역에서도 사용되는데, 왜 조선은 일본을 통해 이를 구입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에 형성된 후추 유통 구조가 조선 후기로 이어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의 후추 유입을 사례로 하여 조선이 해역 아시아의 교역 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동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다소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으나, 15~16세기의 해역 아시아 세계에서 조선이 명의 대체 시장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향후에는 다른 교역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이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동문선』, 『징비록』, 『임원경제지』, 『興隆寺文書』, 『명실록』(『명태조실록』)

### 2. 논문

#### - 한국어

김동우, 「조선 전기 교린체제와 남방무역」,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이승민, 「조선시대 후추(胡椒)의 도입과 소비」, 『역사와 교육』제41집, 2025.

#### - 일본어

荒木和憲, 「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有光友学, 「中世後期における貿易商人の動向」, 静岡大学人文学部『人文論集』21, 1971.

- 伊藤幸司, 「偽大内殿使考」, 『日本歴史』731, 2009.
- 伊藤幸司, 「日朝関係における偽使の時代 - 博多商人の視覚から -」, 『中世の博多とアジア』, 勉誠出版, 2021.
- 岡 美穂子, 「南蛮貿易の構造と輸出入品 - 商品リストの分析から」, 『商人と宣教師 南蛮貿易の世界』, 2010.
- 長節子, 「十五世紀後半の日朝貿易の形態」, 中村質編, 『鎖国と国際関係』, 吉川弘文館, 1997.
- 川添昭二, 「九州探題渋川満頼・義俊と日朝交渉」,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 金柄夏, 「李朝前期における対日胡椒取引」, 宮本又次 編, 『商品流通の史的展開』, ミネルヴァ書房, 1965.
- 黒田省三, 「中世朝鮮貿易における輸出物資に就て」, 児玉幸多 編, 『日本社会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55.
- 佐伯弘次, 「十五世紀後半以降の博多貿易商人の動向」, 『九州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人文学東アジアと日本 - 交流と変容 -』2, 2005.
- 関周一, 「香料の道と日本・朝鮮」,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Ⅲ』, 東京大学出版会, 1992.
- 関周一, 「彼我を行き交うモノ」, 『日明関係史研究入門 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 勉誠出版, 2015.
- 田代和生・米谷均, 「宗家旧蔵「図書」と木印」, 『朝鮮学報』156輯, 1965.
- 田中健夫, 「日鮮貿易における博多商人の活動」,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59.
- 中村栄孝, 「朝鮮中宗の約条更定」, 『日鮮関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 中島楽章, 「永楽年間の日明朝貢貿易」, 『史淵』140, 2003.
- 中島楽章, 「胡椒と佛郎機 - ポルトガル私貿易商人の東アジア進出 -」, 『東洋史研究』74巻4号, 2016.
- 橋本雄, 「遣明船の派遣契機」, 『日本史研究』479, 2002.
- 橋本雄, 「朝鮮への「琉球国王使」と書契-割印制」, 『中世日本の国際関係 東アジア通交圏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a.
- 橋本雄, 「二人の将軍と」外交権の分裂」, 『中世日本の国際関係 東アジア通交圏と偽使問題』, 吉川弘文館, 2005c.
- 橋本雄, 「再論、十年一貢制」, 『日本史研究』568, 2009.
- 橋本雄, 「東アジア世界の変動と日本」, 大津透ほか 編, 『岩波講座日本歴史 8 中世 3』, 岩波書店, 2014.
- 平木實, 「朝鮮時代前期における胡椒交易をめぐって」, 『朝鮮学報』153輯, 1994.
- 村井章介, 「《倭人海商》の国際的位置-朝鮮に大蔵経を急逝した偽使を例として」,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1988.
- 村井章介, 「十五世紀朝鮮・南蛮の海域交流 - 成宗の胡椒種求請一件から」, 『中近世の朝鮮半島と海域交流』, 汲古書院, 2013.
- 山内晋次, 「海を渡る硫黄 -14~16世紀前半の東アジア海域」, 『東アジア海域から眺望する世界史 - ネットワークと海域』, 明石書店, 2018.
- 和田久徳, 「十四五世紀における東南アジア船の東アジア来航と琉球国」, 『球陽論叢』, ひるぎ社, 1986.

### 3. 단행본

リード・アンソニー, 『大航海時代の東南アジア』Ⅱ, 平野秀秋・田中優子 번역, 法政大学出版局, 2002.

河野純徳 번역 『聖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全書簡』3(全4卷), 平凡社, 1994년.

岡本弘道, 『琉球王国海上交渉史研究』, (有)榕樹書林, 2010

小葉田淳, 『中世南島通交貿易史の研究』, 刀江書院, 1968

中島楽章, 『琉球王国の南海貿易 「万国津梁」の200年』, 吉川弘文館, 2025

村井章介, 『中世倭人伝』, 岩波書店, 1993.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 【토론문】

##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과 해역 아시아」에 대한 토론문

윤승희(동국대학교)

발표자는 본 논문을 통해 조선 전기 후추의 유입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해역 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가 조선 내부의 수요나 제도적 대응에 주로 주목했던 것과 달리, 후추 유입을 동아시아 해역 교역 질서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는 점은 이 논문의 중요한 장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관련 연구 성과와 사료를 엿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었다.

사실 토론자는 조선 전기 한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 의례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 물품이라는 구체적인 교역 대상이나 실제 무역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토론문은 논문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보다 발표문을 읽어 나가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공부해 보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음을 미리 밝힌다. 토론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토론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1. 후추 유입과 수요의 균형

수입품은 외부로부터의 유입에서 시작되고, 이후 해당 사회의 수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후추의 수요보다 유입 양상에 주목한 점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다만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조선 조정은 후추가 지나치게 유입된다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유입이 중단될 가능성을 ‘폐단’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는 수준의 후추 유입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물론 구체적 수치에 대한 의문은 아니다.)

단순한 예로, 중종 23년에는 “각사에 후추가 부족하다”고 하였다가 “중종 말기부터 후추의 유입이 다시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셨지만, 바로 1~2년 뒤인 인종 1년 기사에서는 중전이 구역 증세로 후추를 씹어 먹고자 했으나 大內에 저축된 것이 없어 藥房에서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91)</sup> 물론 이는 중종의 검소함을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표현되는 후추의 비축량을 생각하면 다소 의아하기도 하다. 게다가 또 불과 몇 년 뒤인 명종대에는 쓸모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 2. 일본의 무리한 교역 요구와 조선의 태도

발표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물품을 들고 와 교역을 요구한 건 후추뿐이 아니었다. 일본은 성종대 무렵부터 銅이나 鐵과 같이 운송이 매우 어려운 물품들 까지도 대량으로 가져와 과도한 교역을 요구하였다.<sup>92)</sup> 이때 조선에서는 혹여 일본에서 원하는

91) 『인종실록』 권2, 인종 1년 7월 5일 을축, “史臣曰, 時, 中殿有嘔證, 欲啖胡椒, 內無所儲, 下令藥房進之. 嗟呼! 以一國之主, 無胡椒一啖之儲, 其不爲私藏, 因是可見. 大行王之德, 其至矣乎!”

물품이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주며 무리한 요구에도 응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자는 15세기 대마도를 대상으로 조선이 재정적 부담이 될 정도의 물품을 回賜나 特賜의 방식으로 하사했던 양상에 대해 생각해 본 바 있다.<sup>93)</sup> 그 배경에는 물품을 내어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에 대한 현실적 불안, 그리고 황제가 변경의 안정을 위해 발휘하였던 ‘후하게 물품을 주어 보낸다(厚往)’라는 정치적 행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발표문을 보면 이러한 양상이 대마도뿐 아니라 다양한 일본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16세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여전히 조선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일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국가의 체면”과 같은 표현으로 응하였던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일본의 무리한 후추 교역 요구에 대해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 3. 면포 교역과 후추 유입의 변화

기본적으로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물품에 대해 곡식이나 布 종류로 대가를 지급하였고, 특히 면화 재배가 정착한 이후 조선의 면포는 대일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교환 수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일본 측의 면포 요구는 조선의 내수용 물량을 위협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 결과 15세기 말부터 목면의 대일 수출이 점차 통제되면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唐木綿을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이해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이해가 맞다면, 16세기 후반 이후 후추 유입이 줄어드는 양상을 면포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연결해 볼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즉,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교역에서 가장 유용했던 면포 교환이 이전만큼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에 따라 후추를 포함한 동남아 교역품을 조선으로 가져올 유인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 4. 교섭 주체의 차이

논문에서는 후추를 조선에 유입시키는 주체를 크게 일본과 류큐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쓰시마나 규슈 세력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다만 서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세력들이 대체로 ‘일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 설명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국왕사와 그 외의 사신은 분명히 엄격하게 구분되는 존재였고, 의례적 측면에서 대우의 방식이나 위상 역시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물품의 교역 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여러 주체가 대장경을 요청했던 사례를 보면, 조선은 막부의 요청에 가장 높은 비율로 賜給하였고, 다음이 쓰시마였다.<sup>94)</sup> 물론 대장경은 조선이 사급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조정의 통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사례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후추와 같이 일본을 통해 유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막부·쓰시마·규슈 등 서로 다른 교섭 주체에 대해 조선이 보였던 태도나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92) 『성종실록』 권262, 성종 23년 2월 9일 경술; 『성종실록』 권263, 성종 23년 3월 23일 계사; 『성종실록』 권265, 성종 23년 5월 14일; 『연산군일기』 권38, 연산 6년 8월 12일 갑오.

93) 윤승희, 「15세기 대마도 물품 수여에 담긴 조선의 의도」, 『한국학논총』 63, 2025.

94) 한문종,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講과 한일간의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2002.

## 제2발표

# 「柳川一件」後、日朝外交における外交僧体制 の改編

—以酌庵輪番制と西山寺・清書役僧体制をめぐって—

발표 : 顧明源(규슈대학교)

토론 : 이형주(국민대학교)

## 【제 2 토론】

「柳川一件」後、日朝外交における外交僧体制の改編  
—以酌庵輪番制と西山寺・清書役僧体制をめぐって—

顧明源(규슈대학교)

## はじめに

前近代の日朝関係において、多くの日本の禅僧は、①外交文書起草者、または②使者として活躍していた。これらの禅僧は、外交僧とも呼ばれ、日朝関係史における重要な研究対象となっている。ただし、大陸の明・清や半島の朝鮮王朝が中央集権のもとで礼部や礼曹が外交を管掌していたのに対して、日本は重層的な構造を特徴としていた。例えば、江戸期には幕府が外交権を掌握していた一方で、対馬藩が外交実務を担当していた。外交僧もおおよそ、中央政権側と地域権力側という二系統に分けられる。

ここでいう「中央政権」とは、室町幕府・豊臣政権・江戸幕府を指す。村井章介氏は、室町幕府の「外交機関としての五山」を提起し、臨済宗夢窓派を中心とする京都五山の禅僧が中央権力たる室町幕府の外交官僚に起用されたとしている[村井 1988]。伊藤幸司氏は、村井氏の「夢窓派中心史観」を批判し、室町幕府の外交実務を担当する五山は、夢窓派のほか、聖一派・大応派も含む多様な特徴を有する門派の集合体であったと提唱している[伊藤 2002a]。豊臣政権期には、秀吉が相国寺の西笑承兌を起用した。壬辰戦争の際に、秀吉は西笑承兌・東福寺僧の惟杏永哲・南禅寺の玄圃霊三を動員し、その名護屋下向を供にさせた[北島 1990]。秀吉の死後、西笑承兌は徳川家康に接近し、のち江戸幕府の外交僧に登用された。西笑承兌の死後、徳川家康は足利学校の閑室元佶・南禅寺の以心崇伝に登用した。とりわけ、以心崇伝は、家康・秀忠・家光の三代の将軍にわたり、幕府の外交・政治に携わり、幕府草創期における「黒衣宰相」として知られている[辻 1928~29][圭室編 2004]。なお、江戸幕府の外交僧は、使者として朝鮮渡海したことはなく、主に外交文書の起草・解読や外交使節の接待などに携わっていた。

一方で、室町期には、室町殿のみならず、九州から畿内にかけての広範な地域の様々な勢力(守護・国人・商人など)が朝鮮と通交関係を結んでいた(通交者の広域性・重層性)が、やがて対馬宗氏による通交権の「準独占」状況になってきた[荒木 2007]。15世紀後半から16世紀初頭にかけて、通交権を対馬に貸借する動きが広がっていたとされる。荒木和憲氏は、通交貿易の必須要件として、①礼制を踏まえた外交文書を漢文で作成する、②朝鮮側の需要を見極めて輸出品を調達する、③玄界灘・対馬海峡を安全に渡海する、④各種の審査をクリアする、⑤異文化・異言語交渉を行う、⑥拝礼を厭わず外交儀礼をこなす、⑦貿易の制度・手続を理解して政府・商人との取引を行う、という7つの要件を想定している。「多種多様な知識・技能・経験を体得・蓄積している者の介在が不可欠なのである。それゆえ、対馬以外の地域の通行者(深居倭)としては、通交権を宗氏側に貸与し、毎年の運用益を労せずして得るほうが効率的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る[荒木 2025]。このうち①⑤を担当し得たのが、漢文に優れた禅僧であった。宗氏はこのような外交人材を確保するため、15世紀中頃、日本国王使副使を務めて朝鮮に渡海した京都天龍寺僧の仰之梵高を島内に招聘した。さらに、15世紀後期、宗氏は大内氏との軍事的な和睦を結び、大内氏支配下の博多の禅僧、とりわけ博多聖福寺を拠

点とする幻住派僧を外交僧として起用していった[伊藤 2022b]。近世対馬藩の重要な外交機構である以酌庵の開山(初代住持)景轍玄蘇は、聖福寺出身の幻住派僧であり、天正 8 年(1580)、宗氏の招きに応じて対馬に赴き、のち使僧として、壬辰戦争前後の日朝交渉に携わった。景轍玄蘇の死後、その弟子規伯玄方が以酌庵を継承し、引き続き対馬の外交僧として活躍していた。

先行研究では、寛永 10 年(1633)前後を近世外交僧の画期としている。寛永 10 年前後の出来事を以下のように要約している：

- ①寛永 8 年(1631)、対馬藩主宗義成が重臣柳川調興を幕府に訴える。調興も義成を幕府に訴える。対馬藩の御家騒動＝「柳川一件」が勃発した。
- ②寛永 9 年 1 月、大御所徳川秀忠が死去。3 代将軍家光の親政が始まる。
- ③寛永 10 年 1 月、以心崇伝が死去。同年 6 月、その弟子最岳元良が金地院主の相続を幕府に認められた。
- ④寛永 12 年 3 月、将軍親裁により、「柳川一件」が落ち着いた。柳川調興が敗訴し、津軽に遠流された。規伯玄方は国書改竄の疑いで、盛岡に遠流された。
- ⑤寛永 12 年 7～8 月、規伯玄方の代わりに、京都五山の禅僧が交替で対馬以酌庵に赴き、朝鮮往復外交文書の起草などを担当する、いわゆる「以酌庵輪番制」が成立した。

中村質氏は、「寛永十年一月二十日崇伝が遷化すると、寺社宗教統制は幕府(寺社奉行)が直接掌握し、外交は長崎奉行、外交文書や学芸は林家、のごとく分掌して、中世以来の五山禅僧の外交との関わりは、かなり名目的な対馬以酌庵輪番制を除いてほぼ消滅した」[中村 1989: 233]と指摘している。つまり、幕府中枢と対馬藩の外交僧との関係が、以心崇伝の死去や規伯玄方の遠流により、途絶えたとされている。そのため、以心崇伝と規伯玄方の弟子については、ほとんど検討されていなかった。寛永 10 年後の外交僧研究では、一方的に以酌庵輪番制に集中している。

従来認識では、「柳川一件」を日朝関係の中世から近世への転換点としている。その後、幕府主導体制へ転換したとされる。対馬藩が通交の実務を担当するのに対し、幕府が京都五山の禅僧を交替で対馬以酌庵に派遣し、外交文書を監修させる(＝以酌庵輪番制)という形で、対馬藩と朝鮮との通交の過程に直接介入する体制が形成されたとされる。「監察機関としての以酌庵輪番制」ともされている[中村 1969][三宅 1986][荒野 1998]。

ただし、近年、池内敏氏は、「柳川一件」や以酌庵輪番制の再検討を行い、従来認識を批判している。氏は、以酌庵輪番制の成立過程を整理し、幕府が「柳川一件」を利用して、外交体制の再編を図ることを否定した。また、以酌庵輪番僧の役割を考察し、以酌庵輪番制を介して、「幕府が対馬藩と朝鮮との通交の過程に直接介入する」という理解についても否定した[池内 2006・2017]。

また、対馬藩側の外交僧の研究も進んでいる。早くも、長正統氏・田代和生氏・金義煥氏は、近世日朝通交・貿易体制を検討した際に、釜山倭館にある東向寺(臨濟宗)の僧が、日朝外交の最前線において、外交文書の清書・記録・審査業務に携わっていたことに触れた[長 1968][田代 1981][金 1983]。池内敏氏・藤本健太郎氏は、東向寺僧とその出身母体である清書役僧の研究をさらに深化させた[池内 2017-3 (2012)][藤本 2015・2016・2021]。池内氏は、以酌庵輪番僧・対馬藩の清書役僧・東向寺僧という三者が「相互に有機的な連関を保ちつつ機能を果たした」と指摘している[池内 2017-3]。これによって、対馬藩独自の外交僧体制が見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

筆者は、近年の対馬藩の外交僧に関する研究の進展を踏まえて、「柳川一件」後、対馬藩が引き続き規伯の弟子を起用し、以酌庵輪番制と並行する藩独自の外交僧体制を創出した経緯を明らかにした[顧 2025a]。また、東京大学史料編纂所蔵「金地院記録」に含まれる「金地日録」「僧録官記」を利

用して、以心崇伝の後を継いだ金地院2世最岳元良の活動を検討し、彼が外交文書の起草・清書、朝鮮信使の接待などに携わって、幕府の対朝鮮外交に参入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以上の研究を経て、寛永10年(1633)後、日本の朝鮮外交における外交僧の全体像を再構築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本稿では、近年の研究進展を踏まえ、新知見を加え、寛永12年(1635)、「柳川一件」落着後、対馬藩における新しい二つの外交僧体制の成立と変容を紹介する。

## 一、幕府側の外交僧体制：以酌庵輪番制

### (一) 以酌庵輪番制の成立

寛永12年(1635)3月、將軍家光の親裁により、対馬藩の御家騒動「柳川一件」が落着した。柳川調興が敗訴し、津軽に遠流された。対馬藩の外交僧規伯玄方もこの一件に巻き込まれて、盛岡に遠流された。これによって、一時的に、対馬藩が外交文書の起草者を失った。しかし、実際には、対馬藩に外交文書を起草できる人材がいなか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が、流罪に処された規伯玄方の弟子ということもあり、義成がその起用を遠慮した<sup>95</sup>。

4月11日、規伯玄方の後継者について、対馬藩主宗義成が幕府老中酒井忠勝に尋ねたところ、酒井忠勝は、「〔対馬藩が〕五山のなかで博識の長老を招き、扶持を与え、『書翰為相調候役』〔を招かれた五山長老に〕依頼してよい」と述べている<sup>96</sup>。宗義成は独自で五山長老を招聘するのが不可能であると述べて、幕府に京都五山に命令を下すよう要請したが、幕府はそれを避けた。その代わりに、宗義成はまず、自ら五山人事を司る金地僧録最岳元良と相談しようとする事について、幕府の了承を得た。

その後の義成と幕府・最岳元良とのやり取りについては、池内敏氏が「寛永丙子信使記録」(東京国立博物館所蔵)という対馬藩による編纂史料を利用して、整理した[池内 2006・2017]。一方で、泉澄一氏は相国寺鹿苑院主の日記「鹿苑日録」を利用して、以酌庵輪番制の成立経緯にも触れた[泉 2002]。「鹿苑日録」には、幕府・最岳元良と京都五山とのやり取りが確認できるが、これらの記事は、「寛永丙子信使記録」には見えない。ここでは、「鹿苑日録」「金地院由緒書」<sup>97</sup>という五山側の史料を利用して、対馬藩にとっての五山僧招聘の「裏側」の事情を紹介する。

#### 史料一 「金地院由緒書」寛永12年項

一対州ニ而規伯方長老無調法之儀有之、配流被仰付候、依之、五月十三日・同十五日・同十七

<sup>95</sup> 【寛信】寛永 12. 4. 14「吹嘘之儀、方長老会下之僧以為相調候段ハ遠慮ニ存候」、同 12. 4. 15「同日、於殿中、僧録金地院玄良江、一件之儀ニ付、方長老不慮ニ遠流ニ被及候故、朝鮮へ遣候書契相認候人無之候、縦イ有之候而も、方長老会下之僧ニ候得者、信使又者 御用筋之儀付候書契、為相認候段遠慮ニ存事ニ候」。

<sup>96</sup> 【寛信】寛永 12. 4. 11「此儀、五山之中博識之長老被相招、御扶助被成候而、当役之儀、御頼可然存候旨被仰候」。この史料について、池内敏氏は「この件は、京都五山のなかで博識の長老を招聘し、その援助を得ないことには、そうした役目は務まらないだろう」と訳した[池内 2017: 9]。「扶助」について、【寛信】寛永 12. 8. 12「同十二日、古川右馬助 御城江被遣、書役之僧扶助之儀、何分ニ仕り可然候哉と御尋被仰上候得ハ、御老中様方御返答馳走之儀大概地行百石斗ニ而可然と被仰ル」とあるため、本稿では、「扶助」を扶持・知行という意味を取る。

<sup>97</sup> 「金地院由緒書」は『史料纂集 京都金地院公文帳』に収録。当該史料は、明和4年(1767)、幕命により金地院から寺社奉行久世広明へ提出された書上「御由緒之儀申上覚」の写で、内容は金地院12世蒼溟元方までの金地院略史である。中興開山以心崇伝の記事が全体の約三分の一を占め、「本光國師日記」「異国日記」など金地院の記録類をもとに年代順に摘記したものである。2世最岳元良から明和4年(1767)の現住蒼溟元方までの記事は、「金地日録」や「僧録官記」などからの摘記である(上田純一「解説」による)。

日、御城ニ而大炊殿・讃岐殿・伊豆殿御尋有之、対州江被遣候五山碩学之名前、七月十四日・同廿一日、書付、御城ニ而大炊殿・讃岐殿・伊豆殿江入御覽候、七月廿九日、御城ニ而大炊殿・讃岐殿・周防殿より五山碩学江御状被遣、委細金地院より可申達旨被仰遣候、五山碩学江金地院より書状遣之、慈濟院・南昌院・宝勝院以輪番忝人宛対馬江罷下り、朝鮮往来之書翰・筆談等可相勤旨被仰出候旨申遣候、

一五山碩学より八月七日之返書、同十六日、到来、碩学、対州江罷越候儀、御請申越候、東福寺塔頭宝勝院玉峰璘西堂、寛永十二年乙亥十一月、対州江罷越、朝鮮国往来之書簡御用之儀、相勤申候、五山碩学対州江渡海、以酌庵勤番仕候、最初ニ而御座候、

史料二 「鹿苑日録」寛永12年8月5日条

五日、雨降、晚炊時分自天龍真乘院文箱来、切封見、則江戸御年寄衆折紙并金地院折紙、其趣者、碩学之内天龍寺慈濟院・東福南昌院・同寺宝勝軒三人、一人迄以酌番対馬江下向、朝鮮書翰筆談等札調可申之旨也、来七日於常光院、碩学衆相集可有評議云々、年寄衆折紙五山碩学衆中有之、金地院折紙亦同、

(中略)

七日、祖師忌、先師忌、斎如恒、斎了、急赴常光院、碩学衆相集、天龍寺慈濟院仙長老・東福寺南昌院召長老・宝勝院璘西堂有可下于対馬可調朝鮮往来書束之官命、種々有評議、不決定、終鬪拈也、宝勝院璘西堂当番也、今日展待丁寧也、被点鳳団、

史料一によると、「対州江被遣候五山碩学之名前」について、5月13日、同15日、同17日の3回にわたり、幕府老中土井利勝・酒井忠勝・松平信綱が金地僧録最岳元良に尋ねた。そして、7月14日、同21日、江戸城にて、最岳元良が「対州江被遣候五山碩学之名前」を前掲の3人の老中に提出した。最終的に、天龍寺の洞叔寿仙・東福寺の棠蔭玄召・同玉峰光璘という3人が指名された。7月29日、老中土井利勝・酒井忠勝と京都所司代板倉重宗が、五山碩学に連署状を遣わし、同日、最岳元良も五山碩学に書状を遣わし、この結果を伝えた。

史料二によると、8月5日、前掲の文書が京都五山に届いた。8月7日、五山碩学衆が建仁寺常光院に集合し、洞叔寿仙ら3人の対馬下向・朝鮮書簡役について評議した。最終的に、鬪で玉峰光璘（「宝勝院」）の当番を決めた。

そして、五山碩学の評議の結果が8月16日に最岳元良に届いた（史料一）。同日、最岳元良がこの結果を幕府に知らせたうえで、幕府が林羅山・林永喜を遣わして、義成にこの結果を伝えた（【寛信】寛永12.8.16）。

結果として、幕府の介入によって、いわゆる以酌庵輪番制が導入された。

## （二）以酌庵輪番僧の選任

これまでの研究では、五山碩学から以酌庵輪番僧を選任するとされている[桜井1986(1966)][田中1988][秋宗1991][西村2002(1997)]。近年、池内敏氏は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金地院記録」に含まれる「五山碩学并朝鮮修文職次目」（以下【次目】）などの史料を利用して、以酌庵輪番制を再検討したが、碩学僧から以酌庵輪番僧を選任するという認識をほぼそのまま受け入れた[池内2017]。

しかし、池内氏が利用した【次目】は、宝暦12年(1762)、天龍寺・相国寺・建仁寺・東福寺の四カ寺が金地院に提出した碩学料を受けた僧侶の名簿で、公帖拝領・碩学料拝領・以酌庵勤番の年次が記されているが、17世紀の状況について、「以上年代相隔ニ付、委細之事実分明難相考」ところがあ

る。実際には、同じく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蔵「金地院記録」に含まれる「僧録官記」は、金地僧録の公務記録として、公帖拝領・碩学料拝領・以酌庵勤番関係の往来文書を収録している（表 1 参照）<sup>98</sup>。そのなかで、①寛永 19 年（1641）、②万治 3 年（1660）、③寛文 2 年（1662）、④天和 2 年（1682）など、数回の以酌庵輪番僧選任が確認される。詳しい検討は別稿に譲りたい。本節では、①寛永 19 年と③寛文 2 年の事例を紹介したうえで、結論を述べる。

### 1. 寛永 19 年度の以酌庵輪番僧選任

池内氏は、以酌庵輪番制の成立当初は前掲の洞叔寿仙・棠蔭玄召・玉峰光璘の「三人の輪番制」であったと指摘し、「一六四〇～五〇年代に鈞天永洪と茂源紹柏がそれぞれ三任を経験するのは、この時期の輪番制が玉峰光璘・洞叔寿仙・棠蔭玄召にこの二人を加えた「五人の輪番制」として動いていた」と推測している[池内 2017: 66]。実際には、寛永 19～20 年に、新「三人の輪番制」が成立した[顧 2025c]。本項では、[顧 2025c]に依拠して、選任の経緯を紹介する。

まず、寛永 18 年（1641）4 月、洞叔寿仙が以酌庵に着任してから、金地僧録最岳元良に書状を送り、「老裏対馬へ下候儀、迷惑之由」を述べている<sup>99</sup>。この時点で、洞叔は 70 歳近くの高齢であった。輪番僧の高齢化は、交替の契機となったものと推測される。寛永 18 年 12 月、將軍家光が寺社奉行松平勝隆を介して、最岳元良に「対馬方朝鮮へ之書簡相調申僧」を尋ねた時、最岳元良が建仁寺十如院の鈞天永洪を薦めた。

そして、翌年寛永 19 年になると、以酌庵輪番僧の交替について本格的な協議に入る。「僧録官記」には、同年 5 月から 8 月にかけて、最岳が幕命に応じて老中や寺社奉行に提出した 3 通の書付が確認される。3 通の書付に記された五山僧の履歴を表 2 に示した。

幕府の構想は最初の 3 人の輪番僧に加え、さらに 3 人を増やそうとした。しかし、最初の 3 人のうち、洞叔寿仙・玉峰光璘が輪番の継続を辞退し、これは幕府からも承認された。寛永 19 年 8 月、幕府は、周南円旦・鈞天永洪・茂源紹柏を指名した。この 3 人に、最初の 3 人のうちの棠蔭玄召を加えて、一旦「四人の輪番制」が成立した。

寛永 20 年 3 月、鈞天永洪が対馬に到着し、「四人の輪番制」が始まった。ちょうどこの年、朝鮮信使が来日予定があった。輪番を終えた棠蔭玄召が、当番の鈞天永洪とともに朝鮮信使を伴って参府しようとしたが、体調を崩し、4 月 29 日に死去した。結局、棠蔭玄召と同じく東福寺出身の周南円旦が加番として、当番の鈞天永洪とともに朝鮮信使を伴って参府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ように、寛永 20 年 4 月の棠蔭玄召の死去により、始まったばかりの「四人の輪番制」は「三人の輪番制」に戻った。

寛永 20 年 3 月から慶安 3 年（1650）10 月まで、鈞天一周南一茂源という順番でほぼ一年ずつ交替し、三人はそれぞれ再任を経験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表 3 参照）。ただし、周南円旦は正保 4 年（1644）5 月に再任で以酌庵に着任したが、同年 9 月に在番のまま病死した。同年 11 月、順番で茂源が赴任し、慶安 3 年（1650）10 月まで在番している。その次に鈞天が三度目で以酌庵に赴任し、承応 2 年（1653）2 月に在番のまま病死した。

<sup>98</sup> 現在、寛永～宝永年間の「僧録官記」は、南禅寺金地院と東京大学史料編纂所に分蔵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桜井 1986 (1966)]のほか、これまでの研究は、ほとんど「僧録官記」を利用していない。桜井景雄氏は南禅寺派法務部長・臨濟宗南禅寺派宗務総長を歴任し、『南禅寺史』『南禅寺文書』などの編纂を契機として、南禅寺金地院所蔵「僧録官記」を読んだと考えられる。ただし、南禅寺金地院所蔵「僧録官記」が 4 冊しか残されていないが、以酌庵輪番僧の選任の全体像を見出しがたい。

<sup>99</sup> 「金地日録」寛永 18 年 5 月 18 日条。

恐らく、周南円旦の死去により、寛永 19 年度の候補者であった賢溪玄倫・九岩中達が新たに補任されたものと推測される（表 2・3 参照）。

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寛永 19 年度の候補者のなかには、碩学料を拝領していない五山僧もいることである（表 2 参照）。つまり、寛永 19 年度の選任の対象は、碩学に限らず、京都五山にいる「西堂成」（諸山・十刹公帖を拝領した禅僧）・「長老成」（五山公帖を拝領した禅僧）を含む広範な層に及んでいたと考えられる。

## 2. 寛文 2 年度の以酌庵輪番僧選任

寛文 2 年（1662）年度の以酌庵輪番僧選任に関する史料は、相対的に恵まれている。「僧録官記」だけではなく、相国寺の鳳林承章の日記『隔莫記』にも関連記事が確認される。

今度の以酌庵輪番僧選任の背景については、寛文 2 年 6 月 17 日に、当時の金地僧録竺隱崇五が寺社奉行に提出した覚から伺える（史料三）。

史料三 「僧録官記」寛文 2 年 6 月 17 日条

覚

一对州書役輪番、只今迄相勤候衆、

相国寺吉長老・建仁寺栢長老・建仁寺憲長老・東福寺育長老・  
東福寺瞻西堂

右五人、此内栢長老儀、老年、其上病者ニ御座候、育長老モ、去年以来病氣ニ御座候、  
天龍寺亨西堂・同虔西堂・相国寺全西堂

右三人御加被成被下候様ニト、自五山願被申候、以上、  
金地院

史料三によると、当時、相国寺の覚雲顕吉、建仁寺の茂源紹栢・顕令通憲、東福寺の天沢円育・太華令瞻という 5 人程度の輪番僧がいたが、そのうち、茂源紹栢が老病、天沢円育が病気となったため、増補が行われた。

増補の経緯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まとめられる。

①1 月 26 日：輪番僧の候補者について、五山諸老が相国寺にて評議する。

天龍寺の泉叔梵亨・虎林中虔、相国寺の春葩宗全が選ばれる。

②2 月 2 日：五山諸老の連署にて金地僧録に評議の結果を知らせる。

③2 月 9 日：相国寺より候補者の碩学料吹嘘状（推薦状）が金地僧録に届く。

④3 月 6 日：天龍寺より候補者の碩学料吹嘘状が金地僧録に届く。

⑤6 月 16～17 日：金地僧録が寺社奉行に輪番僧補任の件を報告する。

⑥6 月 29 日：寺社奉行より金地僧録に輪番僧候補者が幕府に認められたことを知らせる。

⑦8 月 7 日：江戸城白書院にて、老中が正式に金地僧録に輪番僧補任の命令を伝達する。

⑧11 月 26 日：金地僧録が寺社奉行に新たに補任された輪番僧の碩学料を申請する。

⑨12 月 15 日：江戸城白書院にて、老中が金地僧録に碩学料下賜の命令を伝達する。

1 月 26 日、相国寺での評議の様子については、『隔莫記』に詳しい（史料四）。

史料四 『隔莫記』寛文 2 年 1 月 26 日条

廿六日、（中略）午時於方丈、五岳当住衆評議有之、相国寺之評席番也、上方勝定院也、予亦

可出之旨、依然、令出座也、慈照翁・予出也、宥西堂者奉行故、万事肝煎、伝西堂者、峯長老上方故、被見廻也、侍衣亦可召連之旨、内々自上方申来故、哲蔵主亦赴方丈也、瑞西堂參暇、雖然、口中氣之由、靈首座被出也、自慈照翁者、詮蔵主被連也、集蔵主亦給仕也、小性兩人出也、対馬書役之人数被相加之評議也、天授翁・妙智翁・清住翁・東福寺太華瞻西堂、此衆被来、良岳翁者、持病以外差発之由、不被来也、瞻西堂者、対馬書役之人数故也、先饅飰・吸物・肴・酒三返也、評議之様子埒難明、移刻事、各退屈無申計、天龍寺社中四人、碩学闕二ケ、相国寺碩学闕二ケ、社中兩人西堂、天龍之義妙智院亦難計之旨、依然、兎角評議埒難明也、漸各令相談、於天龍、而泉叔亨西堂・虎岑虔西堂、於相国寺者、春葩全西堂、此衆三人被書付、先内証、於僧録、而得内意筈也、(後略)

史料四によると、当時、天龍寺・相国寺それぞれにおいて碩学に2人の欠員が生じた。天龍寺に西堂4人、相国寺に西堂2人がいた。評議が難渋していたが、それぞれが相談した結果、天龍寺4人の西堂のうち泉叔梵亨・虎林中虔、相国寺2人の西堂のうち春葩宗全、合わせて3人が選ばれた。

ここで注目したいのは、前掲経緯⑥～⑨が示すように、泉叔梵亨・虎林中虔・春葩宗全がまず輪番僧に補任されてから、碩学僧に補任されたことである。従来認識(=碩学僧から輪番僧を選任)とは、その順序が逆になる。

### 3.結論

従来認識では、碩学僧から輪番僧を選任するとされている。しかし、実際には、寛永13年(1635)、つまり最初の3人の輪番僧のみが、碩学僧から選任された。

(1) 碩学僧と輪番僧との関係については、おおよそ2期に分けられると考えられる。

①万治年間(1650年代後半)までは、碩学僧・輪番僧の選任は別々に行われる。輪番僧の候補者は碩学僧に限らず、西堂成・東堂成も選ばれる。

②寛文年間以降(1660年代～)は、碩学僧・輪番僧の選任は、いよいよ一体化したものと見える。ただし、従来認識と逆に、輪番僧に補任されてから碩学僧に補任されることが確認される。

東京大学史料編纂所蔵「僧録官記」に基づいて、天和2年までに選任された輪番僧を仮に10期に分けて、表4にまとめた。

(2) 輪番僧選任の過程についても、2パターンが確認される。

①寛永13年・同19年の場合は、まず金地僧録が候補者の名前を書付で幕府に提出する。そして、幕府が吟味のうえ、指名する。

②寛文2年・天和2年の場合は、まず京都五山諸老が評議を行い、候補者を選ぶ。そして、評議の結果を金地僧録を通して幕府に報告する。幕府が吟味のうえ(基本的に評議の結果をそのまま認め)、補任を行う。

17世紀中頃以降、②に変わったと考えられるが、その理由は不明である。

(3) 輪番の状態については、おおよそ3期に分けられると考えられる。

①寛永～正保年間(1630～40年代)は、「三人の輪番制」という形で基本的に1年ごとに交替する。輪番僧がそれぞれ再任・三任まで勤める(表4の第1・2期にあたる)。

②正保～万治年間(1640～50年代)は、5・6人程度の輪番僧の規模が維持されている。輪番僧の辞退・病気・死亡により、しばしば増補が行われる。

③寛文以降(1660年代～)は、碩学僧と輪番僧の選任が一体化する。

②③の場合、輪番僧規模の増大・勤番の年数の延長(1655年の明暦度信使以降、1年から2年へ)

により、一人が一任を、稀に二任を勤める。

以酌庵輪番制は、寛永 12 年（1635）に成立した当初は、一種の臨時処置に過ぎなかったが、次第に制度として整えられていったように見える。

## 二、対馬藩側の外交僧体制：西山寺一清書役僧体制

### （一）規伯玄方の弟子の起用と西山寺を頂点とする外交僧体制の成立

第一章にも触れたように、「柳川一件」直後、対馬藩には外交文書を起草できる人材がいないわけではなかったが、流罪に処された規伯玄方の弟子であったこともあり、義成がその起用を遠慮した。ただし、諸事情により、対馬藩は規伯玄方の弟子を起用する方針に転換した。

#### 1.吹嘘草案の起草

寛永 11 年（1634）11 月、幕府は宗義成・柳川調興に、「柳川一件」が到着するまで、朝鮮往還の船を差し止めるよう命じた。翌年 4 月 14 日、義成は江戸に登城して、「柳川一件」の審議が終わり、義成が安堵されたうえで、朝鮮への船を遣わしてもよいとの上意を受けた。当時、義成は幕府の存在を配慮して、朝鮮へ遣わす船に発給する吹嘘状（渡航証明書）のやり方を幕府に尋ねたが、幕府は、前のように対馬藩から発給してもよいと返答した。そして、義成は「規伯玄方の弟子に吹嘘状を作成させることを遠慮しているが、その草案を金地僧録最岳元良に依頼し、できたら老中らのご覧を経て、遣わしたい」と述べている。これに対して、幕府は、老中らのご覧は不要であり、前のように作成して遣わしてもよいと返答した<sup>100</sup>。

朝鮮へ船を遣わす許可を得て十日後、4 月 24 日に、朝鮮への使者吉村弥右衛門が江戸を立った。ただし、この時点で、吉村弥右衛門が持参すべき吹嘘状を持っていなかった。5 月 1 日、対馬藩が改めて飛脚を「徐蔵主」起草の吹嘘草案をもたらせ、国元に遣わした[泉 2002：449]。

この「徐蔵主」は規伯玄方の弟子仁叔玄恕という人物である。寛永 6 年（1629）、「日本国王使」（「準日本国王使」とも）の正使規伯玄方を随侍して、朝鮮を往還していた経験がある。そのため、寛永 12 年 12 月、対馬西山寺にて、幕府の検使の訊問を受け、翌年、江戸に連れられた。「柳川一件」到着後、病気のため、直ちに対馬に戻らず、江戸に滞在している[顧 2025a]。

恐らく、義成が吹嘘の起草を最岳元良に依頼したが、拒否され、最終的には、やむを得ず、規伯玄方の弟子仁叔玄恕を起用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従って、吹嘘の草案が吉村弥右衛門の江戸出立時に間に合わなかった。

#### 2.書契草案の起草

「柳川一件」の審理中の寛永 11 年（1634）9 月、義成は幕命を受けて、朝鮮馬上才の招請の交渉を開始し、翌年 4 月 20 日、家光の馬上才上覧を実現させた。馬上才一行が朝鮮礼曹（より対馬藩主宛か）の書契を携えたため、対馬藩主名義の返書を馬上才一行の帰国前に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は、「柳川一件」到着後、対馬藩が直面した重要な課題であった。

<sup>100</sup> 【寛信】寛永 12. 4. 14 「一、同十四日、御登 城被成候様ニと大炊頭様方申来候ニ付、御登 城被成候処、大炊頭様・讃岐守様・伊豆守様、先日之条々、達 上聞候、旧冬朝鮮往還之船御停止被仰付候得共、一議決定、諸事安堵之上者、彼国へ差遣之可然と之 上意之趣、被仰渡ル、扱又、馬芸之者無恙到着、首尾好キ趣も被仰遣可然段、御老中様方思召候通被仰候ニ付、平日渡海之船吹嘘相渡遣候、此度之飛船ニも吹嘘相添候様ニ可仕候哉、先格之儀ニ御座候故、御差図被下候様ニと被仰上候時、弥先格之通可然旨、御老中様方被仰ル、吹嘘之儀、方長老会下之僧以為相調候段ハ遠慮ニ存候、此一封金地院ニ相頼、出来候節、各中様御一覽ヲ候以後、差遣之度思召候と被仰上候得者、御老中様方、吹嘘之儀、逐一覧候ニ不可及候、以前方書契ニ用被来候、印信を以、如例御認被遣可然思召候趣被仰ル」

恐らく、義成の最初の構想は、早めに五山碩学の招聘を実現させ、招聘された五山碩学に返書の起草を依頼すること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しかし、義成の五山碩学の招聘は進まなかった<sup>101</sup>。

その代替策として、義成は最岳元良に返書の起草を依頼したが、最岳元良は辞退した。辞退の理由として、最岳元良は「以来国書之儀被仰付候様ニ御座候而者、遠慮ニ存候ニ付、達而御理申候」と述べている。最岳元良が返書の起草を辞退した結果を受けて、5月15日、幕府老中土井利勝・酒井忠勝は、「家臣のうちに返書を認めうる人がいるでしょうか」と義成に尋ねている。これに対して、義成は「規伯の弟子が返書を認めうるが、その起用を遠慮しています。老中らのご指示のうえ、格別のことです（＝起用する）」と返答している。老中利勝・忠勝は、「遠慮の必要があることと思わず、和文案をもとに、その人に漢文案を認めさせて、老中らの一覧の後、最岳元良に吟味させよう」と義成に指示した。このたび、義成が起用したのも、先述の仁叔玄恕である<sup>102</sup>。

### 3.方針の転換

対馬藩の記録「寛永丙子信使記録」によると、最岳元良は「五山のなかで書契（＝外交文書）を起草できる人がいない」との言い訳をして、対馬藩の五山碩学招聘に消極的な態度を示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義成は「長老・西堂と号し、寺院を持ち、碩学料を拝領した人（＝碩学僧）が、全く文才がないのであれば、実は五山の恥辱である」と責めている。

5月21日、義成は「西堂・長老が不文才であっても、規伯玄方に付いていた侍者（実際はその弟子）を彼等（五山碩学）の補佐役とすれば、書契を認めうる」という代替策を幕府老中酒井忠勝に述べている。忠勝も義成の提言に賛成した<sup>103</sup>。

翌日、酒井忠勝は「このたびの返翰（馬上才への返書）を認めた人は誰か」と義成に尋ねている。義成は「規伯玄方に随侍していた両僧のうち、『徐蔵司』（＝仁叔玄恕）という僧です」と返答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忠勝は「幸いのことと存じます。もしこの僧が〔江戸に〕滞留していなければ、さしあたり返翰ができまないと述べている<sup>104</sup>。

<sup>101</sup> 義成の五山碩学の招聘について、[池内 2017]に詳しい。

<sup>102</sup> 【寛信】寛永 12.5.15 「一、同十五日、御登 城、（中略）御退出之刻、於路次、生駒老岐守様江御迎被成ル、老岐守様、御老中方御用之儀有之ニ付、御自分様江可被得御意之由、金地院伝語之趣、御物語被成候ニ付、又と御登 城被成、於 殿中、金地院江御对面被成候得者、返翰草案之儀、御理申入候処、御老中方御許容之由、御物語ニ付、其訳、大炊頭様・讃岐守様江御尋被成候得者、以来国書之儀、被仰付候様ニ御座候而者、遠慮ニ存候ニ付、達而御理申候と之儀ニ候故、強而難申渡候、御家頼之内ニ其返翰相認得候人有之間敷哉と被仰候ニ付、先日も申上候通、対州ニ罷有候出家之内ニ返翰相認得候者茂有之候得共、方長老会下之僧ニ候得者、私之遠慮も有之事ニ候故、難申付存候、各中様御差図之上ハ、各別ニ候段被仰上候得ハ、書契之儀、方長老江被御附置候歟、又者其一分ヲ以左様之儀弁得候者歟、何レととも、御遠慮ニハ及可申事と不存候、和文之旨を以、返翰為御認被差図候者、各中一覧之後、金地院江為見吟味候様ニ可致之趣被仰候ニ付、徐蔵司と申候僧、病氣ニ付、今以御当地ニ罷有候との儀、御返答被成、御退出之刻、右之趣ヲ金地院江被仰入候得ハ、左様御座候ハ、草案出来之刻、竹田法印所ニ而一覧可仕之由、金地院御返答有之、」

<sup>103</sup> 【寛信】寛永 12.5.21 「一、同廿一日晩、酒井讃岐守様御館江御出被成候処、（中略）扱又被仰上候者、先日も申上候ことく、朝鮮書契通用之当役無之候而ハ、不叶事ニ候、博識有才之人ヲ吟味仕訳ニ御座候而ハ、早速ニハ相済かたく可有之候、長老・西堂ニ候ハ、たとへ不文才ニ候ととも大様ニ候可有之と存事ニ候、然者、右当役之人ニ方長老ニ相附居候侍者ヲ相添候ハ、書契被相認候儀可罷成事と存候、此間各中様御差図ニ付、金地院江致相談候得者、書契相認候人才五山中一人も無之様ニ被申聞候ニ付、長老・西堂と号シ、寺院ヲ持、学領ヲ賜り候人、全く文学之才無之と御座候者、実ハ五岳之恥辱と申ものに而、公儀江相聞候而も、首尾不可然事ニ候、子細者五山之内書役之蒙 仰、御地行ヲ被成下候人と致シ、文学之事ヲ不被相心得候ハ、平生何事ヲ職分と被致事ニ候哉と和尚と相論ニ及候程ニ申談候と被仰上候得ハ、讃州様被仰候ハ、御自分被仰聞候趣一々御尤ニ候、（後略）」

<sup>104</sup> 【寛信】寛永 12.5.22 「一、同廿二日、藤堂大学頭様御同道御登 城、（中略）讃岐守様、此度之返翰相

結局、五山碩学招聘の難渋や、馬上才への返書の起草などの現実の問題は、対馬藩の方針転換を促した。規伯玄方の弟子を朝鮮外交に再起用するようになった。

7月以降、五山碩学の招聘がいよいよ進んできた。第一章で触れたように、7月14日、最岳元良が「対州江被遣候五山碩学之名前」を幕府老中土井利勝・酒井忠勝・松平信綱に提出した（【寛信】では7月13日）。幕府が吟味中、7月26日、忠勝は「朝鮮側の事情を存じる人が、ほかにもあるでしょうか」と義成に尋ねている。義成は、①規伯玄方に随侍していた僧2・3人、②流罪に処された柳川調興に付いた「邵首座」、を挙げた。

結果として、義成はのち、先述の仁叔玄恕と、同じく規伯玄方の弟子にあたる任庵玄留を、それぞれ対馬府中の西山寺・長寿院の住持に任命して、彼等を対馬藩の朝鮮外交に参入させた。西山寺・長寿院は、ともに対馬宗氏一族の菩提寺であり、中世以来の朝鮮外交拠点でもある[顧 2022・2025a・2025b]。仁叔玄恕の活動は、表5にまとめた。

さらに、承応2年(1653)、義成が西山寺住持仁叔玄恕に判物を発給し、藩内の清書役僧と臨済宗僧の統轄を命じた。以降、歴代藩主も西山寺住持に判物を発給し、その役割を再確認する(史料五)。長寿院住持は西山寺住持の補佐役にあたる。西山寺と長寿院は、長い間、規伯玄方の弟子筋に独占された(表6参照)。

#### 史料五

##### ①西山寺住持仁叔玄恕宛義成判物写（「府内寺菴御判物帳」、韓国国史編纂委員会所蔵宗家文庫）

宗義調朝鮮之書役并五山流之僧之儀、蘇長老へ被申付候、依之、西山寺当住持有来候様ニ、弥濟家催判之儀申付候間、諸事致吟味、僧之糾善惡、不作法・不学之仁有之時者、可有其沙汰之状如件、

承応二年

三月三日 義成御判

西山寺当住

仁叔

##### ②西山寺住持梅山玄常宛宗義真判物写（同前）

義成任前判、朝鮮之書簡清書役僧并濟家惣禄不可有相違之状如件、

延宝六戊午年

十月廿日義真御判

西山寺当住持

常長老

##### ③西山寺住持梅山玄常宛宗義方判物（西山寺所蔵、現在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寄託）

一臨濟宗之寺菴并朝鮮書簡清書役之僧、如先規支配可仕事、

一万事僧之作法正数学文聊懈怠無之様、僉議可仕候、勿論宗門替へ候僧於有之者、可遂案内事、

一他国江行脚之僧之儀、臨濟之一宗、其意趣審ニ吟味仕、可遂案内事、

元禄十五年十一月九日義方（花押）

認候儀何人相認之申事ニ候哉と御尋ニ付、先日も申上候ことく、方長老ニ致随侍来リ候兩僧之内老人徐蔵司と申僧、病氣ニ付、御当地ニ逗留仕罷有候、此間致快復、帰州之儀、願出候へ共、万一御用も可有之哉と為相摸召置候と被仰上候得ハ、讃州様、幸之事ニ存候、若も此僧滞留不致候ハ、差当り返翰之儀埒明申間敷と存事ニ候と御相摺被成ル」

## 西山寺住持江

このように、西山寺住持が朝鮮外交の実務を担うとともに、清書役僧の統轄役も務めている。

## (二) 清書役僧・東向寺僧と制度の整備

## 1. 清書役僧・東向寺僧とは

実際には、西山寺住持の統轄下に置かれる清書役僧と、それに関わる東向寺僧は、西山寺住持よりも早く研究者の注目を集めてきた。研究史上では、長正統氏が初めて東向寺僧について論じた[長 1968]。池内敏氏は、近世日朝外交に関わる外交僧（＝以酌庵輪番僧・東向寺僧・清書役僧）それぞれの関係性について検証した[池内 2017-3 (2012)]。藤本健太郎氏は、東向寺僧・清書役僧の研究をさらに深化させた[藤本 2015・2016・2021]。

以上の研究により、史料に恵まれた 18～19 世紀における清書役僧・東向寺僧の選抜・育成・昇進制度が明らかになった。すなわち、清書役は本役と稽古役からなる。平僧は清書試（手跡吟味）という試験を経て、稽古役に選任される。本役に欠員が生じた場合には、稽古役から欠員分を本役へ昇進させる。また、対馬藩は本役のなかから一人を選び、釜山倭館にある東向寺に派遣し、外交文書の監理（「吟味」）など役割を担わせる。

しかし、史料的制約のため、17 世紀における清書役僧・東向寺僧の実態については、不明な点が多い。たとえば、清書役僧がいつ設立されたのかは、全く明らかではない。

また、東向寺僧が滞在した東向寺の建立時期も不明である。寛永 6 年（1629）の「日本国王使」一行の記録「方長老上京日史」「御上京之時毎日記」には、既に倭館に寺が存在したことが確認される<sup>105</sup>。推測の域を出ないが、慶長 12 年（1607）、釜山浦の豆毛浦に倭館が設置された直後に、寺院も建立された可能性が高い。建立当初は、一人の僧（「玄程の御寺」）が長期にわたり住持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さらに、いつの段階で、対馬藩は清書役僧を東向寺に遣わして、往復の外交文書の勘案・審査・記録などの役割を担わせるようになった。在任中、東向寺僧は、往復の外交文書を『両国往復書牘』（現在、国立国会図書館所蔵）なる記録に留める。その第一冊は、承応 3 年（1654）分である。池内氏は、『両国往復書牘』を利用し、承応 3 年以降の「東向寺歴代僧一覽」表を作成している[池内 2017-3]

## 2. 制度整備の動向

17 世紀中頃以降、対馬藩の史料は次第に増加する。藩政記録「（国元書札方）毎日記」からは、当該期における清書役僧・東向寺僧の実態の一部を伺うことができる。

史料六は「毎日記」明暦 2 年（1656）11 月 14 日条の記事である。これによれば、対馬島八郷の臨濟宗僧（「西家僧」）が以酌庵に遣わされ、輪番僧の前で文字を書く。能書の僧が選ばれ、「朝鮮御書簡之筆者之役目」、すなわち清書役に任じられるという。その際、国分寺・西山寺・長寿院の住持も以酌庵に赴き、手跡の善悪を吟味した。

史料六 「毎日記」明暦 2 年 11 月 14 日条

〃八郷方罷登候西家僧、以酌庵へ被遣、柏長老御前ニ而物御かかせニ而、御覧被成、手跡能キ

<sup>105</sup> 寛永 6 年（1629）、朝鮮に遣わされた「日本国王使」の正使規伯玄方の日記「方長老上京日史」寛永 6.3.3 条に「三日、留館衆等来賀上巳、自飯後上寺放懐」とある。副使杉村采女の家人の記録「御上京之時毎日記」寛永 6.6.11 条に「御城より御振舞として、玄程の御寺にて、長老様・采女様、其外御相伴人加右・奎兵・御代官衆御座候」とある。「玄程」は、規伯玄方の弟子と推定される[田代編 2021: 30]。

僧ハ朝鮮御書簡之筆者之役目可被仰付候間、国分寺・西山寺・長寿院も以酌庵ニ参候而、手跡善悪之吟味仕候様ニと被 仰付、

当時の西山寺・長寿院の住持は、仁叔玄恕・任庵玄留である。前述のように、西山寺住持は清書役僧・臨濟宗僧の統轄役に命じられていた。長寿院住持はその補佐役にあたる。国分寺は、対馬宗氏一族の菩提寺であり、藩内寺院に対する総僧録的立場にあつて、書役僧をも管理し得る存在であった<sup>106</sup>。

この時期、清書役僧の選抜制度は確認されるが、体系的な育成制度はまだ見当たらない。

そして、寛文 11 年 (1671) 3 月、清書役僧の老病などを理由に、西山寺住持梅山玄常と長寿院住持日巖玄昱は、年寄中 (藩家老) に、若手僧を清書役に加えるよう願い出ている。彼らは、若手僧を清書役に参入させることで、「手跡も上がり、書簡も調えるよう」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毎日】寛文 11.3.1)。これは、のちの稽古役の濫觴と考えられる。

延宝 3 年 (1675) 9 月 16 日に、西山寺住持梅山玄常の上洛中に、長寿院住持日巖玄昱が急死した。同月 21 日、長寿院同宿が対馬藩寺社奉行高勢新右衛門に、「長寿院死去ニ付、大切之大寺候処、若輩者斗」であるため、「年輩之看坊被仰付被下候様ニと」願い出ている (【毎日】延宝 3.9.21)。翌年閏 4 月 15 日、対馬藩「怡首座」を長寿院の看坊 (留守) に命じた (【毎日】同日条)。この「怡首座」は東向寺僧を務めた「双桂庵 元怡」と同一人物であると推定される<sup>10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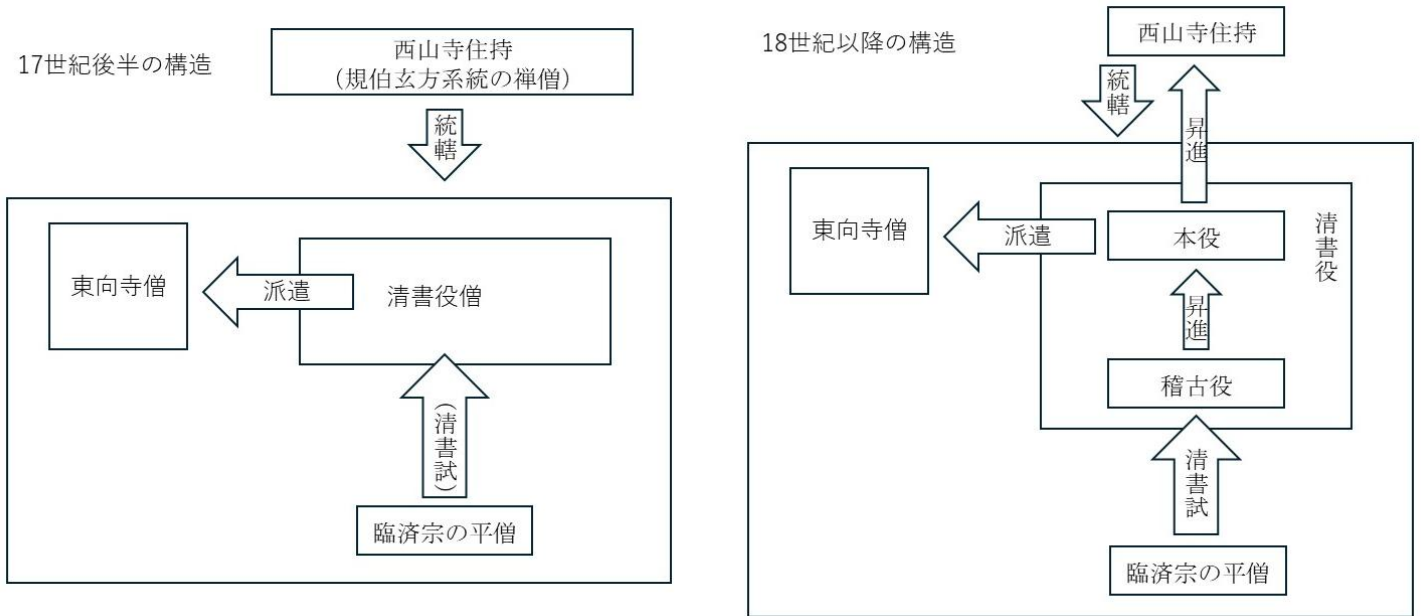
さらに、18 世紀初期には、規伯玄方系統の禅僧と推定される月礪玄珪の後、対馬藩は東向寺僧を務めた経験をもつ無堂祖参を西山寺住持に任命した。その後、西山寺住持は特定の法系 (規伯玄方系統) に限定されることなく、清書役僧・東向寺僧の経験者から選任されるようになる [顧 2025a]。

このように、不明な点は少なくないものの、「柳川一件」後、対馬藩が独自の外交僧体制を創出し、18 世紀初期に至るまで、その体制を整備しつつけていたことが伺える。17 世紀後半と 18 世紀以降の組織構造を図式化すれば、以下のように示すことができる。

<sup>106</sup> 承応 2 年 (1653)、国分寺住持宛宗義成判物 (「府内寺菴御判物帳」) に「一濟家之儀者、書役之方載判可有之候、雖然無作法之僧見聞有之時者、可被遂案内之事」とある。

<sup>107</sup> 『津島紀事』巻二「護国山景德庵」条によると、正徳 3 年 (1713)、天龍寺妙智院出身の以酌庵輪番僧・中山玄中の請願により、対馬三根郷佐賀にあった妙智院ゆかりの景德庵が府中の双桂庵に移される。「対州西山寺一派開基帳」景德庵条に「三世歛叔怡座元 転住長寿院」とある。

『津島紀事』は 19 世紀初めにできた対馬の地誌。「対州西山寺一派開基帳」(西山寺所蔵)、寛政 4 年 (1792)、当時の西山寺住持「祖陽」による西山寺及びその末寺の住持名簿。



東向寺僧が清書役僧のなかから選ばれていたことから、本稿では、対馬藩独自の外交僧体制を「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称する。

### おわりに

本稿では、近年の研究を踏まえて、新知見も加え、人事の側面から、「柳川一件」後、対馬藩における二つの外交僧体制の成立と変容を整理した。

池内敏氏は、対馬藩に関わる外交僧、すなわち以酌庵輪番僧・東向寺僧・清書役僧の三者が「相互に有機的な連関を保ちつつ機能を果たした」と指摘している[池内 2017-3]。本稿では、この指摘を参照し、①幕府側の以酌庵輪番制と、②対馬藩側の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いう二つの外交僧体制が、相互に有機的な連関を保ちつつ機能を果たしたことを指摘したい。17 世紀末までの両体制それぞれの人員構成・拠点・役割分担などについては、表 7 にまとめた。

従来外交僧の研究では、寛永 10 年（1633）前後の画期性・断絶性が強調されてきたが、筆者は、寛永 10 年前後の連続性も看過すべきではない考えられる。

- ①幕府中枢の外交僧：以心崇伝—最岳元良：法系上の連続性[顧 2025 c]
- ②対馬藩の外交僧：規伯玄方—その弟子筋（仁叔玄恕・任庵玄留ら）：法系上の連続性[顧 2025a]
- ③幕府側の外交僧：以酌庵輪番制：ある意味で、「外交機関としての五山」の延長線上に置かれる

しかし、17 世紀末（元禄期頃）、対馬藩が木下順庵門下の儒者（雨森芳洲や松浦霞沼など）を対馬に招聘したことにより、対馬藩の外交人材の構成には変化が生じたと見られる。たとえば、西山寺住持が担っていた漢文草案吟味の役割は、次第に儒者へと引き継がれる（奪われるカ）ようになった<sup>108</sup>。

<sup>108</sup> 享保 5 年（1720）における朝鮮方の設立が契機となり、対馬藩が木下順庵門下の儒者（雨森芳洲や松浦霞沼など）を対馬に招聘することで、外交文書の取扱業務に対応できる人材を新たに真文役として召し抱え、彼らによって東向寺僧が倭館で担っていた審査業務が代行された事例や、外交文書の文面をめぐる以酌庵僧との折衝が図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藤本 2016]。

今後の課題として、僧侶と儒者との総合的關係を視野に入れながら、近世初期から近世中期にかけての対馬藩外交体制の変容過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参考資料

- 荒木和憲 2007『中世対馬宗氏領国と朝鮮』（山川出版社）、2019「「壬辰戦争」の講和交渉」（『SGRA レポート』86）、2024「通貢問題からみた壬辰戦争」（『九州史学』195）、「中世日朝交流における偽使と真使」（『歴史学研究』1063）
- 秋宗康子 1991「対馬以酏庵に赴いた相国寺派輪番僧について」（『立命館文学』521）
- 異国日記刊行会編集 1989『異国日記：金地院崇伝外交文書集成 影印本』（東京美術）
- 池内敏 2006『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出版会）、2017『絶海の碩学』（名古屋大学出版会）
- 泉澄一 2002『対馬藩の研究』（関西大学出版部）
- 伊藤幸司 2002a『中世日本の外交と禅宗』（吉川弘文館）、2002b「中世後期における対馬宗氏の外交僧」（『年報朝鮮学』8）
- 伊藤真昭ほか編 2007『相国寺蔵西笑和尚文案』（思文閣出版）
- 長正統 1968「日鮮関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東洋学報』50（4））
- 北島万次 1990『豊臣政権の対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 金義煥 1983「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李朝の対日政策の一理解のために—」（『朝鮮学報』108）
- 圭室文雄編 2004『天海・崇伝：政界の導者』（吉川弘文館）
- 桜井景雄 1986「対州修文職について」（同『禅宗文化の研究』思文閣出版、初出は1966）
- 田代和生 1981『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1983『書き替えられた国書』（中央公論社）
- 田代和生編著 2021『方長老上京日史・飲冰行記』（ゆまに書房）
- 田中健夫 1988「対馬以酏庵の研究—近世対朝鮮外交機関の一考察」（『東洋大学大学院紀要』24）
- 辻善之助 1928～1929「黒衣の宰相金地院崇伝（一～六）：附異国日記解題」（『史苑』1（1）～同1（6））
- 西村圭子 2002「対馬宗家の近世朝鮮貿易に関わる以酏庵史料について」（同編『日本近世国家の諸相II』東京堂出版、初出は1997）
- 村井章介 1988『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
- 藤本健太郎 2016「対馬藩朝鮮方の成立過程について」（『朝鮮学報』241）；2021「一九世紀の対馬藩による清書役僧教導体制の再編」（『多文化社会研究』7）
- 顧明源 2022「十六世紀における対馬と妙心寺派」（『史学雑誌』131（9））、2025a「「柳川一件」後、対馬藩の朝鮮外交体制の再構築」（『史学雑誌』134（1））、2025b 編『対馬西山寺文書の研究』（花書院）、2025c「東大史料編纂所蔵「金地院記録」から見る最岳元良と幕府の朝鮮外交」（2025年度古文書学会大会報告、『古文書研究』投稿中）

## 【토론문】

## 「「柳川一件」後、日朝外交における外交僧体制の改編

## —以酌庵輪番制と西山寺・清書役僧体制をめぐる—」에 대한 토론문

이형주(국민대학교)

高明源先生のご発表は、柳川一件後、対馬藩において日朝通交業務を担うことになった外交僧たちの制度史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緻密な史料分析を通じて、「日朝関係の転換期」として主として「断絶性」や「画期性」が強調されてきた柳川一件前後の時期について、通説的理解とは異なり、「連続性」に注目して再検討する余地を示された点はきわめて興味深かった。また、「以酌庵輪番制」と、先生が設定された「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が有機的に結びついていたことを提示された点も、重要な指摘であったと思う。

討論者として、今回のご発表における史料解釈や制度史的説明そのものについて、とくに異論はない。また個人的には、徐蔵司（仁叔玄恕、朝鮮側史料では主として「恕首座」として現れる）という人物が規伯玄方の弟子であったという点が非常に興味深かった。

ただし、今回のご発表で扱われた外交僧や 17 世紀という時期については、討論者はむしろ門外漢に近いため、以下、いくつか質問を申し上げたい。

## 1. 「西山寺・清書役僧体制」について

本文の「制度整備の動向」において、「東向寺僧が清書役僧のなかから選ばれていたことから、本稿では、対馬藩独自の外交僧体制を「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称する」とされていたが、この点はやや理解しにくく感じられた。というのも、「東向寺僧が清書役僧のなかから選ば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その理由であるならば、むしろ東向寺もまた、先生が設定された体制の名称の中に含まれるべき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からである。しかも [表 7] を見ると、先生は「西山寺・清書役僧体制」の中に東向寺も含めて構想さ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東向寺を外し、あえて「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命名されたのか、その理由をご説明いただければと思う。

関連して、先生が設定された体制を「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名づける以上、その体制の中における西山寺の役割を、より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池内先生が「二つの輪番制」（『絶海の碩学』、2017 年）において説明された、以酌庵輪番僧・東向寺僧・清書役僧という三者の「相互に有機的な関連」に対して、先生は西山寺を加え、西山寺・東向寺僧・清書役僧を新たな一つのまとまり、すなわち「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して設定した上で、これが以酌庵輪番制と両者のあいだで「相互に有機的な関連」を有していたと論じられた。

そうであるならば、池内先生が設定された三者関係に、なぜあらためて西山寺を加えて、新たに「西山寺・清書役僧体制」なるものを設定する必要があったのか、言い換えれば、先生がこれを「西

山寺・清書役僧体制」と命名されるほど、西山寺はいかなる主導的役割を果たしていたのかを、もう少し具体的に示していただければ、私を含む聴衆の理解がより深まるのではないと思われる。

本文の図では、先生は西山寺が清書役僧を「統括」したこと、あるいは彼らの「昇進先」となっていたことを示され、また [史料 6] では、西山寺が清書役選抜の過程で複数の審査者の一人であったことも確認される。とはいえ、発表者の概念設定をより説得力あるものとするためには、西山寺がこうした機能にとどまらず、実際にこの体制の性格を規定する中心軸であったこと、そしてまさにそのために、池内先生の三者関係に西山寺を加え、それを別個の体制として設定して、「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名づける必要があったのだという点を、より実証的に示す必要があるように思われる。

## 2. 「相互に有機的な関連」について

池内先生の、以酌庵輪番僧・東向寺僧・清書役僧という三者が「相互に有機的な関連を保ちつつ機能を果たした」という指摘を踏まえて、先生は、「①幕府側の以酌庵輪番制と、②対馬藩側の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いう二つの外交僧体制が、相互に有機的な関連を保ちつつ機能を果たしていた」と指摘された。

ここで、池内先生のいう「相互に有機的な関連」は比較的明確である。すなわち、以酌庵輪番僧が作成した漢文草案を清書する過程で、清書役僧たちが外交文書に関する実務能力を体得し、そのような清書役僧たちが東向寺僧として倭館に派遣されるという、実務学習の連鎖を意味していたと理解できる。

しかしながら、先生が指摘された①以酌庵輪番制と②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のあいだの「相互に有機的な関連」については、やや不分明に感じられた。[史料 6] では、以酌庵輪番僧が清書役選抜の過程で審査者として参加し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とどまり、[表 7] においても、①以酌庵輪番制と②西山寺・清書役僧体制の役割は単に並列的に示されているにとどまっ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る。したがって、単なる「行政手続」や「業務分担」を超えて、両者の役割がいかなる意味で「相互に有機的な関連」を持っていたのかという点は、なおやや不分明であるように思われた。

先生のいう①以酌庵輪番制と②西山寺・清書役僧体制とのあいだの「相互に有機的な関連」とは、具体的に何を指すのか、また可能であれば、池内先生のいう「相互に有機的な関連」と、先生のいうそれとのあいだに、どのような差異があるのかについても、お聞かせいただければ幸いである。

## 3. 「法系上の連続性」について

先行研究では、1633 年（寛永 10）前後の画期性や断絶性に注目する傾向が強いが、先生はむしろ連続性を看過してはならないとされた。そしてその関連で、幕府中枢と対馬藩の外交僧とのあいだに見られる「法系上の連続性」を指摘しておられる。

しかし、この「法系上の連続性」が具体的にいかなる意味を持つのかについては、この分野の門外漢である討論者にはやや理解しにくかった。幕府中枢の外交僧の問題はひとまず措くとして、対馬藩の側について考えると、柳川一件後に、規伯玄方の弟子である仁叔玄恕（＝徐蔵司＝恕首座）が実務者として登用されたのは、「法系」（すなわち単に規伯玄方の系統に属していたこと）ゆえなのか、それとも「実務能力」（すなわち規伯玄方のもとで外交実務の経験を積んでいたこと）ゆえなのかを考えた場合、やはり後者とみるのが自然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

そうだとすれば、対馬藩の外交僧についていう「法系上の連続性」は、それ自体としてはそれほど大きな意味を持つものではないようにも見える。したがって、討論者としては、「法系上の連続性」それ自体よりも、むしろ「法系を媒介とした実務能力の連続性」をより強調すべきであり、その点を実証的に示す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感じた。この点について、先生のお考えを伺いたい。

#### 4. 補論

討論者は裁判役に関心を有しているが、1630～1650年代に裁判役として活躍した有田壱兵衛については、次のような史料がある。

智繩(=有田壱兵衛)多年師事于瞎驢山(=以酌庵)本光禪師(=景轍玄蘇)、屢学内外典籍、或扣問 两国通交之要義、統又尊崇於規伯太師(=規伯玄方)、参究世間出世間之道、益体認於 两国通信之大意也、

これは、西山寺住持(?)である梅山玄常が1691年(元禄4)に作成した「有田壱兵衛智繩紀事」(国史編纂委員会所蔵、所蔵文書番号:4364)に見える記事であるが、もしこの記録が信頼できるものであるならば、有田壱兵衛もまた、先生が例として挙げられた仁叔玄恕(=徐蔵司=恕首座)と同様に、規伯玄方に学んだ人物であったように見える。

もしそうだとすれば、有田壱兵衛は1632年(寛永9)に裁判役に任命され、1651年(慶安4)まで仁叔玄恕とともに倭館へ派遣されるなど、外交の舞台で活躍していたのであるから、外交僧のみならず、裁判役の方面においても、規伯玄方とのあいだに「一定の連続性」があったと考える余地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すなわち、先生のいう連続性の問題は、対馬藩外交僧の内部にのみ限定されるのではなく、朝鮮外交の実務を担った、より広い人的ネットワークの連続性へと拡張して考える余地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慎重ながら考えてみた次第である。

### 제3발표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  
-唐之首尾御使者를 중심으로-

발표 : 박정빈(규슈대학교 입학예정)

토론 : 허지은(서강대학교)

【제3발표】

##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 -唐之首尾御使者를 중심으로-

박정빈(규슈대학교 입학예정)

### 1. 머리말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는 휴대전화를 통해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과도 즉시 통화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영상 전송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의 실시간 중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신기술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정보 전달은 어떠한 수준이었을까.

전신이 이미 활용되고 있던 1895년에는 조선 한성에서 발송한 전보가 일본 도쿄로 도착하기까지 3시간 전후로 소요되었다.<sup>95)</sup> 하물며 이러한 기술조차 없었던 시기에는 구두로 직접 전달하거나 문서 보고, 봉화 등의 수단에 의존해야했다. 그러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배나 말을 이용하거나 인편을 통해야하는 만큼 직접 이동하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였고, 봉화와 같은 수단은 신속성은 갖추었으나 전달 내용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의 분석을 통해 사건의 보고자료가 언제 작성되어 보고되었는지의 시점과, 해당 보고에 대해 대응책이 결정되어 회신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검토해보면 수집·보고·판단·회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96)</sup>

한편 ‘情報’라는 용어는 明治維新 이후로 등장하고 정착된 근대적인 용어로 막부말기·유신 초기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정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사례는 1876년에 육군소좌 酒井忠恕가 프랑스의 병서 『Instruction pratique sur le service de l'infranterie en campagne』를 번역하면서<sup>97)</sup> 군사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정보’로 번역된 프랑스어 원어는 renseignement로 전장에서의 적에 대한 정보나 첩보를 의미하며 현재의 관점으로 볼 때 협의의 개념이었다. 이후 1901년 森鷗外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번역하면서 정보에 대해 “情報とは、敵と敵国とに関する我知識の全体を謂ふ。”<sup>98)</sup>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정보’라는 용어가 번역을 통해 형성되고 점차적으로

95) 일본 내에서의 전신은 약 1시간 전후로 소요되었다. 『外務省 電受』六七九号, 明治二十八年五月廿二日. 『外務省 電受』六八九号, 明治廿八年五月廿三日.

96) 『鹿児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一, 1683号.

97) 번역서는 『仏国歩兵陳重要務実地演習軌典』이다. 佐藤隆一, 『幕末期の老中と情報—水野忠精による風聞探索活動を中心に—』, 思文閣出版, 2014, 4-6쪽.

98) 김만수는 동일한 부분의 독일어 원전 초판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정보라는 말은 적과 적의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하고…….”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김만수 옮김, 『전쟁론』, 갈무리, 2016, 134쪽.

의미를 확장해나가는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99)</sup>

‘정보’라는 근대적 용어가 정립되기까지 일본에서 해외정보를 뜻하는 용어로는 風説이 사용되었다. 풍설이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문’이라는 의미도 있었으나, 해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오는 네덜란드 상관장, 중국 상인들에 의한 정보보고서를 オランダ風説書 및 唐船風説書라고 칭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막부가 세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었다.

막부로 유입되는 해외정보는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唐船·オランダ船뿐 아니라 사츠마(류큐), 츠시마(조선)·마츠마에(아이누) 등 복수의 경로로 입수되었다. 막부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외교정책결정을 위한 종합적 판단의 재료가 되었다.<sup>100)</sup> 그중 류큐경유 해외정보는 사츠마번의 류큐지배 이후로 지속적으로 해외정보의 보고가 이루어진 경로였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중국의 왕조와 직접 교류하지 않은 채 무역만을 유지하였으며, 양자 간의 공식적인 교류는 성립하지 않았다. 반면 류큐는 수백 년간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지속해 온 존재였다. 따라서 류큐를 통해 입수되는 중국 관련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공식 외교 관계에 기반한 정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막부지배층은 이와 같은 복수의 대외창구로부터 들어오는 해외정보를 수집·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경로의 보고를 교차검증할 수 있었다.<sup>101)</sup> 이에 본고에서는 에도 막부가 수집한 복수의 해외정보 경로 중에서도 ‘류큐 경유 해외정보’에 주목하여, 그 전달방식과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이 주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을지 연구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선행연구 동향과 과제

류큐 경유 해외정보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는 분석의 초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정치·군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류큐 경유 해외정보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연구이며, 둘째는 진공사절의 정보 전달 체계를 분석한 연구, 셋째는 사츠마 지배 구조 하 류큐가 수행한 정보 자문 기능에 주목한 연구, 넷째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나가사키·츠시마 등 복수경로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99) 佐藤隆一, 위의 책, 2014, 4-6쪽.

100) 마츠마에번은 18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의 동진 이전까지 정보수집경로로써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경향이 있지만 에도 막부 수립 전후에는 북방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경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때는 韃靼(여진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豊臣秀吉所持扇面地圖를 보면 당시 한반도의 동북쪽 지역을 エゾ(蝦夷)라고 표기하고 있어 당시 북방지역에 대한 빈약한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韃靼(オランカイ)=蝦夷라고 보는 지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599년 大阪城에서 徳川家康는 蠣崎義広(이 해에 松前로 성을 바꿈)에게 ‘北高麗의 様体’를 보고 받았으며, 1669년 シャクシャイン의 봉기가 일어나자 막부의 老中들은 蝦夷에 韃人이 가세하여 공격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신동규, 「중근세 일본의 사찬지도(私撰地圖)로 본 ‘삼도영토관(三島領土觀)’」, 『근세 일본의 국제관계와 대외인식』, 경인문화사, 2024, 277쪽. 紙屋敦之, 「西と東の異域」, 『大君外交と東アシヤ』, 吉川弘文館, 1997, 160-187쪽.

101) 眞栄平房昭, 「近世日本の国際認識についての一視点」『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会 議編 『文明のクロスロート MUSEUMKYUSHU』32, 1989, 47쪽.

## 2.1. 중국의 정치·군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류큐경유 해외정보 연구의 출발점으로 眞栄平房昭의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명·청 교체기 및 이후로 발생한 큰 사건을 중심으로 류큐의 정보수집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근세 일본에 유입된 해외정보의 경로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sup>102)</sup>

특히 삼번의 난과 관련하여<sup>103)</sup> 그는 중국 측 사료에서의 상대적 기록이 적은 靖南王의 동향이 류큐경로 보고에 상세히 언급되어있는 점을 지적하여, 해당 보고의 사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류큐사절의 견문 기록에는 삼번의 난 당시 제3자의 눈으로 본 시각이 담겨져 있으며, 보고가 민간 차원의 풍설 뿐 아니라 외교사절이라는 공적인 지위에 기반한 정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류큐의 정보가 진공사절이 현지 체재 중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고였기 때문에, 권력 내부의 동향도 파악 할 수 있어 신뢰성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sup>104)</sup>

이러한 연구는 19세기의 사건 연구로도 확장되었으며, 대만에서의 반란(朱一貴)과 강희제의 내륙아시아 원정<sup>105)</sup>, 아편전쟁<sup>106)</sup> 태평천국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관련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아편전쟁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나가사키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즉 オランダ 風説書와 唐船風説書에만 주목하여 류큐 경유 정보의 실태를 확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아편전쟁 당시 류큐가 보고한 정보의 내용과 전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수집경로에 대한 시각을 넓혔다.

또한 태평천국<sup>107)</sup> 관련해서는 1853년 南京함락과 관련하여 번주 島津斉彬가 6월 29일에 一橋派 다이묘인 松平慶永에게 보낸 서간의 분석을 통해, 島津斉彬가 해당 정보를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입수 일자와 비교해보면 이때는 어떤 경로보다도 류큐경로 정보가 가장 빨리 전달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08)</sup> 더 나아가

102) 眞栄平房昭,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 『歴史地理教育』608, 2000a. 眞栄平房昭, 講演録「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と琉球」,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研究紀要』10, 2004.

103) 眞栄平房昭, 「近世琉球の対中国外交-明清動乱期を中心に」, 『地方史研究』197, 1985.

104)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85, 51쪽.

105) 眞栄平房昭,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と琉球の位置」, 『思想』796, 1990,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c, 334-339쪽.

106)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c, 353-360쪽. 眞栄平房昭, 「琉球の海外情報と東アシ・アー九世紀の中国情勢をめぐって」, 岩下哲典・眞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1997a, 96-97쪽. 眞栄平房昭, 「アヘン戦争前後の東アシ・國際関係と琉球」, 『第四回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1999, 91-94쪽.

107) 眞栄平房昭, 「幕末期の海外情報と琉球-太平天国の乱を中心に」, 地方史研究協議会 編 『琉球・沖縄-その歴史と日本史像-』, 雄山閣出版, 1987, 再録 保谷徹 編, 『幕末維新と情報』, 2001 및 『琉球海域史論(下)』, 2020a. 眞栄平房昭, 「太平天国の乱と琉球」, 『新琉球史 近世編(下)』, 1990a, 309-320쪽.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7a, 98-103쪽. 眞栄平房昭, 「アヘン戦争前後の東アシ・國際関係と琉球」, 『第四回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1999a, 94-99쪽.

108) 태평천국 자체에 대한 정보는 나가사키로 들어온 唐船에 의해 1852년 12월에 전달되었지만, 당시에는 금방 진압될 것으로 여겨졌다. 이후 1854년 7월까지 唐船의 來航은 없었으며, 네덜란드 선박은 1853년 7월에 야 나가사키로 내항하였고, 이때 전달된 別段風説書에 南京함락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류큐경유 정보의 경우에는 南京함락의 정보에 대해 당시 진공사절단의 일원으로 상경하지 않고 福州에 체재 중이던 王舅 小祿親方良忠(馬克承)가 정보를 입수한 후 배를 구입하여, 진공사절이 福州로 돌아오기 전에 보고함으로써 4월 초순에 이미 해당 정보가 류큐에 전달되었다. 당시 北京에 상경한 사절은 譜久村親雲上(毛種美), 瑞慶覽親雲上(蔡士俊)이다. 이들은 임무를 마치고 福州로 돌아오는 길에 경로를 바꾸었으며, 1853년 봄까지 建寧府

태평천국이 진정되지 않은 중에 진행된 2차 아편전쟁<sup>109)</sup> 관련해서도 복귀한 진공사절 宜野灣親方朝保(向有恒)에 의한 보고와 多良間に 漂着한 네덜란드 선박의 사정정취를 통해 입수한 정보가 막부에게까지 전달되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류큐경유 해외정보는 특정 시기에는 다른 어떤 경로보다도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였음을 밝혔으며, 특히 막부 말기의 일본에 있어서 류큐는 해외정보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다.<sup>110)</sup>

## 2.2.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

두 번째 연구 흐름은 류큐 경유 해외정보가 어떠한 구조적 틀에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다. 중국 정보에 대한 전달자인 唐之首尾御使者에 주목함으로써, 류큐 경유 해외 정보가 일정한 체계 속에서 운영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眞栄平房昭는 1678년 정보전달의 메신저인 唐之首尾御使者의 관례화<sup>111)</sup>에 주목하였고, 류큐경로를 통해 유입된 중국정보에 淸朝의 宮延人事 등 고위 관계자들을 통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정보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풍문이나 상업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구별되므로, 이는 류큐 경유의 정보가 唐船風說書 등과 더불어 막번제 국가에 의한 해외정보 수집 체계의 한 축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福州의 중국인 통역 집단인 ‘河口通事’와 류큐인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福州 琉球館(柔遠驛)이 정보의 집적·교환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강조하였다.<sup>112)</sup> 즉, 류큐는 해외정보의 입수창구와 정보의 메신저로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다.<sup>113)</sup>

한편 紙屋敦之는 정보전달 체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1678년부터 정례화된 唐之首尾御使者를 통해 사츠마번이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114)</sup> 그는 류큐경유 중국정보가 일회성 사건의 정보수집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적인 체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제시하며, 류큐가 해외정보의 창구로서 중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15)</sup>

---

에 체재하였고, 이후 산악지대를 우회하여 5월 28일에 福州에 무사히 도착했다. 『淸文宗実録』 卷之八十四, 咸豐三年二月二日. 眞栄平房昭, 「琉球の海外情報からみた東アジア」,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集委員会 編 『琉球王国評定所文書第一二巻』, 浦添市教育委員会, 1996,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d.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0a, 310쪽. 松尾晋一, 「太平天国の戦況と長崎」, 長崎県立大学国際交流研究センター 『東アジア評論』16, 2024, 1쪽. 松方冬子, 「1853(嘉永6)年の別段風說書蘭文テキスト」,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18, 2008, 5쪽.

109)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0a, 326-330쪽.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d, 378-381쪽.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7a, 104-106쪽.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9a, 101-104쪽.

110)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a, 406~415쪽.

111)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c, 346쪽.

112) 眞栄平房昭, 「海外情報と久米村」, 池宮正治 編 『久米村: 歴史と人物』, ひるぎ社, 1993, 43-46쪽.

113) 眞栄平房昭, 「海外情報からみた琉球史の特質」, 『組合活性化情報』3, 1990, 7쪽.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9a.

114) 紙屋敦之, 「薩摩藩の琉球支配と中国情報」 図録 黎明館開館一五周年記念特別展 『海洋国家・薩摩一薩摩に鎖国はなかった』, 鹿児島県歴史資料センター黎明館, 1999, 再録 『東アジアのなかの琉球と薩摩藩』, 2013b, 164쪽.

115) 紙屋敦之, 「大君外交の海外情報ルート」, 岩下哲典·眞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岩田書院, 1997, 21-22쪽.

이에 대해 上原兼善은 唐之首尾御使者의 기능을 확장하여 해석하였다. 그는 진공사절의 上國 의무화가 단순한 淸 관련 정보보고 차원을 넘어, 진공사절이 구입한 물품의 관리와도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무역 운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관점은 정보전달 체계가 외교·무역 운영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다.<sup>116)</sup>

이처럼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류큐 경우 해외정보를 단순한 ‘사건보고’가 아니라, 진공사절->류큐왕부->사츠마번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전달 구조 속에서 이해해 왔다. 또한 류큐의 정보전달체계는 정보 수집, 인적 네트워크, 무역 관리가 상호 결합된 복합적 체계였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대체로 막번제 국가(사츠마번)의 해외정보 수집 체계라는 틀 속에서 류큐의 기능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 2.3. 사츠마 지배 구조 하 정보 자문 기능으로서의 류큐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큐 경우 해외정보는 진공사절의 唐之首尾御使者 파견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전달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류큐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 보고 절차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막부나 사츠마번이 중국의 정치·의례·제도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이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류큐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일정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眞栄平房昭의 『中華之儀二付申上候覚』<sup>117)</sup>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문서는 막부가 중국의 의례와 제도에 대해 사츠마번을 통해 문의한 사항에 대해 류큐 측이 답변한 기록으로, 류큐가 중국 관련하여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류큐가 수백 년에 걸쳐 지속해 온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류큐왕부가 명·청 왕조와의 외교 관계 속에서 의례, 외교 절차 및 견문에 대한 실질적 체험을 축적해 온 것은, 단순한 해외정보 획득과는 다른 차원의 역량을 보유한 것이며, 위의 보고를 통해 류큐가 중국정보를 전달하여 일본의 중국인식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류큐인들이 막부<sup>118)</sup>, 사츠마<sup>119)</sup><sup>120)</sup> 측과의 접촉을 통해 중국 정세와 의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 사례를 제시하며, 류큐인들이 단순한 정보보고의 제출을 넘어, 막부 및 사츠마번 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지식 교환 및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116) 上原兼善, 『境域の近世—慶長戦役後の琉球と薩摩』, 榕樹書林, 2023, 64-65쪽.

117) 徳川吉宗가 중국의 생생한 정보를 얻기위해 막부가 사츠마번에게 지시하였으며, 진공사절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류큐인들을 통해 정리하여 보고되었다.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c, 眞栄平房昭, 「琉球使節による中国見聞レポート内閣文庫所蔵「中華之儀二付申上候覚」をめぐって」, 『第四回琉中歴史関係国際学術会議. 琉中歴史関係論文集』, 1993.

118) 조영심, 「조선통신사와 류큐사절단의 筆談(對談)-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를 중심으로-」, 『溯上古典研究』41, 2014, 385-386쪽.

119) 사츠마번 유학자 赤崎楨幹는 1796년의 尚温왕의 사은사로 에도를 방문했던 류큐사절들과 가고시마에서 면담하였고, 그들에게 중국 견문에 대해 청취한 내용을 정리하여 1797년에 『琉客談記』를 집필하였다. 眞栄平房昭, 「清国を訪れた琉球使節の見聞録—『琉客談記』を中心に」, 『第八回 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2007. 『琉客談記』.

120) 1803년 류큐의 사자인 嘉味田親雲上經齋(楊文鳳)가 가고시마 류큐관에서 사츠마번사 石塚雀高와 대담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岩本真理, 「『琉館筆譚』翻訳, 注釈」, 『人文研究大阪市立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記喜』64, 2013.

조영심은 조선통신사 및 류큐사절 모두와 필담한 기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류큐사절들에 의한 류큐 및 중국정보를 제시하면서, 新井白石의 태도에 주목하며, 일본의 대외인식 속에서 조선과 류큐의 위상이 달랐기 때문에 하쿠세키의 질문 내용에도 그 인식의 차이가 반영되어있음을 지적했다.<sup>121)</sup>

하지만 류큐의 자문기능으로써의 전문성은 사츠마번의 지배 구조 속에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츠마번은 류큐를 통해 중국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막부의 질의에 응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다시 말해, 류큐의 중국 관련 자문기능은 사츠마번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류큐 경유 해외정보를 단순한 정보 전달 경로라는 관점에 더해, 지배 구조 속에서 형성·활용된 전문성이라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 2.4. 사건을 중심으로 복수경로를 비교·분석한 연구

마지막으로 근세 일본의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해외정보 유입의 복수 경로를 비교·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별 경로의 존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경로의 특성을 비교하며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로날드 토비는 삼번의 난을 사례로, 나가사키(唐·네덜란드), 쓰시마(조선), 사쓰마(류큐)를 통한 정보 유입을 비교하였다. 그는 류큐 경유 정보가 중국에 직접 다녀온 류큐인의 경험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절대적인 정보량은 적었지만, 일단 확보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는 류큐 정보의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sup>122)</sup>

국내의 연구자 중에서는 허지은이 『華夷變態』의 기록을 중심으로 특히 삼번의 난 당시의 규슈 지역의 정보수집 및 전달에 관하여 복수의 경로를 교차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류큐 정보가 다른 경로 정보와의 비교 및 교차 검증을 통해 막부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는 거리와 절차상의 제약, 그리고 삼번의 난으로 조공이 제한되면서 정보 유입 경로가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지적하였다.<sup>123)</sup>

이처럼 복수 경로 정보유입에 대한 분석은 류큐 경유 정보를 단독으로 평가하기보다, 다른 경로와의 비교 속에서 그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류큐 경유 정보는 양적으로는 제한적이었으나, 특정 조건하에서는 질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경로로 기능하였으며, 동시에 국제 정세에 따라 취약성을 드러내는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 2.5. 선행연구의 성과 및 과제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류큐 경유 해외정보를 주요 사건, 정보 전달자와 네트워크, 자문 기능과 전문성, 그리고 복수 경로 비교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왔다. 이를 통해 류

121) 조영심, 위의 논문, 2014, 385-386쪽.

122)ロナルド・トビ, 速水融・永積洋子・川勝平太訳, 『近世日本の国家形成と外交』, 創文社, 1990, 117-134쪽.ロナルド・トビ, 위의 책, 2008, 139-141쪽.

123) 허지은, 「근세일본의 규슈지역 대외창구와 중국관련 정보-華夷變態 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70, 2020, 56-57쪽.

류큐 근세 일본의 해외정보 수집 구조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도 연구는 정보 전달 체계의 안정성을 밝혔고, 정보의 입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자문 기능에 주목한 연구는 류큐가 단순한 중국정보의 전달자를 넘어 자문의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있음을 드러냈으며, 복수 경로의 분석은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질적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개별 기능이나 경로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류큐 경유 해외정보를 나가사키 경로의 정보 유입에 대한 보완적 역할로 이해하는 데 머무른 측면이 있다.

따라서 류큐 경유 해외정보를 단순한 전달 경로나 전문성의 축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츠마번의 지배 구조 속에서 형성·운용된 종합적인 정보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上原兼善이 제기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으며, 더 나아가 류큐왕부의 시점과 역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을 보완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다.

### 3. 류큐경유 해외정보

그렇다면 류큐 경유 해외정보는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전달되었을까. 대부분의 시기에 입수된 정보는 北京에 파견된 진공사절과 진공사절단의 일원으로써 상경하지 않고 福州에 잔류<sup>124)</sup>하고 있는 류큐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귀국 후에 보고한 것이며, 대부분의 류큐 경유 해외정보는 여기에 속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직접 입수된 정보를 중심으로 해외정보를 논의해 왔다. 그러나 류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외국 세력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는 넓은 의미에서 해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자문기능까지 포함하여 류큐를 경유한 정보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류큐경유 해외정보가 가지는 특징을 선행연구의 성과에 입각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덧붙이면 ‘류큐정보’와의 구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고는 류큐를 경유한 해외 정세의 정보보고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류큐 자체에만 관련된 기록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 3.1.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전달 방법

류큐경유 해외정보가 전달되는 방법은 다양하였으며, 이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왕조에 2년 1공을 수행하는 진공사절단 일원(唐之首尾御使者)에 의해 보고된 정보이다. 1611년부터 唐之首尾御使者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고, 정례화되기 이전에도 중국관련 정보가 보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唐之首尾御使者는 삼번의 난을 계기로 1678년부터 정례화(관례화)되었다. 唐之首尾御使者는 1870년까지 이어졌으며 진공사절은 귀국 후 가고시마에 上国使者<sup>125)</sup>(唐之首尾御使者)로 파견되어 진공사

124) 류큐의 진공사절단은 보통 200명 정도로 구성되었지만, 北京까지 갈 수 있는 인원은 정사·부사 포함 20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그 외에는 진공사절이 복귀할때까지 福州 琉球館에 체재하였다. 紙屋敦之, 「北京の琉球使節」, 『歴史手帖』23-6, 1995, 再録 『東アジアのなかの琉球と薩摩藩』, 校倉書房, 2013a, 243쪽.

절을 수행한 기간 동안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사츠마번에 보고하였다.<sup>126)</sup>

류큐경유 해외정보 중에는 류큐왕부로 파견된 비정기적인 使者에 의해 알려진 정보들도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삼번의 난 당시 福州의 靖南王 耿精忠이 1676년 6월에 사자 陳忞昌을 류큐로 파견하여 硫黃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陳忞昌은 6월 27일에 류큐에 도착하여 왕부에 해당 내용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내용을 막부의 老中들은 7월 28일자 서한으로 받았고, 막부가 유황을 제공해도 좋다는 답변 문서를 보낸 날짜가 9월 3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27)</sup> 막부의 답변을 받은 류큐왕부는 陳忞昌에게 유황을 제공하였고 그는 11월 24일에 류큐를 떠나 福州로 돌아갔다.<sup>128)</sup>

이 요청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류큐왕부가 사츠마번에 보고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다.<sup>129)</sup> 사츠마번이 이를 막부에 보고하고 막부가 답변하기까지 약 1개월<sup>130)</sup>이 걸렸다. 이후 막부의 회답이 사츠마번을 거쳐 류큐에 전달되고, 유황이 제공되어 귀국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陳忞昌이 류큐에 도착한 후 막부의 승인을 받은 후 유황을 제공받고 귀환하기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삼번의 난의 정세(靖南王측 주장)가 간접적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막부는 기존에 보고받은 다른 경로의 정보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황을 제공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류큐왕부로 보고된 정보 중에 류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외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1620-30년대에는 당시 필리핀(ルソン)·대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스페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류큐의 섬들에 우선 크리스티교를 포교하고, 점차적으로 교세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에 크리스티교를 침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당시 류큐는 대외적으로는 異國로 취급되었으나, 이러한 시도로 인해 キリシタン禁制의 최전선이자 일본을 방어하는 방파제로 인식되었다.<sup>131)</sup> 1630년대에 류큐의 섬(주로 八重島)에서 크리스티교 포교를 위해 잠입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었고, 그 결과 막부에 의해 류큐에서의 크리스티교 신자에 대한 색출 및 탄압과 연안경비(海防)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뿐 아니라 島原·天草一揆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막부는 1639년에 포르투갈과도 최종적으로 관계를 끊으면서 서양세력 중에는 네덜란드에 한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sup>132)</sup>

그 외에도 류큐에 漂着한 선박에 의해 수집되는 해외정보도 있었으며, 막부 말기에 浦賀로

125) 사츠마번의 류큐침공 이후 류큐왕부로부터 사츠마번에 파견된 사자를 총칭함. 山田哲史, 「上国使者一覽 - 中山世譜附卷による分類・整理 - 」 『史料編集室紀要』23, 1998, 1쪽.

126) 紙屋敦之, 위의 논문, 2013b, 163쪽. 上原兼善, 위의 책, 2023, 64-65쪽. 真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c, 346쪽.

127) 『鹿兒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1, 1683号.

128) 『鹿兒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1, 1729号.

129) 당시 관련 유황 요구 관련 보고를 위해 파견된 사자 高嶺親雲上良延(祖氏)가 7월 22일에 사츠마에 도착하였다. 『大和江御使者記』. 『中山世譜』附卷二.

130) 1676년은 번주 島津光久가 参勤交代를 마치는 해였다. 그 해 5월 22일에 에도에서 가고시마를 향해 출발하여, 6월 16일에 후시미에 도착했고, 7월 2일에 오사카로부터 배로 출발하였으며, 7월 25일에서야 영지인 脇本에 도착하여 8월 4일에 가고시마로 귀성하였는데,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막부로 보고된 7월 28일자 서한은 脇本 도착 후에 島津光久에게 보고되어 작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鹿兒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1, 1662号. 木土博成, 「島津氏の参勤に対する大阪「船除」」,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a, 322쪽.

131) 木土博成, 「海禁政策は琉球を対象とするか」, 『歴史学研究』967, 2018, 再録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c, 141-158쪽.

132) 真栄平房昭, 「鎖国形成期のキリシタン禁制と琉球—徳川政権のマニラ出兵計画の背景—」, 内健次 編 『鎖国日本と国際交流上巻』, 吉川弘文館, 1988,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b, 23-36쪽.

향하기 전에 那覇에 기항한 페리 제독의 함대로부터도 뛰어난 언어능력을 가진 통역인 板良敷親雲上(후일의 牧志親雲上朝忠, 向永功)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하여 페리 함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보고되었다. 특히 막부 말기에는 서양함대가 지속적으로 류큐에 기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sup>133)</sup>

네 번째는 문헌의 형태로 전래된 정보이다. 류큐의 진공사절에 의해 중국 서적들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지식의 축적으로 이어졌다. 예컨대 名護親方寵文(程順則)은 1707년 강희제의 민중교화서 『六諭衍義』 등을 직접 가지고 돌아와 사츠마번에 헌상했고 번주 島津吉貴가 막부에 헌상하면서 이 책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자신도 漢詩集 『雪堂燕遊草』 등을 통해 중국 견문에 관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sup>134)</sup> 중국의 서적은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唐船에 의해 서도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일본인들이 중국에 무지한 것은 아니었다.<sup>135)</sup> 하지만 나가사키에서는 중국상인들과 무역만 가능했다. 상인들에 의해 보고되는 중국 정보도 있었지만, 직접 교류는 제한되었으며, 일본인의 중국 渡航도 불가능했으므로 그로 인해 당대의 현실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에 제한이 있었다.

문헌 전래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과거 지식의 수용이었기 때문에, 막부는 필요에 따라 류큐사절과의 문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당대의 중국 정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sup>136)</sup> 1609년 이후 사츠마번에 의한 류큐의 지배가 시작되면서 류큐도 일본의 막번제의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사츠마번의 지배를 받는 ‘異国’으로도 남아있던 류큐에서는 將軍의 교체 시에 慶賀使, 류큐왕의 교체 시에 謝恩使를 보내게 된다.<sup>137)</sup> 이 사절들이 江戸로 파견되면서(江戸立) 막부의 관계자들과 筆談 등을 통해 소통하여 이를 통해 막부의 관계자들이 류큐정보 및 중국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쇼군의 측근이었던 新井白石은 1710년과 1714년에 류큐사절들과의 필담을 통하여 『白石先生琉人問對』를 남겼다. 하쿠세키의 질문에는 문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사정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138)</sup> 그 외에도 1796년 尚溫王 즉위에 대한 謝恩使로 에도를 방문한 류큐사절단의 屋富祖親方(鄭章觀), 渡具地親雲上(蔡邦錦)이 사츠마번의 유학자 赤崎植幹(海門)과 면담하였는데, 이들은 北京의 國子監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학문에도 뛰어나었다. 赤崎는 이들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琉客談記』을 집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본인의 중국인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sup>139)</sup>

133) 板良敷親雲上은 이 당시 약간의 영어도 가능했지만, 이 당시 대부분의 소통은 중국어로 이루어졌다. 그는 北京에 3년간 체재하여 중국어를 익혔고(國子監에 유학한 官生은 아니었다), 귀국하여 与世山親方(東順法)에게 영어를 배워 通事로써 비범한 재능을 발휘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20a, 402-403쪽. 赤嶺誠紀, 『大航海時代の琉球』, 沖縄タイムス社, 1988, 42-43쪽. 眞栄平房昭, 위의 강연록, 2004, 11쪽.

134) 쇼군 徳川吉宗가 『六諭衍義』의 和解를 명하면서 1721년에 『官刻六諭衍義』가 출판되어 서민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眞栄平房昭, 「琉球使節の異国体験—中国大陆三千キロの旅—」永積洋子 編 『「鎖国」を見直す』, 山川出版社, 1999b, 98쪽.

135) 大庭脩, 『江戸時代における中国文化受容の研究』, 角川書店, 1984, 31-32쪽.

136)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3, 522쪽.

137) 류큐사절의 성립에 관해서는 기존에 紙屋敦之의 1634년의 사절을 통해 ‘幕藩体制の中の異国’으로써 류큐의 지위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입장과 豊見山和行의 1644년을 賀慶使·恩謝使의 画期로 보는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木土博成은 1644년을 류큐사절의 효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木土博成, 「琉球使節の成立一幕・薩・琉関係史の視座から—」, 『史林』99-4, 2016, 再録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b, 29-57쪽.

138) 조영심, 위의 논문, 360-374쪽.

139) 眞栄平房昭, 「清国を訪れた琉球使節の見聞録—『琉客談記』を中心に—」, 『第八回 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

쇼군 徳川吉宗도 중국법제와 관료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나가사키로부터 유입된 漢籍을 바탕으로 막부의 유학자들을 동원하여 중국의 문헌연구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요시무네는 사츠마번을 통해 류큐왕부로 지시하여 진공사절로 파견된 경험이 있는 인원들에게 청조의 ‘政令·風俗’ 등에 관한 견문정보를 정리하여 보고하게 하였고 이것이 34개조의 짧은 조목으로 정리된 「中華之儀ニ付申上候覺」이다. 「中華之儀ニ付申上候覺」은 위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보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필요시에 언제든지 류큐를 통해 위와 같은 방식의 자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막부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류큐를 정보자문 창구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40)</sup>

막부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류큐를 통하여 해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처럼 류큐경유 해외정보는 정례적·비정례적 경로, 발생한 사건 정보, 문헌 전래와 필담, 자문에 이르기 까지 다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 3.2.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특징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성과 공적인 성격에 있었다. 北京에 파견된 進貢使節에 의한 北京의 정보와 더불어 福州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들에 의해서도 福州 인근의 정세가 수집되었다. 이들은 현지 체재 중에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정보를 보고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성이 높았으며, 민간 상인들과 달리 외교사절의 공적 지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류큐 자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외국이 류큐에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해외정세가 파악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일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판단에 참고 될 수 있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류큐를 통한 정보는 막부의 정보입수체계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한 축을 이루었다. 나가사키로 입항하는 唐船을 통해 얻는 정보가 양적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의 질도 나쁘지 않았지만 막부는 조선·류큐·네덜란드 등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통해 동일한 사건이라도 복수의 정보를 확보하여 교차검증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였다. 사츠마번은 류큐경유 정보를 통해 다른 번들보다 정보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막부는 필요에 따라 사츠마번을 통해 류큐에 문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중국 정보를 확보하였다. 1712년 막부는 사츠마번에게 류큐와 청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결과는 1714년에 막부에 보고되었다.<sup>141)</sup> 그뿐 아니라 1718년에도 徳川吉宗의 慶賀使로 江戸를 방문한 사절들 중 北京에 진공사절단 경험이 있는 류큐인들에게 ‘政令·風俗’ 등 견문정보를 자문하였고, 그 답변은 1719년에 「中華之儀ニ付申上候覺」로 보고되었다. 이는 류큐가 단순한 정보 제공통로가 아니라 필요시 자문창구로도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42)</sup>

그러나 류큐 경유 해외정보에는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했다. 무엇보다 중국정보의 주요 정보원이 2년 1공의 정례적인 진공사절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진공사절단이 福州을 출발해서 北京까지 도착하는데만 2-3개월이 소요되고, 北京에서도 1-2개월 체재하였다. 그러므로 那覇를

シンポジウム論文集』, 2007, 125쪽.

140) 真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3, 521쪽.

141) 『鹿兒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3, 398号.

142) 紙屋敦之, 위의 논문, 2013b, 164쪽. 真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3, 520-522쪽.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데까지 시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게다가 사츠마번은 에도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곳이라는 점 때문에, 류큐에서 사츠마번을 거쳐 에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까지 더하면 정보의 시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sup>143)</sup>

류큐의 진공사절단은 중국연안의 해적들에 의해 습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명·청 교체기에는 네덜란드 및 반청세력인 鄭成功 휘하의 해적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1670년으로 東寧國의 鄭經이 지휘하는 해적들에게 습격받아 積荷를 빼앗기고 승조원들도 대부분 살해당하고 살아남은 일부는 잡혀가면서 소식이 끊기기도 했다.<sup>144)</sup> 1673년에 파견된 진공사절<sup>145)</sup>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蘇州에 이르렀을때 耿精忠의 반란의 소식을 들었으며 난의 여파로 蘇州에 체재하였다. 이 사절단이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3년 뒤의 일로 1676년 9월에 耿精忠이 항복하고 나서야 가능했다.<sup>146)</sup> 중국에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가 가장 필요할 때이지만, 류큐의 진공사절단에게는 정보전달 경로 자체가 차단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852년<sup>147)</sup>과 1855년<sup>148)</sup>에 파견된 사절의 경우에는, 1853년 태평천국의 南京 점령으로 인하여 기존의 귀환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우회경로를 통해 무사히 福州에 복귀하여 이후 태평천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사실 위와 같은 제한은 다른 경로의 정보원에게도 발생했다. 태평천국의 여파로 唐船이 1852년 12월부터 1854년 7월까지 나가사키로 입항하지 않음에 따라, 南京 점령에 관한 정보의 전달에는 류큐와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일본 근세의 정보수집 체계에서 특정 경로가 차단되어도 다른 경로가 보완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149)</sup>

이와 같이 류큐경유 해외정보는 지리적 거리와 정례사절 의존 등의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었으나, 현장성이 높고 공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른 창구와의 교차검증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류큐는 근세 일본의 정보입수의 창구로 충분히 기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143) 深澤秋人, 「琉球使節の北京滞在期間— 清朝との通交期を中心に」, 『沖繩国際大学総合学術研究紀要』8, 2004, 66-75쪽.

144) 결국 이 사건은 사츠마번을 통해 막부에도 보고되었으며, 막부에서 나가사키로 온 東寧國에게 은 300관을 배상하라고 하여 사츠마번이 받아 류큐에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이 사건 자체는 일단락되었지만, 이후로도 해적들의 습격은 끊이지 않았다. 眞栄平房昭, 「一七世紀の東アジアにおける海賊問題と琉球」, 『経済史研究』4, 2000b, 39-44쪽.

145) 이때도 福州 앞바다에서 해적선 13척의 습격을 받았으며 치열한 전투 끝에 격퇴하였지만,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都通事 古波蔵親雲上(程泰祚)은 함께 상경하여 진공임무까지는 수행하였지만 사절단이 삼번의 난으로 귀국경로가 막혀 蘇州에서 체재하였으며,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1676년에 蘇州에서 사망했다.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2000b, 45쪽.

146) 당시 1673년에 파견한 류큐왕부의 진공사절(정사 名喜眞親雲上(吳美德))이 상경하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蘇州에서 耿精忠의 반란 소식을 듣고 그대로 蘇州에 체재하여 3년째 귀국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福州에 남아있던 진공사절의 일원들은 耿精忠에게 안전을 보장받고 6월에 먼저 류큐로 귀국하였다.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85, 47-48쪽. 渡辺美季, 「近世琉球と明清交替」, 『近世琉球と中日関係』, 吉川弘文館, 2012, 109-111쪽.

147) 眞栄平房昭, 위의 논문, 1990a, 317-318쪽.

148) 당시에 태평천국군 및 도적들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경하여 진공을 무사히 마치고 1856년 귀국하여, 생생한 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수 있었다. 이때 귀국 중 가고시마로 표착하였는데, 深澤秋人は 이 때의 가고시마 표착을 의도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深澤秋人, 「琉唐船の薩摩領内漂着」, 『近世琉球中国交流史の研究』, 榕樹書林, 2011, 345쪽.

149) 松尾晋一, 「太平天国の戦況と長崎」, 長崎県立大学国際交流研究センター 『東アジア評論』16, 2024, 1쪽.

## 4. 당면 연구 진행 방향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唐之御首尾使者에 의한 정보보고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정례적인 정보보고이므로 선행연구에서의 접근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唐之御首尾使者 자체의 성격과 인적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정보의 ‘내용’은 제시하였지만, 정보를 전달한 ‘주체’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당면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류큐경유 해외정보의 전달자였던 唐之御首尾使者의 실체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류큐에서 사츠마번에 파견한 上國使者를 중심으로 『歷代寶案』, 『中山世譜』, 『大和江御使者記』의 기록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절이 진공사절단의 正使·副使였는지, 혹은 그 외의 인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한 내용과 주변기록들을 통해 唐之御首尾使者가 단순한 정보보고의 사절이었는지, 아니면 上原兼善의 주장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678년을 정례화(관례화)의 시점으로 보는 기존의 이해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唐之首尾御使者에 대한 기록은 1611년<sup>150)</sup>과 1615년에도 확인되나, 이후로는 해당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678년부터 정기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중국 정세를 보고하는 使者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sup>151)</sup> 사츠마번주 島津光久는 막부 老中 阿部重次の 1646년 12월 6일자 서한을 통해 ‘명의 정세에 대해서 알게되면 비록 풍설<sup>152)</sup>이라도 전해진 것을 급히 보고해 줄 것’<sup>153)</sup>을 요청 받았다. 이 시기 막부에서는 鄭芝龍의 乞師에 대하여 참전 여부가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다.<sup>154)</sup> 류큐에서는 1649년에 ‘中國變亂之様子被仰出候御使者’를 번에 파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명칭은 달랐지만 정보보고 기능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sup>155)</sup> 따라서 당면 연구에는 정례화 이전 단계까지 시야를 확장하여, 제도의 형성과정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가 막부의 시각에서 류큐경유 정보의 나가사키 유입 정보의 보완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면, 당면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류큐왕부의 입장 또한 고려하고자 한다. 중국의 정세변동은 물가와 무역환경의 요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류큐왕국의 무역성과와도 직결되었다. 따라서 중국 관련 정보는 막부 뿐 아니라 류큐왕부에서도 중요한 요인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진행에 있어 唐之首尾御使者를 단순한 정보 전달자로 보는 기존 이해를 넘어, 그 제도적 기능과 의의를 재고찰하고자 한다.

150) 1610년에 사츠마번의 류큐침공 후 明과의 관계의 단절을 우려하여 진공사절로 池城親方安頼(毛鳳儀)를 명에 입공시켜, 귀국 후인 1611년에 그 전말에 대해 보고시켰다. 紙屋敦之, 위의 논문, 2013b, 164쪽.

151) 『大和江御使者記』.

152) 이 기록에서 ‘풍설’의 의미는 ‘해외정보’라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소문’의 의미로 보인다. 佐藤隆一, 위의 책, 2014, 4-6쪽.

153) 眞榮平은 해당 서한을 正保 4년(1647년) 12월 서한으로 기술하였으나, 원문은 正保 3년(1646년) 12월로 되어있다. 眞榮平房昭, 위의 논문, 2020c, 346쪽. 『鹿兒島県史料 旧記雜録追録』1, 113호.

154) 해당 기록에는 정지룡을 平戸一官이라고 표현하였다. 『鹿兒島県史料 旧記雜録追録』1, 98호.

155) 平川親雲上(蔡祚隆), 小波藏親雲上(才府杜氏)이 파견되었다. 『大和江御使者記』.

## 5. 맺음말

본고는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에 대해, 그 전달 방식과 구조적 특징을 재검토하고, 특히 핵심 전달자였던 唐之首尾御使者의 제도적 성격을 재고찰하고자 하는 당면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근세 일본은 막부에 의해 1630년대 이후 자국민의 해외 도항을 금지했지만,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창구인 ‘四つの口’를 통해 조선(츠시마), 류큐(사츠마), 네덜란드·중국(나가사키), 에조치(마츠마에)와 연결되어 있었다.

막부의 대외인식을 살펴보면 1804년 러시아의 레자노프의 통상 요구를 거절할 당시 일본의 通信·通商의 대상은 조선, 청, 류큐, 네덜란드에 한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는 어느 나라가 通信의 대상이고 通商의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이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 1845년에 네덜란드로의 답서이다. 1844년에 네덜란드왕 윌리엄 2세가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막부에 기존의 대외정책 자세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는데 이때 “通信은 조선, 류큐에 한하고, 通商은 귀국(네덜란드)와 중국(청)에 한하며 그 외에는 일체 새로운 통교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며 통신·통상국을 명시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근세 일본(막부)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sup>156)</sup> 이와 같은 대외 인식 속에서 류큐는 통신의 대상인 異國로 인식되었지만, 사츠마번에 속하기도 하였고, 중국과 조공·책봉체제로 연결되어있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본고에서 기존 연구가 정보의 ‘내용’에 주목해 온 데 비해, 그 전달자였던 唐之首尾御使者의 실체에 주목하여, 1678년을 정례화의 시점으로 보는 기존 이해를 재검토하고, 명칭이 정립되기 이전 단계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唐之首尾御使者를 단순한 보고 사절이 아니라, 제도화 과정 속에서 복합적인 기능의 가능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막부 중심의 시각을 넘어, 류큐왕부의 입장에서 중국 관련 정보가 갖는 의미를 함께 고찰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중국 정세의 변동은 류큐의 무역 구조와 재정 운영에 직결되었으며, 따라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류큐왕부에게도 중요한 정치·경제적 자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조선경유 해외정보와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류큐경유 해외정보는 조선경유 해외정보와 더불어 중국 관련 정보가 경유하여 유입되는 경로였다는 점에서 비교하기에도 적절한 대상이다.

막부는 나가사키에 입항하는 唐船에서 입수한 정보 중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沓馬藩을 통해 매년 수차례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조선에 추가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자인 조선은 일본으로의 정보 유출에 대해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sup>157)</sup> 공식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선별된 것<sup>158)</sup><sup>159)</sup>이었으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말단관리들까지 함

156) 蝦夷地는 통신·통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ロナルド・トビ, 위의 책, 2008, 92-93쪽.

157) 김강일, 「왜관의 기능」,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 연구』, 경인문화사, 2020, 133-135쪽.

158) 로날드 토비는 삼번의 난 당시 4곳의 정보제공 창구에 대해 중국정보가 조선을 거치면서 조선정부에 의해 선택된 정보가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청과 같은 편으로 움직일 수 있을만한 정보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도까지 도달하는 정보는 한성에 도달하는 정보에 비해 매우 적었다고 분석하였다.ロナルド・トビ, 위의 책, 1990, 123-124쪽.

159) 米谷均는 위의 로날드 토비의 분석을 인용하며, 조선경유 중국정보는 北京에서 얻은 공식정보와 항간에 떠도는 소문 등이 포함되어 다른 류큐, 나가사키(唐船·네덜란드)에서 얻을 수 없는 북방정보가 전해지지만

구하는 경우도 많았다.<sup>160)</sup> 이로 인해 조선경유 정보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것이 많았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sup>161)</sup> 실제로 対馬藩 측에서도 조선 측 진술이 과장되었다거나<sup>162)</sup> 정확성에 대해 의심<sup>163)</sup>하고 있었던 인식이 보인다.

반면, 류큐경유 정보는 진공사절이라는 정례적 외교 구조 속에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조선경유 정보와 성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류큐는 모두 ‘경유지’라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대청 관계의 구조, 일본과의 종속 관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제공하는 정보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양 경로의 정보 수집 방식,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근세 일본의 중국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자인 김강일, 허지은과 해외연구자인 로날드 토비, 松尾晋一, 米谷均, 程永超<sup>164)</sup>, 木村可奈子<sup>165)</sup> 등의 조선경유 해외정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양 경로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각각의 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류큐경유 해외정보를 단일 경로의 연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근세 일본의 복합적인 정보망 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사료

- 『鹿児島県史料 旧記雑録追録』
- 『外務省 電受』
- 『清実録』
- 『中山世譜』(蔡温本)
- 『大和江御使者記』
- 『琉客談記』
- 『歴代宝案』

---

崇高排清적인 감정으로부터 오는 정보의 왜곡이나 츠시마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고의로 정보를 유보시키는 등으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米谷均, 「対馬口における朝鮮・中国情報」, 岩下哲典·真栄平房昭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1997, 124-125쪽.

160) 츠시마번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외에도 역관, 상인 등 다양한 인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 지불도 확실했기 때문에 츠시마번으로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갔고 조선정부에서도 정보가 누설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강일, 위의 논문, 2020, 134-152쪽.

161) 松尾晋一, 「『華夷変態』と対馬宗家からの「唐兵乱」情報」, 『長崎県立大学国際社会学部研究紀要』1, 2016, 10쪽. 松尾晋一,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の入手ルートと質-朱一貴の乱(台湾)情報を事例に」, 『長崎市長崎学研究所紀要』『長崎学』創刊号, 2017, 31쪽.

162) 허지은, 「朝鮮語通詞의 정보수집 경로와 내용」,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86-87쪽.

163) 김강일, 위의 논문, 2020, 159쪽.

164) 程永超, 『華夷変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国三国関係史の研究』, 清文堂出版, 2021.

165) 木村可奈子, 「三藩の乱時期の日本の情報収集活動と朝清関係」, 『東アジア多国間関係史の研究: 十六-十八世紀の国際関係』, 思文閣出版, 2024.

논저

김강일, 「왜관의 기능」,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 연구』, 경인문화사, 2020.

신동규, 「중근세 일본의 사찬지도(私撰地圖)로 본 ‘삼도영토관(三島領土觀)’」, 『근세 일본의 국제관계와 대외인식』, 경인문화사, 2024.

조영심, 「조선통신사와 류큐사절단의 筆談(對談)-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를 중심으로-」, 『泐上古典研究』41, 2014.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지음, 김만수 옮김, 『전쟁론』, 갈무리, 2016.

허지은, 「朝鮮語通詞의 정보수집 경로와 내용」,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 경인문화사, 2012.

허지은, 「근세일본의 규슈지역 대외창구와 중국관련 정보-華夷變態 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70, 2020.

赤嶺誠紀, 『大航海時代の琉球』, 沖繩タイムス社, 1988.

岩本真理, 「『琉館筆譚』翻字, 注釈」, 『人文研究大阪市立大争大学院文学研究科記喜』64, 2013.

上原兼善, 『境域の近世一慶長戦役後の琉球と薩摩』, 榕樹書林, 2023.

大庭脩, 『江戸時代における中国文化受容の研究』, 角川書店, 1984.

紙屋敦之, 「西と東の異域」, 『大君外交と東アシ』, 吉川弘文館, 1997.

紙屋敦之, 「北京の琉球使節」, 『歴史手帖』23-6, 1995, 再録 『東アジアのなかの琉球と薩摩藩』, 校倉書房, 2013a.

紙屋敦之, 「大君外交の海外情報ルート」, 岩下哲典・真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岩田書院, 1997.

紙屋敦之, 「薩摩藩の琉球支配と中国情報」, 図録 黎明館開館一五周年記念特別展 『海洋国家・薩摩一薩摩に鎖国はなかった』, 鹿児島県歴史資料センター黎明館, 1999, 再録 『東アジアのなかの琉球と薩摩藩』, 校倉書房, 2013b.

木土博成, 「島津氏の参勤に対する大阪「船除」」, 『大阪歴史博物館研究紀要』13, 2015, 再録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a.

木土博成, 「琉球使節の成立一幕・薩・琉関係史の視座から」, 『史林』99-4, 2016, 再録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b.

木土博成, 「海禁政策は琉球を対象とするか」, 『歴史学研究』967, 2018, 再録 『近世日琉関係の形成: 附庸と異国のはざままで』, 名古屋大学出版会, 2023c.

木村可奈子, 「三藩の乱時期の日本の情報収集活動と朝清関係」, 『東アジア多国間関係史の研究: 十六一十八世紀の国際関係』, 思文閣出版, 2024.

佐藤隆一, 『幕末期の老中と情報一水野忠精による風聞探索活動を中心に一』, 思文閣出版, 2014.

程永超, 『華夷變態の東アジア: 近世日本・朝鮮・中国三国関係史の研究』, 清文堂出版, 2021.

深澤秋人, 「琉球使節の北京滞在期間一 清朝との通交期を中心に」, 『沖繩国際大学総合学術研究紀要』8, 2004.

深澤秋人, 「琉唐船の薩摩領内漂着」, 『近世琉球中国交流史の研究』, 榕樹書林, 2011.

真栄平房昭, 「近世琉球の対中国外交-明清動乱期を中心に」, 『地方史研究』197, 1985.

真栄平房昭, 「幕末期の海外情報と琉球一太平天国の乱を中心に一」, 地方史研究協議会 編, 『琉球・沖繩一その歴史と日本史像一』, 雄山閣出版, 1987, 再録 保谷徹 編, 『幕末維新と情報』, 2001.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a.

- 真栄平房昭, 「鎖国形成期のキリシタン禁制と琉球—徳川政権のマニラ出兵計画の背景—」, 内健次 編 『鎖国日本と国際交流上巻』, 吉川弘文館, 1988,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b.
- 真栄平房昭, 「近世日本の国際認識についての一視点」, 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会議 編 『文明のクロスロード MUSEUMKYUSHU』32, 1989.
- 真栄平房昭, 「太平天国の乱と琉球」, 『新琉球史 近世編(下)』, 1990a.
- 真栄平房昭, 「海外情報からみた琉球史の特質」, 『組合活性化情報』3, 1990b.
- 真栄平房昭,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と琉球の位置」, 『思想』796, 1990,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c.
- 真栄平房昭, 「海外情報と久米村」, 池宮正治 編 『久米村: 歴史と人物』, ひるぎ社, 1993.
- 真栄平房昭, 「琉球使節による中国見聞レポート内閣文庫所蔵 「中華之儀二付申上候覚」をめぐって」, 『第四回琉中歴史関係国際学術会議. 琉中歴史関係論文集』, 1993.
- 真栄平房昭, 「琉球の海外情報からみた東アジア」 琉球王国評定所文書編集委員会 編 『琉球王国評定所文書第一二巻』, 浦添市教育委員会, 1996, 再録 『琉球海域史論(下)』, 2020d.
- 真栄平房昭, 「琉球の海外情報と東アシ・アー九世紀の中国情勢をめぐって」, 岩下哲典・真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報』, 1997a.
- 真栄平房昭, 「東アシ・ア海外情報と琉球ルート」, 中村質 編 『開国と近代化』, 吉川弘文館, 1997b.
- 真栄平房昭, 「アヘン戦争前後の東アシ・国際関係と琉球」, 『第四回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1999a.
- 真栄平房昭, 「琉球使節の異国体験—中国大陸三千キロの旅—」, 永積洋子 編 『「鎖国」を見直す』, 山川出版社, 1999b.
- 真栄平房昭,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 『歴史地理教育』608, 2000a.
- 真栄平房昭, 「一七世紀の東アジアにおける海賊問題と琉球」, 『経済史研究』4, 2000b.
- 真栄平房昭, 講演録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と琉球」,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研究紀要』10, 2004.
- 真栄平房昭, 「清国を訪れた琉球使節の見聞録—『琉客談記』を中心に—」, 『第八回 琉球・中国交渉史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論文集』, 2007.
- 松尾晋一, 『「華夷変態」と対馬宗家からの「唐兵乱」情報』, 『長崎県立大学国際社会学部研究紀要』1, 2016.
- 松尾晋一, 「近世日本における海外情報の入手ルートと質—朱一貴の乱(台湾)情報を事例に—」, 『長崎市長崎学研究所紀要「長崎学」』創刊号, 2017.
- 松尾晋一, 「太平天国の戦況と長崎」, 長崎県立大学国際交流研究センター 『東アジア評論』16, 2024.
- 松方冬子, 「1853(嘉永6)年の別段風説書蘭文テキスト」,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18, 2008.
- 山田哲史, 「上国使者一覧—中山世譜附巻による分類・整理—」, 『史料編集室紀要』23, 1998.
- 渡辺美季, 「近世琉球と明清交替」, 『近世琉球と中日関係』, 吉川弘文館, 2012.
- ロナルド・トビ, 速水融・永積洋子・川勝平太訳, 『近世日本の国家形成と外交』, 創文社, 1990.
- ロナルド・トビ, 『「鎖国」という外交』, 小学館, 2008.
- 米谷均, 「対馬口における朝鮮・中国情報」, 岩下哲典・真栄平房昭 編 『近世日本の海外情

報』, 1997.

【토론】

## 「근세 일본의 류큐경유 해외정보 -唐之首尾御使者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허지은(서강대학교)

발표자는 근세 일본의 해외정보 수집 체계 가운데 류큐를 경유하여 전달된 정보에 주목하고, 특히 진공사절단의 일원인 唐之首尾御使者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전달 구조와 특징을 검토하셨습니다. 근세 일본의 해외정보 유통 경로를 나가사키, 쓰시마, 마쓰마에, 사쓰마 등 여러 창구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해하려는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류큐 경유 정보에 주목한 본 발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공사절이라는 정례적 외교 구조 속에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선행연구 평가와 관련된 부분

p.6에서는 “기존연구가 류큐 경유 해외정보를 나가사키 경로의 정보 유입을 보완하는 역할 정도로 이해하는 데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관점을 제시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 해외정보의 범주와 관련된 부분

p.7 “류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외국 세력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는 넓은 의미에서 해외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p.8 “세 번째는 **류큐 왕부로 보고된** 정보 중에 류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외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해외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막부로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류큐에서 사쓰마번을 거쳐 막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대상으로 선택했는지, 혹은 보고 내용이 선별되거나 조정되었던 건 아닌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사실 보고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판단에 따른 선택적 전달 가능성에 대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 3. 정보 전달 과정과 관련된 질문

조선 경유 정보의 경우 조선 측에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 p.14에서는 이에 비해 “류큐 경유 정보가 진공사절이라는 정례적 외교 구조 속에서 비교적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류큐에서 사쓰마번을 거쳐 막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정보의 선택적 전달이나 누락, 혹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정보 조정의 가능성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4. 막부가 사쓰마번을 통해 류큐에서 수집된 정보를 보고받는 구조와 관련된 서술입니다. p. 5에서는 이를 두고 류큐를 “정보 자문 창구”로 활용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사례를 보면 막부가 사쓰마번을 통해 류큐에서 수집된 견문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자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p.10에서 막부가 사쓰마번을 통해 류큐와 청의 조공·책봉 관계에 대해 문의한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중국 관련 정보라기보다는 류큐와 청의 관계에 대한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마지막으로 몇 가지 표현과 표기와 관련된 부분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일본 인명·지명 등의 표기는 최초 등장 시 한글음을 병기한 뒤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일본어 표기 역시 현재 한국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기 방식(예: 쓰시마, 마쓰마에 등)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일본어 표현이 직접 제시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을 함께 제시하거나 번역 후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는 방식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다면 류큐 경유 해외정보의 성격과 그 전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 제4발표

# 식민지기 조선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김병규(金秉圭)를 사례로-

발표 : 김동명(국민대학교)

토론 : 김영미(전남대학교)

## 식민지기 조선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김병규(金秉圭)를 사례로-

김동명

### 1. 서론

정치적 행위는 궁극적으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 민의에 배타한 정치는 이것이 상도(常道)의 정치가 아니요. 임기응변의 정책이거나 위정자들의 횡포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공직자는 모름지기 개인의 사의를 초월하고 오로지 민중의 대표라는 각오 하에 민의를 여실히 표현하여야 될 것이니...<sup>166)</sup>

제국주의 지배 아래 식민지에서도 정치활동은 제한적이지만 존재했다. 제국주의 지배 권력은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식민지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유린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지배를 관철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고비용을 유발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식민지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또한 식민지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지배 권력을 적대시하고 타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다대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배 권력과 교섭과 타협을 통해 우월적이고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를 위해 지역사회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정치활동을 모색했다. 이에 실제로 지배 권력과 식민지민 사이에 행해진 정치활동은 양자 간의 불평등하고 불균형하면서도 다양한 교섭의 회로(channel)를 통해 전개되었다.<sup>167)</sup>

이 글은 이처럼 일본제국주의(이하 일제)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조선인의 정치활동을 김병규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식민지기의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모습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려 한다. 김병규는 동래면협의회 의원(1923, 26년), 경상남도평의회 의원(1927, 29년), 동래읍회 의원(1931, 35, 39년), 경상남도도회 의원(1933, 37년) 등을 역임한 동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다(괄호 안 숫자는 당선 연도).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일제가 만능적 지배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배를 관철할 수

166) 金秉圭, 「慶南道評議員의 補缺選舉에 際하여」, 『동아일보』, 1929년 8월 27일, 4면.

167) 並木真人, 「植民地期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 三谷博編, 『東アジアの公論形成』, 東京大学出版会, 2004年, 197-222쪽 참조.

있었다는 지배 권력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조선인의 정치활동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비타협적인 저항적 민족해방운동만이 연구 대상이 되고 타협적인 협력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정치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로 간주되어 아예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제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정치활동에 관해 지역유지, 지역유력자, 지역정치, 정치참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68)</sup> 이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밝히려는 노력이다. 강력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일제의 지배 권력은 조선의 정치세력의 협력을 얻어 안정된 지배를 지속하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정치세력이 계속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시 일방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의 정치세력은 지배 권력의 신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분점 받아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서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치력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지배 당국의 신망은 매우 가변적이었으며 주민들에게 배분할 사회적 가치는 그들의 점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일제 지배 권력과 조선의 정치세력이 각각 어려움을 안고 전개된 정치과정을 김병규의 정치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 권력과 정치세력이 대립과 타협, 갈등과 협상 등을 반복하며 여러 회로를 통해 벌어지는 정치과정에서 김병규가 어떠한 행동과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시민(주민)대회나 기성회, 유지간담회 등과 같은 비공식적 조직 운동과 자문기관 및 의결기관 등 공식적 제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분석이 행해졌다. 이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삶의 모습과 의미를 천착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이 글은 김병규를 사례로 그것을 규명하려 한다. 김병규를 사례로 택한 것은 그는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목을 끈 1929년 경상남도 예산안 반상 사건을 주도했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비교적 많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글은 김병규의 정치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첫 시기는 1903년경부터 1920년 직후까지로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교육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둘째 시기는 1920년대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동래면협의회와 경상남도 도평의회 민선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셋째 시기는 1930년대 이후로 동래읍회 의원과 도지사가 임명한 경상남도 도회 관선의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조선, 조선인 등 당시의

168) 지수걸, 「일제시기 충남 부여·논산군의 유지집단과 혁신청년집단」,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년; 홍순권, 『근대도시와 지방권력』, 선인, 2010년;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년;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 협의회와 지역정치」, 『역사문제연구』, No. 31, 역사비평사, 2014년; 전성현,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 『한일민족문제연구』, 제27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4년; 동, 「일제강점기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것'과 한계」, 『역사연구』, 제39호, 역사학연구소, 2020년; 김동명, 『지배와 협력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참여』, 역사공간, 2018년 등.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현대어로 고쳐 썼음을 미리 알려둔다.

## 2. 교육·계몽운동 시기

병합 직전부터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김병규는 주로 교육·계몽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병합 이후 1910년대에 정치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병규는 일제와 전면전을 피하면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 사회의 교육과 계몽운동에 가담했다.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지지를 얻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 1) 동래부학교 입학과 개양학교 설립

김병규는 1880년 부산 동래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울 여력도 없고 매일 기아와 싸울 정도였다. 이후 외가에 들어가 생활하고 연관 제작일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학문을 익혔다. 특히 외삼촌 이광욱에게 사사하며 그의 많은 장서를 독파하였다.<sup>169)</sup>

1898년 동래부학교가 개교하자 김병규는 19세의 나이에 입학하였다. 동래부학교는 신명록(辛明錄) 등 동래 유지들이 공립 한문소학교 안에 교실 하나를 얻어 문명개화를 위한 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문과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한 학교였다. 교원은 한국인 2명과 일본인 1명이었다. 한국인 교원이 한문을 가르쳤고 일본인 교원은 일본어와 산수를 가르쳤다.<sup>170)</sup>

1903년 동래부학교는 교사를 빌려 쓰고 있던 한문소학교가 폐지되고 학교 건물도 매각되자 재정 상황이 열악해져 폐교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김병규는 재학생들과 당시 부산에서 개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일본인 아라나미(荒波平治郎)를 찾아가 학교를 존속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라나미와 김병규는 동래부에 백방으로 교섭하여 동래서계소에 교사를 마련하고 1904년에 동래부학교를 흡수하여 개양학교를 설립하였다. 개양학교는 보통학교 과정에 일어 과목이 덧붙여진 3년제 학교로 2명의 일본인 교사가 있었다. 하지만 개양학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동래온천의 일본인 목욕탕 건물세와 개성학교를 통해 받은 일본 외무성의 보조금 등으로 교사와 직원의 월급을 겨우 충당할 뿐이었다.<sup>171)</sup>

설상가상으로 동래부가 목욕탕 부지를 일본인에게 몰래 팔려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1906년 5월 김병규는 학생 대표로 학부(學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생들은 어

169) 「立志傳の人金秉圭氏」, 『朝鮮時報』, 1925년 6월 6일, 1면; 東萊高等學校,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1978년(이하,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143-144쪽. 이광욱은 한말에서 식민지기에 동래지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며 명망가였다. 그는 한학과 경사에 정통하여 부호로서 상당한 양의 책을 소장했다. 또한 『芝田集』을 비롯한 여러 저작물을 남겼다(김동철, 「자료소개」 한말 東萊 芝田 李光昱 집안과 그의 문집 및 장서, 『향도부산』, 14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년 참조).

170)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30, 46쪽, 144쪽; 김석희, 「韓末 東萊府 私立東明學校의 設立과 運營」, 『한국민족문화』, 제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1년, 114-115쪽.

171)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47-48; 김석희, 앞의 글, 144-145쪽.

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하나는 개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해 줄 것과, 다른 하나는 목욕탕 부지를 개양학교에 영구히 귀속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후자의 진정이 받아들여졌지만 재정난이 계속되어 1907년 개양학교는 학생들은 삼락학교에 편입되고 폐교했다.<sup>172)</sup> 김병규는 학생 신분으로 개양학교 설립에 관여해 졸업 후에는 교편을 잡고 소사에서 교장까지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였다.<sup>173)</sup>

김병규는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 늦게 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열중했으며 학교 설립과 운영에도 적극 관여해 근대교육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 이때 익힌 일본어는 근대 문명의 수용은 물론 일본인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2) 대한자강회 동래지회 창립

대한자강회는 1906년 3월, 장지연, 윤효정 등이 교육 확장과 산업 발달을 통해 독립의 기초를 만들 목적으로 발기하였다. 법과 문명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지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며, 중앙회를 한성에 두고 지회를 주요 지방에 설치할 것 등을 회칙에 명시했다.<sup>174)</sup>

김병규는 대한자강회 설립 초기에 회장 윤치호, 고문 오가키(大垣丈夫), 평의원 15명, 간사원 8명과 함께 일반회원 122명 중 한 명으로 중앙회에 입회하였다.<sup>175)</sup> 입회 직후 그는 동래지회 창립을 주도해 1906년 8월 54명의 입회 청원서와 지회 설치 청원서를 중앙회에 제출했다. 중앙회는 동래지회 설치를 위해 시찰 위원으로 평의원 윤효정을 동래에 파견했다. 김병규는 윤효정과 함께 동래 입회 청원 임시회를 개최했다. 60여 명의 입회 청원인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규가 임시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윤효정이 대한자강회의 취지와 목적, 지회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sup>176)</sup>

한편, 대한자강회 중앙회는 시찰 위원의 보고를 통해 지회 회원 중 덕망과 지식을 갖춰 지회를 무리 없이 이끌어 갈 만한 3명 이상의 인물을 확인해야만 지회 설립을 인허했다.<sup>177)</sup> 당시 동래에서 이러한 3명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상은(李相昕), 윤철병(尹撤炳), 그리고 김병규의 외삼촌 이광옥이었다. 김병규 등은 10여 차례에 걸쳐 3명에게 입회를 권유했지만 그들은 고령 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김병규는 시찰 위원 윤효정을 대동하고 이상은을 방문해서 입회 설득에 나섰다. 윤효정은 시국에 대한 인식과 대한자강회의 취지와 목적, 지회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덕망으로 지회를 이끌어줄 것을 간청했다. 또한 김병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문 오가키의 장서를 전달했다. 이에 이상은이 입회를 승낙하자 이 소식을 들은 윤철병과 이광옥도 입회했다<sup>178)</sup>

172)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48-49쪽; 김석희, 앞의 글, 118쪽.

173) 앞의 「立志傳の人金秉圭氏」.

174)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1906년 7월, 10-11쪽.

175) 『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1906년 8월, 71-72쪽.

176) 『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1906년 9월, 43-44쪽; 『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1906년 10월, 42-43쪽.

177) 『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40쪽.

178) 『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43-45.

1906년 9월 대한자강회 중앙회는 윤효정의 시찰 결과를 보고받고 동래지회의 설립을 정식으로 가결했다. 동래지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56명의 회원명부를 공개하였다.<sup>179)</sup> 동래지회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조직되었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김병규가 있었으며 이는 중앙무대에 김병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교편 생활과 3·1운동

1907년 11월 개양학교를 흡수한 삼락학교가 동명학교를 개교하자 김병규는 초대 교사로 부임했다. 동명학교는 동래의 유지집단인 기영회(耆英會)가 중심이 되어 근대적인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부국을 이루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3년제 고등과와 2년제 초등과를 병설했는데 김병규는 교가를 작사했을 정도로 초창기 학교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이화, 역사, 지리, 체조, 수신, 도화, 창가 등의 과목을 가르쳤는데 1915년에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 의해 지리와 역사를 가르칠 수 없었다. 하지만 학감 김병규는 설립자의 승낙을 얻어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몰래 가르쳤다.<sup>180)</sup>

1916년 10월, 동명학교는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 따라 사립동래고등보통학교(이하, 동래고보)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김병규는 당시 교장 대리였다. 1918년부터 동래은행 지점장으로 활동하며 교편생활을 이어가던 중 1919년 3·1운동이 발발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동래고보 학생들도 적극 참여해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26명이 투옥되었다. 엄진영과 김귀룡이 주동자로 1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고, 김인호 등 9명이 1년, 김원룡 등 13명이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복역 중이던 김인호와 김성조가 병에 걸려 보석으로 나왔는데 치료를 받던 중 김성조가 사망했다.<sup>181)</sup>

이후 나머지 학생들이 형기를 채우고 석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의에 빠져 학교를 그만두어 1920년도 졸업생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관공서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동래고보 졸업생은 사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자 학교를 떠나는 재학생이 점점 늘어났다. 이때 학감이었던 김병규가 혼자 학교 숙직실에 앉아 있으면 절망한 학생들이 찾아와 아무 말도 없이 울먹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였다. 학교 운영도 점점 어려워져 교사들도 하나둘 떠났다.<sup>182)</sup>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학감 김병규는 1921년 동래고보를 서면으로 확장 이전하여 교남민립제일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려 하였다. 지역유지들의 호응도 잇따라 예정된 기부금이 모이는 듯했으나 동래를 떠나는 것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섰다. 또한 학교를 운영하는 기영회 내에서도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결국 기영회는 학교 이전 대신에 관립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김병규는 총독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경상남

179) 『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42, 47-48쪽; 『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73쪽.

180)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85-121쪽; 김석희, 앞의 글, 121-134쪽.

181)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124-132쪽.

182)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133-135쪽.

도 지사도 총독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1922년 4월부터 동래고보는 관립으로 전환되었다.<sup>183)</sup> 이에 김병규는 사립 동래고보의 마지막 교장으로 교편생활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섰다.<sup>184)</sup>

### 3. 민선의원 시기

일제는 3·1운동의 충격으로 조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적이지만 허용했다. 대표적으로 총독부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지방행정기관에 자문기관으로 부·도·지정면·보통면 협의회를 설치했다. 납세액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극도로 제한했지만 보통면 협의회를 제외한 부·도·지정면 협의회에서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을 선출했다(민선). 이로써 일제 지배 권력과 식민지 조선 사회는 일방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정치를 매개로 불평등하지만 양 자가 상호작용하는 정치과정이 생겨났다. 이에 김병규는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1923년 동래면이 지정면이 되어 면협의회 선거가 실시되자 김병규는 초대 의원에 당선되고 1926년에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1927년과 29년에는 경상남도 도평의회 민선 의원에 당선되었다. 도협의회는 조선인 의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과 함께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1) 다양한 정치활동

1920년 6월 김병규는 조선교육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조선교육회는 당시 총독부 주도의 동화주의 교육에 반대하고 조선 민족을 위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sup>185)</sup> 이에 대해 총독부는 같은 해 12월, 조선교육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목적으로 임시 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선교육회의 발기인 고원훈(高元勳)을 비롯해 조선인도 3명이 포함되었다. 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려는 조선인들이 1921년 4월 조선교육개선기성회를 조직하였다.<sup>186)</sup>

김병규는 조선교육개선기성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sup>187)</sup> 또한 부산에서 조선교육개선기성(동맹)회를 조직하고 경성에서 개최되는 제2차 교육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다. 김병규는 부산 예월회의 대표 자격으로 부산 유지 대표 김종범과 함께 진정 위원으로 선정되어 총독부를 방문해 교육조사위원회 위원장 정무총감 미즈노(水野鍊太郎)에게 이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사회의 흥망과 민족 성쇠는 교육제도에

183) 『동아일보』, 1921년 3월 13일, 3면, 1921년 3월 23일, 4면; 『每日申報』, 1921년 7월 4, 14, 29일, 8월 13일, 3면; 『東萊高等學校 八十年史』, 135-138쪽.

184) 『동아일보』, 1922년, 3월, 28일, 4면.

185) 『동아일보』, 1920년, 6월, 23일, 2면;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 2006년, 139-140쪽.

186) 김동명, 앞의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140-142쪽.

187) 『동아일보』, 1921년 4월 9일, 3면.

달려있다고 하며 총독부의 동화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교육시설의 확충과 조선어 사용의 확대 등을 주장했다.<sup>188)</sup>

1922년 총독부가 관립대학설립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견제로서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인의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발족하자 김병규는 발기인으로 참여했다.<sup>189)</sup>

1922년 12월 동래 면영 목욕탕 합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민대회가 개최되자 김병규는 「조건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동래면은 온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조선인들이 이용하는 목욕탕 설비가 미비하고 온천수가 부족해지자 면의 예산과 도의 보조비 및 기부금을 가지고 면영 목욕탕을 새로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동래군수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에 면영 목욕탕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합병할 것을 동래면에 제의했다.<sup>190)</sup>

동래면은 유지 단체인 월일회(月一會) 주최로 면민대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논의했는데, 면민들은 만철이 목욕탕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면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조선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 김병규는 「조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되어 만철과 균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서 목욕탕을 조선인 본위로 운영하고 대부분은 동래면이 영구히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sup>191)</sup> 그러나 교섭이 결렬되어 동래면은 면영 목욕탕을 예정대로 신축했으며 만철도 별도의 목욕탕을 운영하였다.<sup>192)</sup>

1923년 3월 김병규는 월일회 주최로 열린 동래면유지자대회에서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의 발기 취지 및 가능성을 설명했다. 같은 대회는 만장일치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간사 5인 및 평의원 30명을 선정했다.<sup>193)</sup>

1923년 5월 김병규는 동래면이 지정면이 되어 처음 실시된 면협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기영회와 월일회의 주최로 유권자대회가 열렸는데 총유권자 296명(조선인 277명, 일본인 19명) 중 159명이 출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월일회 대표 김병규는 「지정면의 성질과 협의회원의 직책」에 대해 강연했다.<sup>194)</sup> 선거 결과 김병규를 비롯해 조선인 12명과 일본인 2명이 각각 당선되었다.<sup>195)</sup>

당선 직후인 1923년 7월 일월회 주최로 동래면유지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김병규는 이전부터 동래면에서 관리해 온 각 동리의 재산으로 초등교육기관을 증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유지들이 동의해서 기성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 20명

188) 『동아일보』, 1921년 4월 28일, 4면, 5월 3일, 2면; 『조선일보』, 1921년 5월 1일, 4면, 5월 4일, 2면; 『每日申報』, 1921년 4월 29일, 2면.

189) 김동명, 앞의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146-148쪽; 『동아일보』·『조선일보』, 1923년 3월 18일, 3면.

190) 『동아일보』, 1922년 12월 14일, 3면.

191) 위와 같음.

192) 홍순권, 앞의 책, 237쪽; 김승, 「일제강점기 해양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4권 1호, 2011년, 213-214쪽.

193) 『동아일보』, 1923년 3월 27일, 4면.

194) 『동아일보』, 1923년 4월 29일, 4면.

195) 『동아일보』, 1923년 5월 26일, 8면.

을 선정했다.<sup>196)</sup>

1923년 9월 김병규는 임시 동래면장에 임명되었다. 1923년 동래면이 지정면이 되자 일본인 측은 일본인을 면장에 앉히려고 경남지사와 부산부윤, 전현직 동래군수에게 로비하며 김병규 등 동래면 유지들의 양해를 얻으려 하였다.<sup>197)</sup> 이에 대해 조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여 면민유지대회를 개최하고 김병규를 면장 후보로 추천하자 도당국이 그를 면장에 임명했다.<sup>198)</sup>

1926년 5월 실시된 동래면 협의원 선거에서 김병규는 재선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월일회는 상무회와 함께 면민유지대회를 개최하여 조선인 후보의 당선 전략을 논의했다. 그 결과 조선인 공인 후보로 김병규 등 10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공인 후보 선거 협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운동을 벌여 조선인 당선인 9명 중 김병규를 비롯해 5명이 당선되었다.<sup>199)</sup>

1926년 김병규는 「전기문제 부산부민대회」 동래면 대표 진정 위원으로 활동했다. 부산부민들이 전기 가스 요금 인하와 전차 요금 균일제를 요구하며 부민대회를 개최하고 전기 가스 부영화 운동을 전개하자 동래면도 이에 호응하여 면민대회를 열었다.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인과 함께 지지 연설에 나선 김병규는 동래측 대표로 선출되었다.<sup>200)</sup> 「전기문제 부산부민대회」는 전기 가스의 부영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진정 위원으로 김병규 외 14인을 선정했다. 진정 위원들은 부산부윤과 경남지사, 총독부 철도국장, 체신국장, 내무국장을 면담하고 총독에게 진정서를 전달하였다.<sup>201)</sup>

1927년 선거를 앞두고 김병규는 중년 인사를 망라한 지역 유지의 모임인 정묘구락부를 조직했다. 회의 목적은 회원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방의 변영과 실생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할 것 등이었다.<sup>202)</sup> 같은 해 3월 실시된 경상남도 평의원 선거에서 김병규는 총투표수 104표 중 68표를 얻어 18표를 얻는 데 그친 현역 이윤영은 물론 32표의 차점자를 압도하며 당선되었다.<sup>203)</sup>

김병규는 1928년 1월 지방 유지 및 관공서 직원 등과 소방조원의 위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조후원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했다.<sup>204)</sup> 같은 해 4월 일신여학교 학부형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되었다.<sup>205)</sup> 또한 10월에는 허례허식의 폐지와 생산소

196) 『동아일보』, 1923년 7월 29일, 4면.

197) 『朝鮮時報』, 1923년 5월 11일, 2면.

198) 『朝鮮時報』, 1923년 5월 11일, 2면; 『동아일보』, 1923년 9월 23일, 4면; 『每日申報』, 1923년 09월 17일, 4면; 『조선일보』, 4면; 1923년 9월 18일, 10월 17일, 4면 참조.

199) 『동아일보』, 1926년 5월 13일, 4면, 5월 25일, 1면.

200) 『동아일보』, 1926년 10월 2일, 12일, 4면.

201) 『동아일보』, 1926년 10월 14일, 15일, 23일, 4면; 『朝鮮時報』, 1926년 10월 23일, 2면.

202) 『동아일보』, 1927년 2월 12일, 4면.

203) 『中外日報』, 1927년 3월 20일, 4면.; 『每日申報』, 1927년 3월 21일, 3면; 『동아일보』, 1927년 4월 4일, 4면.

204) 『동아일보』, 1928년 1월 10일, 4면.

205) 『조선일보』, 1928년 4월 7일, 4면.

비의 협동 등 경제적 생활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생활개선회를 대표로 발기하고 간사에 선임되었다.<sup>206)</sup> 1929년 11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으로, 1931년에는 편찬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sup>207)</sup>

## 2) 동해안철도 동래읍 통과 운동

1926년 총독부 철도국이 원산 부산 간 동해안 철도 노선 중 해운대에서 부산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될 역에 동래읍이 포함된 원안을 수정하여 동래읍을 제외하고 남면(동래군 일부)을 통하여 바로 수영(동래읍에서 약 10리)을 지나 부산에 이르도록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동래면민들은 같은 해 9월 면민유지회를 개최하고 동래읍 통과를 동래면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원안대로 동래읍을 통과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김병규와 일본인 1명 등 3명을 진정 위원으로 선정해 이를 철도국에 진정하였다.<sup>208)</sup>

하지만 1년이 지난 1927년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래읍을 통과하지 않는 수정안이 결정적이라고 알려지자 수백 명의 동래면민들은 면민대표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다. 김병규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향후 운동 방침을 토의했다. 그 결과 동해안 철도 동래읍 통과 운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당국의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동해안 철도 동래 통과 운동 기성회를 조직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회장 김병규, 부회장 일본인(河野內新藏), 간사 조선인 일본인 각 1인, 평의원 14인 등 임원을 선출했다.<sup>209)</sup>

기성회장 김병규는 동래면장 추봉찬과 함께 부산 및 동래 신문기자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민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시작 전부터 여러 대의 자동차를 동원하여 운동 선전 전단을 살포하여 기세를 올렸다. 대회가 시작되자 동래면장이 개회 취지를 설명하고 운동 경과가 보고되었다. 이어 김병규와 일본인 부산상의소 대표 등 3명이 동래읍 통과 의의점과 철도국의 태도, 운동 진행 방법 등에 관해 연설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동해안선 동래 통과를 전력을 경주하여 관철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총독부 정무총감, 철도국장, 경남지사에게 각각 타전하고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 대회에는 2천여 명의 면민과 신문기자, 부산상의소 대표 등이 참가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sup>210)</sup>

면민대회에서 민의를 확인한 기성회 간부들은 관계 당국에 직접 진정을 개시했다. 부산공무소장을 방문하여 총독부 철도국장에게 진정서 전달을 의뢰했다. 경남도청을 찾아가 출장 중인 도지사 대신 내무부장에게 「간원」했다. 이어 직접 총독부 철도국장에게 진정하였다.<sup>211)</sup>

206) 『동아일보』, 1928년 10월 10일, 4면; 『조선일보』, 1928년 10월 13일, 4면.

207) 『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 1931년 1월 8일, 2면.

208) 『동아일보』, 1926년 9월 17일, 4면.

209) 『동아일보』, 1927년 11월 20일, 4면; 『每日申報』, 1927년 11월 20일, 6면; 『조선일보』, 1927년 11월 21일, 4면.

210) 『每日申報』, 1927년 11월 21일, 30일, 4면; 『동아일보』, 1927년 11월 30일, 4면.

이러한 운동이 받아들여져 1934년 7월 부산 해운대 간 동해안 철도 노선은 서면(간이)을 거쳐 동래읍을 통과하고 수영(간이)을 지나는 것으로 역이 확정되어 개통하였다.<sup>212)</sup>

### 3) 시구 개정 변경 반대 운동

1920년대 들어서서 동래면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의 편리와 경제활동의 편의 등을 위해 도로를 정비하는 시구 개정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동래읍성의 서문에서 동래고보에 이르는 동서선을 개설하는데 동래군 당국이 기존 계획을 변경하려 하자 이에 면민들이 반대하고 기존 계획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sup>213)</sup>

1928년 이미 결정된 시구 개정 노선에 따라 동서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래군 당국은 동래군청의 정문과 기숙실을 철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계획을 바꾸어 동래군청을 우회하게 하였다. 이에 동래면민들은 직통도로를 위해 가옥이 철거되어 사생활을 침해당했음에도 공익을 위해 면의 계획에 협조해 왔는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당국의 전횡이며 「시구 개정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처사라며 반발했다.<sup>214)</sup>

같은 해 10월 70여 명이 면민유지대회를 개최하고 시구 개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실행 위원 5인을 선정했다. 실행 위원은 면장에게 시구 개정 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면장은 시구 개정 공사는 군 당국을 통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면은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군 당국의 의향대로 허가원을 제출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면민들은 제2차 면민유지대회를 열고 실행 위원이 면장과 함께 군 당국에 기존 계획대로 공사할 것을 진정하기로 하였다.<sup>215)</sup>

실행 위원과 면장은 군수에게 기존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고 실행 위원은 면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면협의회 의원(이하, 면협의회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면협의회원이 군수와 면장에게 면민유지대회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그것이 거절되자 12인 중 9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면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당황한 군 당국은 서무주임을 파견해 면협의회원과 만나 기존 계획대로 직통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할 테니 사직을 보류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면협의회원들은 일단 사표 제출을 보류하고 군수를 만나 책임 있는 말을 들은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sup>216)</sup> 하지만 군 당국은 면민유지대회 실행 위원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면민들은 같은 달 제3회 면민유지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에 김병규를 선출하였다. 면민유지대회는 군 당국이 면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면협의회원들과 타협하여 면민대회의 결의를 묵살하려 한다며 군수의 책임 있는 성명을 요구했다.<sup>217)</sup>

211) 『每日申報』, 1927년 12월 8일, 4면.

212) 『朝鮮新聞』, 1934년 5월 16일, 3면; 『每日申報』, 1934년 7월 12일, 5면.

213)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홍순권, 앞의 책, 246-255쪽 참조.

214) 『동아일보』, 1928년 10월 10일, 4면.

215) 『동아일보』, 1928년 10월 17일, 25일, 3면.

216) 『동아일보』, 1928년 12월 3일, 4일, 9일, 4면; 『조선일보』, 1928년 12월 11일, 4면.

217) 『동아일보』, 1928년 12월 28일, 4면.

이후 1년이 지나도 면민들이 요구하는 시구 개정 변경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29년 11월 임시의장 김병규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다시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면민대회는 시구 개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 9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민대회를 다시 이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조사위원회는 김병규를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sup>218)</sup>

다음 달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완료하고 면민대회를 속회했다. 대표위원 김병규가 속회를 선언한 후 조사위원들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의견서를 낭독했다. 그들은 면장과 전 면협의원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면장의 독단적 행동과 간교한 수단, 전 면협의원의 무성의하고도 눈어두운 행동을 폭로했다. 면민대회는 시구 개정 변경은 면민의 의사와 완전히 배치하는 일이므로 면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예정선 대로 실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일본인 1명을 포함한 10명의 실행 위원을 선출했다.<sup>219)</sup>

다음 해 3월 실행위원회는 면민대회를 개최하여 임시의장에 김병규를 선출하고 당국의 태도의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면민의 의사를 유린하면 할수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면장은 면민대회가 요구하는 시구 개정을 예정대로 묵숨을 걸고라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자 면민대회는 일단락되었다.<sup>220)</sup>

#### 4) 예산안 반상사건<sup>221)</sup>

1929년 3월 경상남도 도평의회 회의에서 김병규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문기관이 설치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반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도 당국이 일면일교를 1927년도부터 1931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지사가 바뀌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민중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적 정치」라며 도 당국이 도평의회에 요청한 예산안 심의에 응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이다.<sup>222)</sup>

김병규의 예산안 반상 동의에 대해 다수가 찬성하자 회의장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고 도 당국은 크게 당황했다. 지사 수도(須藤素)는 예산안 반상은 도평의원이 지사의 자문에 대한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 예산안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회의를 폐회했다.<sup>223)</sup>

지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평의원들은 비밀간담회를 열고 토의한 결과 일면일교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도 당국에 요청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지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반상 동의안을 제출한 김병규에게 철회를

218) 『동아일보』, 1929년 11월 14일, 3면.

219) 『동아일보』, 1929년 12월 11일, 3면.

220) 『동아일보』·『조선일보』, 1930년 3월 14일, 3면; 『中外日報』, 1930년 3월 15일, 4면.

22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동명, 앞의 『지배와 협력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참여』, 270-295쪽 참조.

222) 慶尙南道, 『第10回慶尙南道評議會會議錄』, 1929年(이하, 『慶南道評議會會議錄』), 제4일, 25-31쪽; 『동아일보』, 1929년 3월 8일, 4면.

223) 『동아일보』, 1929년 3월 8일, 4면; 『慶南道評議會會議錄』, 제4일, 41쪽.

요구했다. 하지만 김병규가 끝까지 반상 동의안 철회를 거부하자 기명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3명 중 29명이 참여해 찬성 14표, 반대 13표, 찬부 불명 2표, 1표 차로 동의안이 가결되었다.<sup>224)</sup>

다음 날 회의에서 지사는 예산안 반상 동의안 제출은 당국에 대한 명확한 불신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는 결코 지사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sup>225)</sup> 그러나 지사는 거듭 반상 동의안을 불신임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폐회를 선언하고 심의를 중단했다. 이어 총독에게 자문 안건 전부를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총독부는 곧바로 원안대로 승인했다. 동시에 지사는 「도평의회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을 오손(汚損)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도지사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이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선도지방비령 제14조」에 의해 예산 반상에 찬성한 도평의원 14명 전원을 해임했다.<sup>226)</sup>

김병규는 해임된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2백만 도민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하고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반상 동의안 제출 이유를 거듭 설명하고 도당국의 해임은 감정에서 나온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sup>227)</sup> 하지만 지사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해임 의원들은 해임 조치에 항의하는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독 및 제국의회 의원 등에 진정하기로 하였다.<sup>228)</sup>

이에 지사는 예산안 반상을 주도한 김병규를 설득하기 위해 고등과장 후지하라(藤原喜藏)를 비밀리에 동래에 파견하여 제2차 성명서 발표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병규는 지사에 대하여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특히 해임 이후 도당국이 근거 없는 사실을 공포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몰상식한 광태(狂態)」로 도민들에게 전해져 「인격적 생명」까지 말살되고 궁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공론에 부쳐 도민들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229)</sup>

김병규의 설명을 들은 고등과장은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거듭 부탁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해임 의원들에게 서간을 보내 발표 중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 대다수가 동의하면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sup>230)</sup> 이에 김병규는 후지하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13명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2차 성명서 발표 중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데 회답을 보내온 9명 전원이 발표 중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해임 의원들은 제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성명서에서 또한 도당국이 밝힌 일면일교제 계획 연기 사유

224) 『동아일보』, 1929년 3월 9일, 4면, 10일, 3면; 『慶南道評議會會議錄』, 제5일, 7쪽.

225) 『京城日報』, 1929년 3월 9일, 2면; 『동아일보』, 1929년 3월 10일, 3면.

226) 『동아일보』, 1929년 3월 11일, 2면; 손정목, 『한국 지방제도·자치사 연구(상)』, 일지사, 1992년, 228-229쪽.

227) 『동아일보』, 1929년 3월 13일, 2면.

228) 『동아일보』, 1929년 3월 28, 3월 30일, 4면.

229) 『동아일보』, 1929년 3월 30일, 4면.

230) 위와 같음.

를 일일이 반박하고 도민들의 엄정한 비판을 구했다.<sup>231)</sup> 이후 9월 해임된 도평의원 14명 중 민선의원 12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자 해임 의원 14명 전원이 출마했다. 특히 관선의원으로 반상안 동의에 찬성한 김경진과 이은우도 민선의원 선거에 나섰다.<sup>232)</sup>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병규는 신문지상을 통해 선거에 임하는 자신의 생각을 도민들에게 알렸다. 그는 도평의원 해임 사건은 의사기관과 집행기관, 즉 민중과 위정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 발생한 「중대한 충돌」이며 그 충돌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보궐선거의 결과가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 행위는 결국 「민의를 반영」이므로 선거를 통해 민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33)</sup>

보궐선거 결과 해임 의원 14명 중 8명이 1위에, 5명이 2위에 당선되었다. 하동의 이보형을 제외한 13명이 지사가 의원에 임명할 수 있는 표를 얻은 것이다. 김병규는 68표를 얻어 2위와 18표 차이로 무난히 1위에 당선되었다.<sup>234)</sup> 그러나 김병규는 임명 회피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지사는 김병규를 미리 불러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 차점자를 임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1위로 당선된 해임 의원 7명은 「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모두 임명하였다.<sup>235)</sup> 김병규가 사임 의사를 밝힌 데에는 아마도 도 당국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를 임명할 경우 예산안 반상의 책임이 도 당국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4. 관선의원 시기

일제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식민지 지배가 점점 불안정을 더해가자 1931년 지방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부·면제를 부·읍·면제로 바꾸고 도와 함께 부와 읍에 각각 의결기관인 도·부·읍회를 설치했다. 동래면은 읍으로 승격되어 1931년에 읍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김병규는 초대 읍회 의원에 이어 35년과 39년에도 당선되었다. 또한 1933년 경상남도 도회 초대 관선 의원에 임명된 후 37년에 연임되었다. 도회 역시 조선인 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완화하기 위해 민선과 더불어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 1) 다양한 정치활동

1930년 3월 치러진 도평의원 선거에서 김병규는 예산안 반상 사건의 여파로 낙선했다.<sup>236)</sup> 이후 그는 경오구락부(庚午俱樂部)를 기반으로 재기를 모색했다. 이 구락부

231) 『동아일보』, 1929년 4월 5일, 6일, 4면.

232) 『동아일보』, 1929년 8월 20일, 5면; 『京城日報』·『조선일보』, 1929년 8월 30일, 『동아일보』, 1929년 8월 31일.

233) 金秉圭, 「慶南道評議員의 補缺選舉에 際하여」, 『동아일보』, 1929년 8월 27일, 4면.

234) 『동아일보』, 1929년 9월 10일, 4면; 『조선일보』, 1929년 9월 11일, 4면.

235) 『동아일보』, 1929년 9월 11, 12일, 7면; 『조선일보』, 1929년 9월 13일, 4면; 『每日申報』, 1929년 9월 13일, 3면.

는 같은 해 2월 동래읍 유지들이 그동안 「극도로 소격되어 있던 동래읍 내 중년층과 청년층」이 연계하고 「지방 발전을 충실히 도모」할 것 등을 취지로 내걸고 조직했다. 김병규는 11명의 간사 중 간사장에 선출되었다.<sup>237)</sup> 경오구락부는 1930년 4월 강연회 개최를 시작으로 동래 사회단체 회관 건축기성회를 후원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벌여 회원이 180여 명으로 증가하여 8명의 간사를 증원했다.<sup>238)</sup> 1931년 2월에는 좌담회에 이어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안인 유지비 문제, 동래온천 탕원 통일 문제, 수안선 시구 개정 중단 문제, 물가 인하 문제, 시내 위생 문제, 군청앞도로 직통 문제, 읍회의원 선거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결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간사장 김병규 등 교섭위원들은 동래면장을 방문해 신속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sup>239)</sup>

1931년 4월, 동래읍회원 선거를 앞두고 경오구락부는 조선인 후보의 난립을 막아 조선인을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공인후보자를 선정해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동래읍회 의원 정원은 12명이었는데 경오구락부는 공인 후보로 조선인 9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정견 발표회 등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일본인을 견제했다. 투표 결과 김병규 등 경오구락부 공인 후보 8명이 당선되었다. 김병규는 1935년과 39년에도 연이어 당선되었다.<sup>240)</sup>

1931년 4월 김병규는 미가 폭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농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래식산조합을 창립하고 감사에 선임되었다.<sup>241)</sup> 1932년 6월에는 곡류 비료 등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동래산업조합을 발기하고 조합장에 취임했다.<sup>242)</sup> 또한 같은 달 김병규는 부산 제2상업학교 학급 증가 기성회 대표를 맡아 경상남도 지사와 내무부장을 방문해 10개 학급에서 15개 학급으로 늘려줄 것을 진정하였다.<sup>243)</sup> 1933년 1월에는 동래읍주민들이 상수도 설치를 읍 당국에 요청하자 김병규는 읍회 의원으로서 읍장과 함께 도 당국을 방문하고 상수도 설비에 필요한 지방비 보조를 진정하였다.<sup>244)</sup>

이러한 활발한 정치활동을 기반으로 1933년 김병규는 경남도회 민선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유력시되었다. 이에 도 당국이 김병규를 관선의원으로 임명하자 그는 입후보를 사퇴하였다.<sup>245)</sup> 이어 1937년에도 김병규는 관선의원에 임명되었다.<sup>246)</sup>

236) 『朝鮮新聞』, 1930년 3월 20일, 3면; 『每日申報』, 1930년 3월 21일, 5면; 『조선일보』, 1930년 3월 27일, 3면.

237) 『동아일보』, 1930년 2월 5일, 3면.

238) 『조선일보』, 1930년 4월 12일, 3면, 8월 21일, 9월 12일, 6면.

239) 『동아일보』, 1931년 2월 27일, 3월 2일, 3면.

240) 『每日申報』, 1931년 4월 4, 11일, 3면, 26일, 8면; 『동아일보』, 1931년 4월 6일, 3면; 『每日申報』, 1935년 4월 28일, 3면, 5월 22일, 1면; 홍순권, 앞의 책, 457-465쪽.

241) 『동아일보』, 1931년 1월 7일, 3면; 『동아일보』, 1931년 4월 2일, 5면.

242) 『동아일보』, 1932년 6월 23일, 6면, 1933년 6월 21일, 3면; 『조선일보』, 1932년 7월 21일, 3면; 『每日申報』, 1933년 6월 5일, 3면.

243) 『조선일보』, 1932년 6월 23일, 3면; 『每日申報』, 1932년 6월 26일, 3면.

244) 『동아일보』, 1933년 1월 27일, 3면.

245) 『朝鮮時報』, 1933년 3월 16일, 2면; 『釜山日報』, 1933년 5월 5일, 1면.

246) 『조선일보』, 1937년 4월 29일, 1, 7면.

1933년 6월 동래읍의 관민 유지들이 동래간담회를 조직해 동래 부산 간 전차 요금 인하 운동을 벌였는데 김병규는 위원으로 활동했다.<sup>247)</sup> 7월에는 동래 제1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 위원으로 면민대회에서 증축안을 설명했다.<sup>248)</sup> 11월에는 보성전문학교 창립 30주년 기념사업회 발기인 및 실행위원에 선정되었다.<sup>249)</sup> 1934년 경성에서 열린 선미(鮮米)옹호기성회에 경남곡물협회 겸 도민대표로 참가했으며<sup>250)</sup>, 조선농회 경남도농회 특별위원으로서 중앙회의 도대표 통상위원에 선임되었다.<sup>251)</sup> 또한 1936년에는 동래 제1공립보통학교 신축교사의 부실공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학부형회의 진정으로 활동했다.<sup>252)</sup>

1937년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들어가자 김병규는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섰다. 1937년 8월 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가 시국 인식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실업계, 공직자 등의 조선인 유력자들을 전 조선 각지에서 파견하여 시국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1차 22명에 이어 제2차로 59명의 연사가 발표되었는데 김병규는 경상남도 대표 4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경남도회 관선 의원의 이름으로 도내 순회강연에 나서 양산군, 함안군, 밀양군, 의령군 등을 돌며 지나(만주)사변의 발단과 현황을 설명하고 조선인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연설했다.<sup>253)</sup>

1939년 8월 조선군은 중일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병사부를 설치했다. 병사부는 조선인 지원병제도와 청년 훈련 등을 지원할 민군 전쟁 협력 기구로 경성, 평양, 대구 등에 6개소를 두었다. 김병규는 경상남도의 민간 대표로 대구병사부에 속해 지원병제, 청년 훈련, 사상 대책 등을 토의하는 병사부장 관계관회의 군민 중요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활동했다.<sup>254)</sup>

또한 김병규는 1940년 2월 동래군 임시 식량대책 위원에, 11월에는 동래군 미곡통제조합 총대에, 1941년 3월에는 동래군 섬유잡화소매상 조합장에 각각 선임되어 전시 물자 및 물가 통제에 적극 협력했다.<sup>255)</sup> 그리고 1940년 11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일본의 기원 2600년을 「봉축」하는 「성기(聖紀)의 축전」에 「반도참열부대」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조선에 돌아온 김병규는 「천황을 가까이에서 뵈고 칩어를 받은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내선일체로 신동아건설에 노력」할 결의를 밝혔다.<sup>256)</sup> 이어 1941

247) 『동아일보』, 1933년 6월 9일, 3면.

248) 『朝鮮時報』, 1933년 7월 24일, 2면.

249) 『조선일보』, 1933년 11월 6일, 2면; 『동아일보』, 1933년 11월 6일, 2면.

250) 『釜山日報』, 1934년 2월 10일, 1면.

251) 『朝鮮新聞』, 1938년 5월 7일, 5면; 『每日申報』, 1934년 9월 7일, 8면; 『조선일보』, 1934년 10월 24일, 6면; 『朝鮮新聞』, 1934년 10월 24일, 2면.

252) 『每日申報』, 1936년 3월 25일, 3면.

253) 『동아일보』, 1937년 8월 13일, 2면, 9월 14일, 16일, 4면; 『조선일보』, 1937년 8월 29일, 9월 1일, 2면, 9월 13일, 4면; 『朝鮮時報』, 1937년 9월 17일, 3면.

254) 『동아일보』, 1939년 7월 16일, 1면; 『조선일보』, 1939년 8월 23일, 1면; 『每日新報』, 1939년 8월 23일, 1면.

255) 『每日新報』, 1940년 2월 14일, 3면; 『京城日報』, 1940년 11월 11일, 1941년 3월 12일, 5면.

256) 『京城日報』, 1940년 11월 18일, 5면.

년 10월 민간 전쟁 협력 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이사로 경남지부 설치를 주도했다.<sup>257)</sup>

## 2) 동래온천 읍영 운동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동래온천은 공중목욕탕과 대규모 여관 설비가 갖추어지며 전국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변화해 갔다. 동래면과 철도국이 대중목욕탕을 경영하고 여관들도 목욕탕을 운영했다. 이후 동래온천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온천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부족한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 도 당국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얻어 탕원을 굴착하면서 용수 부족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갔다. 급기야 1931년 초에는 일본인 여관 봉래관이 탕원을 새로 굴착하여 용수를 확보하자 다른 탕원은 거의 고갈 상태에 빠지고 철도국 경영의 공중목욕탕이 휴업했으며 동래면 경영의 대중목욕탕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온천수의 안정적 확보는 동래온천의 「사할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온천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탕원을 통일하여 공평하게 용수를 공급할 것을 주장했다.<sup>258)</sup>

하지만 도 당국이 동래온천의 배당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1931년 3월 김병규가 간사장으로 있는 경오구락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오구락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철도국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래온천의 탕원을 통일하여 동래면에서 관리하고 온천수를 유료로 배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sup>259)</sup>

하지만 도 당국은 도영 방침을 세우고 철도국과 교섭해 철도국 소유 토지 약 2만 평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탕원을 통일해서 동래온천을 적극 개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철도국이 회계법 등을 이유로 도 당국의 제안을 거부하여 동래온천의 도영 계획은 난관에 봉착했다.<sup>260)</sup>

이에 동래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특히 동래온천의 관리권이 철도국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자 같은 해 8월 동래 읍회 의원들은 배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천장유지대회를 개최하였다.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지들은 읍이 동래온천을 운영하여 탕원을 통일해서 온천수를 배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sup>261)</sup>

이어 읍회 의원들은 같은 달 동래읍민 전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병규와 아오야마(靑山文山), 김우삼(金友三) 등 읍회 의원이 탕원 통제에 대해 설명한 후 장시간 토의한 결과, 읍민대회는 동래읍이 온천정의 굴착권을 얻어 탕원을 통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결의안을 동래읍장에게 제출하고 읍회를

257) 『每日新報』, 1941년 10월 21일, 3면; 김도형, 『조선임전보국단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100, 103쪽.

258) 김승, 앞의 글, 241-246쪽; 『동아일보』, 1929년 3월 1일, 4면, 1930년 12월 29일, 1931년 1월 13일, 3면.

259) 『동아일보』, 1931년 3월 20일, 3면.

260) 『동아일보』, 1931년 7월 18일, 30일, 8월 28일, 9월 1일, 3면.

261) 『동아일보』, 1931년 8월 28일, 3면.

긴급 소집하여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그들은 탕원 통제를 관청인 철도국 보다는 영리주의에서 자유롭고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동래읍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sup>262)</sup> 동래읍장은 도지사를 방문해 읍민대회의 결의 사항을 설명하고 도 당국의 양해를 구했다. 같은 날 철도국 역시 도지사를 방문해 동래온천의 탕원을 관리할 의향을 밝혔다.<sup>263)</sup>

동래읍과 철도국이 서로 탕원 관리권을 요구하자 도 당국은 쉽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에 철도국과 동래읍은 각각 새로운 온천정 굴착허가원을 도 당국에 제출했다. 철도국은 동래읍이 탕원을 통제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동래읍은 탕원을 통제할 재정이 충분하다고 맞섰다.<sup>264)</sup>

읍회의원들은 다시 읍민 전체의 지지와 성원을 얻으려고 수백 명의 읍민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읍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읍회의원 김병규는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철도국은 동래온천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므로 동래읍이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읍민대회는 동래읍회에서 결의한 온천 탕원 통제와 온천 읍영 계획을 적극 지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총독부 정무총감과 내무국장, 경상남도 지사에게 각각 타전하였다. 그리고 읍회의원과 함께 온천 읍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 15명(일본인 3명 포함)을 선출하였다.<sup>265)</sup>

제2회 읍민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한 동래읍회 의원들은 총독부에 진정위원으로 김병규를 비롯해 박길호와 아오야마 읍회 의원을 특파했다. 진정위원들은 총독부 내무부장과 지방과장을 만나 읍영 이관의 이유를 설명하고 총독부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용산철도국의 국장과 공무과장을 방문하여 양해를 구했다. 이에 철도국장은 민의를 존중한다며 만약 동래읍이 신온천정을 굴착하여 철도국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온천수를 충분히 공급하여 준다면 동래읍에 굴착권을 양도하고 동래온천에 있는 철도국 토지를 동래읍에 대부하여 동래읍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up>266)</sup>

같은 해 10월 도지사는 동래읍 대표로 읍장과 군수, 읍회의원 김병규, 아오야마, 박길호 등 5명을 도청에 불러, 온정 굴착과 온천 배탕 설비, 온천 시설 개선은 지사의 지시에 따를 것, 기존 온천경영자의 기득권을 보장할 것, 온천회계는 읍회계와 분립 독립하여 탕천 수입은 탕천 발전에 사용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동래온천 굴착권과 탕원 통제권을 동래읍에 허가한다고 정식 발표하였다. 이를 동래읍 대표와 읍회가 받아들여 동래온천 읍영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에 김병규는 동래온천의 번영과 읍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쁜 일이라며 지사의 「공평한 결정」에 감사를 표했다.<sup>267)</sup>

262) 『동아일보』, 1931년 9월 1일, 3면; 『朝鮮時報』, 1931년 9월 2일, 1면.

263) 『동아일보』, 1931년 9월 8일, 3면.

264) 『부산일보』, 1931년 9월 9일, 2면; 『京城日報』, 1931년 9월 18일, 4면; 『동아일보』, 1931년 9월 20일, 3면; 『朝鮮時報』, 1931년 9월 19일, 3면; 『조선일보』, 1931년 9월 21일, 4면.

265) 『每日申報』, 1931년 9월 22일, 3면; 『동아일보』, 1931년 9월 22, 25일, 3면; 『조선일보』, 1931년 9월 23일, 6면, 25일, 4면; 『京城日報』, 1931년 9월 24일, 5면.

266)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 3면; 『조선일보』, 1931년 9월 23일, 6면; 『京城日報』, 1931년 9월 24일, 5면.

### 3) 소학교 조선어 교육을 둘러싼 도회 논의

제12회 경상남도 도회는 1939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열렸다. 제6일 짜인 2월 27일 제1호안 세출입예산 제1독회에서 김병규는 소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 문제에 관해 도 당국의 명확한 방침에 대해 질의했다.<sup>268)</sup>

1938년 4월 칙령으로 발표된 「개정 조선교육령」은 기존의 조선인 학교인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를 폐지하고 각각 소학교와 중학교로 개편했다. 이는 내선일체의 교육방침을 법제화한 것으로 조선인 학교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한 소학교와 중학교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에서 필수과목이었던 조선어가 수의과목이 되었다.

이에 대해 김병규는 일제가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서 조선어를 말살시키려는 방침을 정한 것이며 그것이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청북도에서 조선어를 폐지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경상남도에서는 조선어 시간을 매우 적게 하거나 3학년 이상은 아예 없애는 등 조선어 과목은 거의 유명무실이어서 머지않아 자연히 폐지될 운명이라고 그는 보았다.<sup>269)</sup>

기본적으로 김병규는 언젠가 소학교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모든 조선인이 「국어」(일본어)로 「일을 처리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스스로 조선어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도 좋으며 일제의 동화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아직은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일상생활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소학교 교육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김병규는 당시 일본어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인 아동에게 조선어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지 않으면 소학교를 졸업한 조선인이 사회에 나가서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선인과 의사를 소통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다음에, 조선어는 「인문의 기둥으로 문화적 재산」이므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sup>270)</sup>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려는 것은 조선어 교육이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자극해서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사상 감정을 함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김병규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민족 고유의 언어」라는 것은 가르치는 방법 여하에 따라 민족의식을 자극 개발하지 않고 단지 지식만을 넓히는 경우도 있으며, 문화적 재산이기 때문에 민족적 감정을 초월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자는 기존의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황국신민」으로서 중일전쟁을 지지하고

267) 『京城日報』, 1931년 10월 7일, 2면, 8일, 4면; 『조선일보』, 1931년 10월 8일, 7면; 『每日申報』, 1931년 10월 08일, 3면.

268) 慶尙南道, 『第十二回慶尙南道會會議錄』, 1939年, 151쪽(이하, 『慶南道會議錄』).

269) 『慶南道會議錄』, 152쪽.

270) 『慶南道會議錄』, 152-153쪽.

지원병에 나서고 있는 데에서, 후자는 불국사 석굴암의 불상을 찾는 많은 조선인이 조상의 예술이 정말로 위대하다며 충심으로 추모하는 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김병규는 주장했다.<sup>271)</sup>

김병규는 도 당국의 소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방침을 명료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만약 도 당국의 방침이 정말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언문」(한글)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조선인들은 「자녀의 교육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한다」며 조선어 교육 폐지에 강하게 반발했다.<sup>272)</sup>

이에 대해 내무부장 마스다(増田道義)는 총독부에서는 국어 보급 장려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생활에 필요한 조선어는 폐지하거나 금지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선어가 보통학교의 필수과목에서 소학교의 수의과목으로 바뀐 것은 1938년의 「개정 조선교육령」에 의한 것이므로 조선어 과목이 급격히 폐지되리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총독부의 내선일체가 성과를 거두어 조선인 모두 국어를 말하게 되면 조선어를 폐지해도 좋다는 김병규 의원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그렇게 되면 조선어는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언어가 아니라 조선의 자랑스런 문화적 산물로 남을 것이므로 급히 조선어 교육을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sup>273)</sup>

하지만 마스다는 한글이 「민족 고유의 언어」라는 김병규의 인식에 아래와 같이 회의를 표하자 이에 대한 김병규의 반론이 이어졌다.

언문은 약 5백 년 전의 조선 문화의 자랑할 만한 실로 위대한 산물로서 아마도 후세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5백 년 전에 만들어진 언문이 현재처럼 사용되지 않았다. 소위 당시의 지식계급은 오로지 한문을 사용하고 언문을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여서 비교적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었다 … 언문이 완비되어 관공서의 문서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태왕 32년 일청전쟁 후 지나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이 되자 연호와 건양을 바꾸고 제반 제도를 정비할 때이다. 이때 자국어인 언문이 매우 중요시되어 비로소 언문이 관공서의 공문서에 사용되었으니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후 오늘날처럼 언문이 모든 조선 동포 사이에 사용되게 되었다.<sup>274)</sup> 언문은 조선의 고유한 것이 아니어서 영구적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sup>275)</sup>

마스다는 한글이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의 문화적 유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선에서 공문서를 비롯해 일반인 사이에 널리 통용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고유한 것이 아니어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규는 한글이 조선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마스다의 인식은 「오해」라

---

271) 위와 같음.

272) 『慶南道會議錄』, 153쪽.

273) 『慶南道會議錄』, 161쪽.

274) 『慶南道會議錄』, 161-162쪽.

275) 『동아일보』, 1939년 3월 3일, 3면. 밑줄 친 이 부분은 회의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당시 문제가 되자 일부러 속기록에서 삭제된 것 같다.

며 왜 고유한 것인가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왜 고유의 것이냐고 하면 지금부터 5백 년 전에 생긴 것으로 이전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물론 그렇다. 이조 세종 시대에 생긴 것이다. 요컨대 일국의 고유적인 것은 반드시 지구의 창조와 동시에 생긴 것만 고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문학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그 국민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의식이 굳어지면 그것은 고유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선 언문은 하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상류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일상에서 그것만 사용한 것은 하류의 사람들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르친 곳은 종래 조선의 사찰이나 서당이다. 처음에는 천자문이나 동문선습을 가르치고 이어서 소학, 대학, 맹자, 논어(를 가르치는데 이들)의 원문은 한문이지만 해석은 전부 조선 언문이다.<sup>276)</sup>

김병규는 한글은 5백 년의 역사 속에서 조선인이 자신들의 문자라는 의식이 있었으며 「상류」의 사람들도 한문을 공부할 때 한글로 해석했기 때문에 한글은 조선 고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마스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스다는 자신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의 조선어학사 최고 권위자인 오구라(小倉進平)의 저술에 의거」한 것이라며 그 책의 원문을 발췌해서 인용했다. 나아가 이전부터 소학, 대학, 논어, 맹자 등의 교육이 모두 한글로 행해졌다는 김병규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역으로 의문을 제기했다.<sup>277)</sup>

조선에 관한 내지인으로서 제1인자인 아유카이(鮎貝房之進)씨가 사서언해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이는 정말 권위 있는 언해역이라고 알고 있다. 옛날부터 그렇게 훌륭한 역이 있었다면 왜 아유카이가씨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sup>278)</sup>

마스다는 김병규의 말처럼 조선에서 한문을 배울 때 실제로 한글이 사용되었다면 이미 많은 한글 해석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 아유카이가 많은 비용을 들여 한글 해석을 한 것이라며 김병규의 주장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아유카이는 1922년 논어 「언해」를 시작으로 훈두(訓讀), 자해(字解), 의해(義解)를 달아 「유교 경전 언해 총서」를 발간했다. 그에 의하면 조선에서 「언해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세종 때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로 「경서 음해(音解)」를 하였다. 세조 때 구결(口訣)을 정하였고 성종 때 「칠서언해 구두(口讀)」를 편집 편찬했다. 이후 퇴계 이황이 석의(釋義)를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선조 9년에 율곡 이이가 사서와 오경의 언해를 계획하였으나 사서에 그쳤다. 선조 18년에 다시 국이 설치되어 관명으로 비로소 칠서언해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언해라도 하여도 훈두만 있고 훈두도 상세하지 않으며 자해와 의해는 없다.<sup>279)</sup>

276) 『慶南道會議錄』, 163쪽.

277) 『慶南道會議錄』, 164-165쪽.

278) 『慶南道會議錄』, 165쪽.

279) 鮎貝房之進, 『諺解 論語』, 儒教經典講究所, 1922年, 11-12쪽.

마스다는 조선어를 정말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국어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김병규의 생각에 거듭 동의와 만족을 표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sup>280)</sup>

이상 살펴본 것처럼 김병규는 학교 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일제의 동화주의=내선일체 정책에 적극 찬성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자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조선인의 정치활동이 총독부의 신망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조선인 사회로부터의 지지 또한 필요했다. 당시 일본인에의 동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조선인에게 조선어 교육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김병규는 총독부의 내선일체 교육방침을 전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소학교에서의 조선어 교육의 필요성을 도회에서 주장함으로써 조선사회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치력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김병규는 일제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병합 직전부터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는 주로 조선인의 교육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개양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대한자강회 지회 설치를 주도했으며, 동명학교와 동래고보 교사를 역임했다. 정치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일제와 전면전을 피하면서 조선인의 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 조선 사회의 지지를 얻어 정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에, 1920년대에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제한적이지만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지방자문기관을 설치하자 김병규는 민선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자문기관에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치과정이 확대되자 이를 통해 주민들은 목욕·교육·전기·가스·철도·도로·물가·위생·상수도 등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 이에 김병규는 민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함께 일제 당국과 대립과 타협, 갈등과 협상 등을 반복하며 여러 회로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의가 모이면 기성회 등을 통해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대회 등을 통해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적으로 실행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규는 지역의 정치단체를 이끌며 조직의 발기인, 간사, 회장, 대표, 진정위원, 조사위원, 교섭위원, 실행위원 등을 맡아 주로 조선인의 입장에서 지배 당국과 조선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1930년대 이후에도 전시체제에 접어들어 정치과정이 축소되었지만 김병규는 관선의원으로서 정치활

280) 『慶南道會議錄』, 165쪽.

동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김병규의 다양한 정치활동이 이 글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글에서 그가 밝힌 대로 일제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궁극적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정치활동이 일제 당국에 대한 일방적 협력이 아니라 때로는 대립과 갈등도 불사하며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음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활동은 조선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김병규가 경상남도 내무부장 겸 군정 고문에 이어 경상남도 도지사로 임명된 사실이 잘 말해주는 것이리라.

【토론문】

【제4발표】

## 「식민지기 조선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 -김병규(金秉圭)를 사례로-」에 대한 토론문

김영미(전남대학교)

본 발표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정치활동을 ‘친일 대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 ‘김병규’라는 동래 지역 유력자의 정치활동을 사례로, 식민지 권력과 조선인 정치세력 사이의 불균형하면서도 쌍방향적인 교섭 관계에 주목한 연구입니다. 기존 연구가 주로 거시적 제도·조직 분석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김병규가 참여한 수십 건의 진정·청원·면민대회·도평의회 발언록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일제 식민지기 조선인 정치적 활동에 대한 세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병규의 정치적 행위가 지니는 성격 등 발표문의 논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민 의(民意)’의 실체와 대표성의 한계에 대해

발표문에서는 김병규가 궁극적으로 ‘민 의’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그의 정치활동이 조선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기 정치 공간에서 김병규가 대변한 ‘민 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계급적, 사회적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김병규가 말한 ‘민 의’의 범주와 층위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자 그의 정치적 활동이 식민지민의 이익 대변을 위한 행위로 일괄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부·도·면 협의회 선거는 납세액을 기준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극도로 제한된 구조였습니다. 이는 김병규가 참여한 제도의 기반 자체가 일반 민중이 아닌,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지역 유지나 유산자 계급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가 조직하고 활동한 ‘기영회, 월일회, 정묘구락부, 경오구락부’ 등은 모두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김병규가 대변한 이익(예: 동래온천 읍영 운동, 시구 개정 등)이 동래 지역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이었는지, 아니면 지주 및 자본가 등 특정 토착 엘리트 계층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투영된 결과였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협력’과 ‘굴절’의 경계에 대해

전시체제기 김병규가 소학교의 조선어 교육 폐지에 반대한 사례를 보자면,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어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영구 보존할 문화적 재산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조선인이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김병규가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취한 정치적 처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을 넘어 김병규 본인이 “민족의 초월”을 내세운 일제의 ‘내

선일체' 논리와 식민주의적 근대화 프레임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어의 전면 보급을 전제로 조선어 폐지를 용인한 그의 발언은 체제에 순응하되 민족적 이해를 부분적으로 대변하는 이중적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 전략의 산물인지, 아니면 진정한 신념의 표현인지(이를 '민의를 대변'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3. 해방 후의 정치적 성취에 대한 인과적 해석에 대해

전쟁 동원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귀적을 서술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해방 후 미군정에서 김병규의 정치적 활동이 “조선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이 식민지기 관료와 유지들을 재등용한 것은 조선 민중의 자발적 지지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친일 엘리트들을 행정 기구에 그대로 편입시킨 미군정의 정치적 편의주의 및 점령 정책의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해방 후 김병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완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김병규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발표문 서론에서 김병규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로 ① 예산안 반상 사건 주도, ② 장기간 지속적 활동, ③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꼽았습니다. 다만 김병규 사례가 당대 동시기 여타 지역 유력자들의 정치활동과 어떤 점에서 전형적인지 혹은 어떤 점에서 특수한지에 대한 비교사적 설명이 보충된다면 그의 정치적 활동을 둘러싼 유기적인 맥락과 다층적 관계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일관계사학회 보고사항】

### 1. 2026년 학회 월례발표회

- 제224회 월례발표회 : 2026년 3월 14일(토)

### 2. 《한일관계사연구》 91집 발간

- 《한일관계사연구》 89집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0집이 2025년 11월 30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1집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 《한일관계사연구》 92집은 2026년 5월 31일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논문 게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달 전인 2026년 3월 31일까지 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때 심사비 6만원(심사자 3인)을 입금해 주시면, 심사비 입금확인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논문게재비는 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입니다.

### 3.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선생님들이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신회비] •일반회원 : 40만원(15년限) •기관회원 : 50만원(15년限)

[연회비] •일반회원 : 3만원•기관회원 : 4만원

•학생회원(학부생&석사과정생) : 1만원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33-1207166<예금주> 유채연